적용시킴으로 방지 가능한 중도탈락율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과정영역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설문지의 12번 질문은 선교단체 행정책임자가 선교사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살펴 보려는 것이었다. 선교행정 책임자가 어떤 점이 강화되고, 지지되고 그리고 검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조사과정을 마치는 것은 중요하다. 행정 책임자들이 이런 연습을 해봄으로써 배우게 된다고 우리는 믿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자료분석

자료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리서치의 피터 브릴리가 초기 자료 분석을 하게 되었다. 그의 분석결과를 담고 있는 방대한 120쪽의 보고서 초안을 원하면 WEF 선교위원회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조사작업의 시간계획이 정해져 있었지만 북미주로부터 늦어진 보고가 전체과정을 지체시켜서 1996년 4월의 "선교사 중도탈락 원인과 대처"라는 제목의 실무협의회 전까지 WEF 선교위원회 임원들에게 보고서가 전달되지 못하였다. 불행히도 영국의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에서의 중요한 협의회 전에 자료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던 만큼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추가의 분석들이 이 협의회에 뒤이어서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나 자신에 의해 완성되었고 이 책의 7장에 수록되었다.

1996년의 협의회 동안에는 피터 브릴리의 보고서 초안이 전체회의에서 보고되었고 참석자들은 이 보고서와 다른 전체 모임들에서 제공된 논문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전체 그룹은 선교사 선발, 훈련, 오리엔테이션, 선교지에서의 감독, 그리고 목양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춘 소그룹들로 나누어졌다. 한 그룹은 선교사 자녀와 그들의 독특한 필요에 연관된 중도탈락에 집중하기도 했다. 각 그룹은 해당되는 문제들을 토론했고 이 책의 각 장으로 발전된 기본적 개요를 만들어 냈다.

협의회는 우리 목적의 많은 부분을 성취하는데 극히 유익했다.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모인 115명의 교회와 선교단체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중도탈락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했다. 참석자들이 중도탈락을 각 선교단체 사역의 깊숙한 구조적, 프로그램적 차원의 문제를 나타내는 징후로 이해하기 시작함에 따라 넓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지속적인 고통과 좌절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게 됨에 따라 깊은 염려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다.

통계 자료는 더 많은 추가연구에 따라 다시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은 그들의 중도탈락율이 높기는 하지만 카삼부 회의에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라질의 매년 7%의 중도탈락율(4년 단위로는 28%라고 인용됨)은 이제 선교지도자들에게 분명한 수치를 제공해 줄 뿐더러 중도탈락의 원인과 가능한 대처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해 주고 있다. 우리의 브라질 동료들은 이 수치를 조만간 낮추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가나, 한국, 필리핀, 코스타리카, 그리고 다른 제2/3세계 동역자들처럼 브라질 동역자들도 그들의 선교운동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 이런 류의 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에 만족하였다.

WEF 선교위원회의 새로운 소명은 선교사 중도탈락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이 중요한 정보를 전세계의 선교 동역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중도탈락율을 낮추려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워크샵 등을 통해 전수 가능한 훈련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 워크샵에서의 한가지 중요한 강조점은 지역교회이든 선교기관이든 파송단체를 위해서 이런 류의 내부 정보를 만들어낼 탈락에 대한 기록을 보존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는 선교사 탈락을 줄이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보는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좀 더 가치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훈련의 다른 강조점은 파송단체로 하여금 선교사들을 개발하고 후원하는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방지 가능한 중도탈락을 줄이도록 최대의 효율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의 연구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영역들이 있다. 조만간 이런 거대한 필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시키게 되기를 기도한다. 구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준 WEF 선교위원회의 전세계 자원봉사자 네트웍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후원에 감사를 드린다.

조나단 루이스(Jonathan Lewis)는 선교사 자녀로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했다. 루이스 부부는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사역했고 미국에서 선교 목사로도 사역을 했다. 3권으로 된 *World Mission* (1987, 1993)이란 책을 저술했고, *Working Your Way to the Nations* (1996)를 편집했다. 최근에는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회의 선교사 훈련 자문 및 출판 책임자로서 사역하고 있다. 부인 돈(Dawn)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 보고서

피터 W. 브릴리

이건 문제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방지 가능한 데도 선교지에서 탈락하여 귀국하고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어떻게 주목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994년에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의 선교위원회는 조기귀국에 대한 보고서들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리고 이 중도탈락의 파악된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규명 차원의 연구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주 목적은 선교기관들로 하여금 선교사들을 잃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도록 하여서 중도탈락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었다.

1995년 2월에 WEF의 선교위원회 책임자인 윌리엄 테일러 박사와 국제선교사 연구팀장인 COMIBAM의 루디 히론이 영국의 Christian Research Association[1]에 WEF의 선교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들[2]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국들의 전문가 그룹은 8개의 주요 범주로 나누어진 중도탈락의 주된 이유 26개의 목록에 근거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다.[3] 조사는 각 국가의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추출된 표본자료에 대해 이루어졌다. 모두 14개 국가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이중 6개 국가는 "기성 파송국가"들로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이며 8개 국가는 "신생 파송국가"들로서 브라질, 코스타리카, 가나, 인도, 한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싱가폴 등이었다. 모든 대륙이 연구에 포함된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크리스챤 리서치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1992년에서 94년 사이의 측정기간에 선교단체 당 매년 3, 4명의 선교사가 탈락되었으며 이

---

1) 크리스천 리서치의 사역과 기타 활동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연락처에서 얻을 수 있다. Dr. Peter Brierley, Christian Research, Vision Building, 4 Footscray Road, Eltham, London, England SE9 2TZ : 전화 44 181 294 1989 팩스 44 181 294 0014, e-mail, <100616.1657@compuserve.com>.

2) 이 장에 제시된 통계들은 다른 장에서 제시된 통계와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세 가지 이유는 : (1) 이 장에서의 계산들은 처음 검색한 자료들에 근거하였다. (2)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죠나단 루이스(7장)는 추가 자료들을 포함하였다. 그들은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관점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3) 국가별 사례연구는 통계자료 중 일부가 새로운 조사방법에 따르기도 하고 수치를 판독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3) 자세한 내용은 345-351쪽에 수록되어 있는 연구 조사 방법을 참조하라.

는 선교단체 선교사 수의 5.1%에 해당되었다. 즉 선교사 20명 중 1명이 매년 선교사역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평균치는 모든 규모의 선교기관을 통틀어 계산된 것이다. 뒤에 언급하겠는데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가능하다면 5.1%라는 수치는 다른 연구들에서 재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수치로써 중도탈락을 연구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 연구에서의 수치들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온 수치와 대략적으로 일치하였다. 개개인의 개발에 투자되는 인적 자원, 빈번한 상담의 필요, 훈련, 여행, 후원경비, 교회에 주는 영향, 사역에 남겨진 공백, 선교 지도자들의 고통 등이 모두 매우 중요한 이 주제와 연계되어 있었다.

다른 유의사항

모든 기관을 망라해서 나온 5.1%라는 수치와 연관된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1. 어떤 탈락은 불가피한 것들이다. 1992-94년 사이 선교기관들이 경험한 탈락의 29%는 정상적인 은퇴, 정치적 위기 상황, 배우자의 죽음,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과의 결혼, 혹은 직업전환 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단지 방지 가능한 중도탈락을 생각할 때는 모든 통계에 0.71을 곱해야만 한다. 즉 방지 가능한 이유는 5.1%에서 3.6%로 줄어든다.

2. 어떤 선교사들은 한 선교단체를 떠난 후에 곧 다른 단체를 통해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각 선교단체는 모든 이유를 망라해서 손실된 숫자를 보고하게 된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선교지에 남아 있는지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 돌아와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 커다란 국제 선교기관(Back & Johnson, 1988. p.28 참조)이 7년 동안 새로 모집된 345명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서 13%가 선교단체를 떠났지만 그 중 2%는 선교사역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다른 연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를 선교기관에 연계시킨다면 전체 선교사 손실율을 계산할 때 탈락율에 0.85(2/13인 15%가 선교지로 돌아오므로)를 곱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지에서의 탈락율은 5.1% 대신 4.3%가 되고 방지 가능한 중도탈락율은 3.6% 대신 3.1%가 된다.

3. 첫 임기 중에 있는 선교사의 숫자는 묻지 않았는데 1986년 영국에서 행해진 연구는 1980년에서 86년 사이 25개의 다른 선교기관에 매년 새로 모집된 선교사의 숫자는 전체 선교사의 평균 9.1%라고 보여 주었다(Brierley, 1986). 모든 선교단체의 첫 임기를 평균 3년으로 보고, 영국의 1980년대 신규 모집자 비율이 1990년대에도 유효하고 또 모든 선교사 파송국가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선교사 전체의 27.3%(=3×9.1%)가 첫임기 중이라는 것이며, 세계복음선교회(World Gospel Mission)가 제출한 연구대로 만약 중도탈락이 이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준다면 이는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것이다(Bushong, 1980).

이 연구는 WGM 선교사의 탈락 중 절반이 첫임기 만료 이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실패한다든지, 문화적응에 실패하는 이유로 떠난다면 아마 이런 탈락은 오래된 사람보다는 첫임기의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다. 건강문제는 초보자보다는 고참들에게서 일어나며 연로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나 자녀 교육 문제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혼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다른 선교사들이나 지역교회 지도자들과의 문제 등도 역시 첫임기 이후에 등장하곤 할 것이다.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원인들이 더 주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배경이 되는 자료

World Churches Handbook (Brierley, 1997)에 의하면

1960년에 전 세계에 9억 2천만의 그리스도인들(다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포함)이 있었다. 1995년에는 16억 1천만으로 증가했고 이런 비율로 계속 증가하면 2010년에는 19억에 도달할 것이다. 현재의 증가율에 따르면 매일 6만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중 1/3은 어린이들일 것이며 1/5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하나에서 발생하고 있다. 1960년과 95년 사이의 성장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35년 동안에 북미주의 교회는 매년 +1.4% 비율로 새 신자를 얻었고, 오세아니아는 +1.1%, 유럽은 +0.1%였다. 라틴 아메리카는 +2.2%, 아프리카는 +3.8%, 아시아는 +4.1%였다. 비서구지역 교회가 서구의 교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북반구보다는 남반구 지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 1986, 죠이선교회 간)에서 패트릭 존스톤은 1960년에서 85년 사이의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성장률을 평가할 때 북미주와 유럽에서는 1960년에 6천만 미만에서 1985년에는 8천 5백만으로 늘었다고 하였다. 제3세계에서는 같은 기간에 2천 5백만에서 1억 6천만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놀라운 성장이다. 동시에 존스톤(1986, p.35)은 1978년에 전세계에 6만 3천명의 타문화권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중 90%가 서구인이었다고 추정하였다. 1985년에는 전체 숫자가 8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중 87%가 서구국가 출신이었다. 1990년에 존스톤(1993, p.643)은 8만 8천명의 선교사 중 79%가 서구 출신이라고 하였다.

비서구 출신 선교사 수의 증가는 레리 페이트(Larry Pate, 1989, p.52)에 의해 제시된 숫자와도 일치한다. 그는 이 통계에 유사문화권 선교사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차이가 난다. 페이트는 1980년에 7만 5천명의 선교사 중 80%가 서구인이고, 1988년은 12만 1천명에 68%가 서구인, 1990년에는 13만 7천명에 64%가 서구인, 1995년에는 19만 7천명에 55%가 서구인, 2000년에는 29만 6천명의 전체 선교사 중 45%가 서구인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페이트의 통계에서 서구 선교사의 비율이 존스톤의 통계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은 유사문화권 선교사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페이트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죠지 버워(George Verwer)가 20만명의 선교사를 더 보낼 것을 요청한 것에서 서구교회가 크게 뒤떨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4] 페이트(1989, p.45)는 제2/3세계 선교기관도 마찬가지로 1980년의 750개에서 1988년에는 1,100개로 급속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90년에는 1,200개, 1995년까지는 1,500개, 2000년에는 2,000개의 기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도탈락 연구를 통해서 신생 파송국가가 기성 파

선교사들의 사역 형태

사역 형태	전체%	기성 파송국%	신생 파송국%
개척선교	21	19	24
교회개척	20	18	21
현지인교회사역	17	19	15
구호	16	16	16
지역교회사역	13	14	12
지원사역	13	14	12
계(=100%)	446	242	204

개척선교 : 복음전도가 없거나 극소수인,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그룹에서 개척선교사역을 행하는 것.
교회개척 : 복음적인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서 전도와 교회개척 사역을 행하는 것.
현지인 교회사역: 행정, 목회, 교육, 신학훈련, 그리고 기타 지원사역 등을 통해 현지인 교회를 돕는 것.
구호 : 기아구호나 병원사역 등과 같은 구호나 개발.혹은 그런 기관 사역을 행하는 것.
지역교회사역: 행정, 목회, 교육, 신학훈련, 그리고 기타 지원사역을 통해 지역교회를 돕는 것.
지원사역 : 성경번역, 항공지원, 문서사역, 방송사역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와 교회개척을 지원하는 사역.

표 6-1

4) 1996년 1월 17일에 OM 국제총재인 죠지 버워는 앞으로 5년 내에 (주로 서구의) 교회들이 타문화권 복음전파를 위해 20만명의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열정적으로 호소하였다.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의 주된 사역		
	국가	선교사의 주된 사역
기성 파송국가	덴마크	구호(25%)
	독일	구호(30%)
	미국	교회개척(21%)
	영국	개척선교(21%)
	캐나다	개척선교(18%) 지원사역(18%)
	호주	현지인 교회사역(20%)
신생 파송국가	가나	교회개척(24%)
	나이지리아	개척선교(36%)
	브라질	개척선교(24%)
	싱가폴	개척선교(28%)
	인도	개척선교(29%)
	코스타리카	교회개척(25%)
	필리핀	개척선교(23%)
	한국	개척선교(23%)

표 6-2

송국가보다 개척선교와 교회개척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선교사들이 주로 행하고 있는 사역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6-1, 6-2 참조).

방법론

자국 내 조사는 각 국가별로 대표적인 선교협의체가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Evangelical Missionary Alliance가 담당하였고, 덴마크에서는 Danish Missions Council이, 브라질에서는 Cross-Cultural Missions Association of Brazil이 담당하였다. 이 각각의 기관에는 1995년 5월에 크리스천 리서치에서 설문지의 최종판이 보내졌다. 지역에 따라서 이 설문지들은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선교협의체들은 자국 목록에 있는 기관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몇몇 국가에서는 추출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총 551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표 6-3 참조). 이 중 37%가 신생 파송국가로부터 온 것이었다.

응답자의 14%, 즉 일곱 중 하나는 선교기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교회라고 구분하는 곳으로부터였다. 이런 교회들이 모두 80개였는데 66개는 기성 파송국가(미국이 64개)였고 14개가 신생 파송국가(가나 외 12개)였다. 전세계적인 수치에서 이들은 한꺼번에 분석되었고 각 나라의 응답자의 숫자로 비중이 주어졌다. 응답한 기관들의 비율이 각 나라별로 거의 같다고 가정하면 이 방법이 유효한 것이었다.

탈락자의 총 숫자

1992년과 1993, 1994년 3년 동안에 걸쳐서 탈락한 실제 숫자들을 선교단체들에게 물어보았다. 선교단체들의 평균 퍼센트를 보면 놀랍게도 기성 파송국가의 선교사들이 신생 파송국가보다 더 많이 귀국하였다. 기성 파송국가의 선교사는 18명 중 1명(5.6%)으로서 신생 파송국가의 24명 중 1명(4.1%)보다 높았지만 기성 파송국가 선교사의 상당수는 불가피한 이유로 귀국하였다. 이를 빼고 보면 전체적인 방지 가능한 연평균 중도탈락율은 기성 파송국가가 4.0%, 신생 파송국가

회수된 설문지의 숫자				
국가	회수된 총수	사용가능한 자료	선교기관에서 회수	교회에서 회수
가나	52	52	40	12
나이지리아	14	13	12	1
덴마크	10	10	10	0
독일	22	20	20	0
미국	194	190	126	64
브라질	22	22	22	0
싱가폴	7	7	6	1
영국	39	37	37	0
인도	21	20	20	0
캐나다	37	35	33	2
코스타리카	7	6	6	0
필리핀	18	18	18	0
한국	64	54	54	0
호주	44	44	44	0
계	551	528	448	80

표 6-3

가 3.4%였다.

선교사들이 떠나는 원인들은 자료의 출처에 따라 차이가 났다. 첫째로는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 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은 이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로는 단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공식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록된 원인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도 수집되었다. 셋째로는 떠나는 선교사들이 실제 주장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것은 언급될 수가 없었다. 본 조사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원인과 기록된 원인을 말해주도록 질문했다. 표 6-4에 이 두 원인을 비교해 놓았다.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이유 서류기록상 이유 / 선교본부가 추측하는 이유			
원인	전체 %	기성 파송국 %	신생 파송국 %
방지 불능	29/24	36/29	13/16
개인적	23/25	20/21	28/32
결혼/가족	13/13	15/17	11/9
단체와의 문제	11/12	9/10	15/15
사역에서의 문제	10/10	9/8	13/12
팀의 문제	6/9	4/8	3/10
문화적	2/5	2/5	2/5
기타	6/2	5/2	9/1
계(=100%)	4.131	2.893	1.238

그림 6-4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는 선교사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어쩌면 "실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법정 분쟁을 두려워해서?) "안전한" 이유를 대신 적는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심한 판단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선교사가 오랫동안 자신의 생애를 투자했던 선교지를 떠날 때 갖는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이 때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이유를 적어서 고통을 더해 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원치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두가지 주요 탈락 원인인 불가피한 이유와 개인적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도자들은 실제적인 원인이라고 믿어지는 것보다는 불가피한 원인이라고 적어 놓는 것을 좋아하였다(24%에서 29%로). 마찬가지로 실제 경우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개인적 이유라고 적어 놓는 것을 아주 꺼려하였다(25%에서 23%로). 오차가 크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다.

신생 파송국가는 불가피한 것이나 개인적 원인이라고 적는 것을 덜 좋아하는데 대신 실제 원인이라고 보는 것보다 "기타" 사유라고 적어 놓곤 하였다(1%에서 9%로). 기성 파송국가에서 두 가지 다른 요인들이 눈에 띄었다. 선교 지도자들은 실제 원인이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결혼이나 가족사유는 약간 적게 기록하였다(17%에서 15%로). 또한 팀 내의 문제는 실제 원인으로 보여지는 비율보다 매우 적게 기록하였다(8%에서 4%로).

"실제" 이유들은 1992년에서 94년간에 측정되었고 "추정되는" 이유들은 더 긴 기간에 걸친 지도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것인 듯하다. 1992-94년이 선교사 탈락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 기간이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몇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찰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차이는 대부분 실제이며 아마도 이는 선교기관 지도자들의 목회적 관심의 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는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나쁜 현상이기도 하다. 그들을 돌보려는 관심이 표현되는 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연관된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게 해 준다는 면에서는 나쁜 것이다. 만약 그것들을 직면하게 해 주었다면 그들의 장래 사역이 좀더 튼튼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이유

지난 5년 동안에 선교사들이 선교단체를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이는 것 7개씩을 지적해 보도록 선교단체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

터 7번째까지 순위를 표시해 보도록 하였다. 이 이유들은 선교사가 선교단체를 떠나는 것에 관련된 것들로서 귀국 그 자체에 연관된 것은 아니다. 때로 이들 중에는 고국에서 같은 단체의 다른 직분을 맡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제외하였다. 때때로 단기 선교사들이 조기에 귀국하게 되는 이유가 장기 선교사들과 동일한 이유일 경우가 있지만 이 연구는 장기 선교사들에 관한 것이지 단기 선교사들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결과의 상세한 내용들을 좀더 쉽게 검사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의 중요성의 순위를 하나의 점수표로 합쳐 보았다. 모든 중요성들에 동일한 비중을 주어서 단순히 평균치를 구하기보다는 각 중요성의 순위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이 표를 만들었다.

가중치는 가장 중요한 항목에는 7점, 두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6점, 세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5점 등으로 마지막 일곱번째 항목은 1점까지 내려가며 부여하였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가 작성되었는데 표 6-5에 결과가 제시되었다. 마지막 행에 표시된 수치는 각 그룹에 나타난 이유들의 숫자에다가 중요성 순위의 해당되는 가중치를 곱한 것의 합이다.

선교사역 중단의 절반 정도는 불가피한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는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가 마찬가지였는데 기성 파송국가에서는 불가피한 이유가 약간 더 중요하게 나오고 개인적인 이유는 신생 파송국가에서 불가피한 이유의 두 배 정도가 나왔다.

결혼/가족과 단체와의 관계 등의 이유는 선교사 귀국 이유 중 약 1/4을 차지하는데 기성 파송국가에서는 결혼/가족이 더 중요하게, 그리고 신생 파송국가에서는 단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역, 팀, 문화 그리고 기타의 이유들이 나머지 1/4을 차지하는데 사역이나 팀과 관련된 이유가 기성 파송국가보다 신생 파송국가에서 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표 6-6은 선교사역을 떠나는 다양한 이유 전체를 총 숫자에 가중치를 둔 퍼센트에 따라 전체 순위대로 수록한 것이다. 두 개의 수직렬 뒤에 이런 이유들의 순위가 나타나는데 이에는 "기타" 이유는 무시되었다.

떠나는 이유들은 두가지 파송국가 형태 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최상위 5개의 이유들—정상적 은퇴, 자녀, 직업전환, 건강문제, 그리고 본국 후원 부족—이 기성 파송국가 목록에서는 4개가 나타나지만 신생 파송국가의 상위 5개 이유 중에는 1개만 나타난다. 신생 파송국가에서는 한 개(본국 후원 부족)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는데 기성 파송국가에서는 다섯번째에 해당된다. 목록에 나타난 순위들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 순위 수치만을 보고 "최상위 5개" 이유를 언급하는 것은 실제를 잘못 오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각 국가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상위 5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표 6-7과 6-8은 각 국가별로 상세한 이유를 보여주는데, 이 표들은 기성 파송국가 그룹과 신생 파송국가 그룹의 각 그룹별 전체적 순위대로 배열한 것이다. 각 국가별 순위의 차이가 쉽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극

선교단체를 떠나는 전체적인 가중치를 둔 이유

이유	전체%	기성 파송국가%	신생 파송국가%
불가피한 이유	24	29	16
개인적	25	21	32
결혼/가족	13	17	9
단체와의 갈등	12	10	15
사역에 관련된 이유	10	8	12
팀	9	8	10
문화적	5	5	5
기타	2	2	1
총합(=100%)	13,302	8,270	5,032

표 6-5

선교사역 중단의 전체 가중치를 둔 이유						
이유	전체(%)	기성 파송국(%)	신생 파송국(%)	순위		
				전체	기성 파송국	신생 파송국
정상적 은퇴	9.4	13.2	3.2	1	1	14
자녀	8.1	10.1	4.8	2	2	8
직업전환	7.4	8.9	4.9	3	3	7
건강	7.2	8.4	5.1	4	4	6
본국 후원 부족	6.2	5.0	8.1	5	7	1
동료선교사와의 갈등	5.9	6.0	5.7	6	5	5
개인적 사유	4.9	5.2	4.5	7	6	9=
파송단체와의 불화	4.7	3.9	6.1	8	8	4
헌신의 부족	4.4	2.7	7.3	9	14	3
소명감의 부족	4.1	1.8	8.0	10	19	2
선교사 아닌 사람과의 결혼	3.6	3.4	4.0	11	11	12=
영적 미성숙	3.3	2.5	4.5	12=	15	9=
결혼/가족간의 갈등	3.3	3.6	2.8	12=	10	16=
문화적응 실패	3.1	3.2	3.0	14	12	15
현지인 지도자와의 갈등	2.9	2.2	4.0	15=	16=	12=
연로한 부모	2.9	3.8	1.3	15=	9	24
훈련 부족	2.7	1.6	4.5	17	20	9=
사역 불만족	2.6	2.9	2.2	18	13	20=
정치적 위기	2.4	2.2	2.8	19	16=	16=
상부의 관리 부족	2.1	2.0	2.3	20	18	19
사역 중 사망	1.6	1.3	2.2	21=	21	20=
본부로부터 해직	1.6	1.0	2.5	21=	23=	18
부도덕한 삶	1.4	0.9	2.2	23	25	20=
언어문제	1.3	1.2	1.5	24	22	23
신학적 이유	1.0	1.0	1.1	25	23=	25
기타	1.9	2.0	1.4			
계(=100%)	13,302	8,270	5,032			

표 6-6

기성 파송국가에서의 국가별 선교사역 중단의 가중치를 둔 이유							
이유	기성파송국(%)	덴마크(%)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정상적 은퇴	13.2	11.1	5.1	13.7	14.1	18.6	11.5
자녀	10.1	17.5	8.6	8.8	13.7	11.0	11.4
직업전환	8.9	10.6	9.7	8.0	11.3	5.4	11.8
건강	8.4	15.3	9.8	7.4	10.0	8.1	10.1
동료선교사와의 갈등	6.0	0.8	5.7	7.3	3.9	4.2	4.1
개인적 사유	5.2	5.1	16.0	4.5	4.5	2.4	5.8
본국 후원 부족	5.0	0.0	0.0	6.1	3.7	8.7	2.8
파송단체와의 불화	3.9	1.7	2.2	4.9	2.3	1.0	3.1
연로한 부모	3.8	0.0	6.6	3.3	4.7	5.9	4.2
결혼/가족간의 갈등	3.6	0.0	2.1	4.5	2.1	0.0	3.7
선교사 아닌 사람과의 결혼	3.4	17.4	7.6	1.9	5.0	4.7	3.5
문화적응 실패	3.2	2.5	3.3	3.6	2.0	1.9	3.0
사역 불만족	2.9	1.3	5.0	2.7	4.4	3.4	1.9
헌신의 부족	2.7	0.0	2.2	2.7	1.8	4.2	3.8
영적 미성숙	2.5	0.0	1.3	2.7	2.4	3.5	2.2
정치적 위기	2.2	9.2	3.3	2.1	3.2	1.6	0.0
현지인 지도자와의 갈등	2.2	4.6	0.4	1.8	3.3	2.6	3.2
상부의 관리 부족	2.0	0.0	0.1	2.8	0.7	1.0	1.2
소명감의 부족	1.8	0.0	1.6	2.1	0.6	3.3	1.4
훈련 부족	1.6	0.0	0.1	1.7	0.5	1.5	3.0
사역 중 사망	1.3	0.0	1.4	1.1	1.8	1.3	2.0
언어문제	1.2	1.2	1.2	1.5	0.6	0.6	0.7
신학적 이유	1.0	0.0	1.7	1.2	0.0	1.9	0.4
본부로부터의 해직	1.0	1.3	1.2	1.3	0.1	0.2	0.7
부도덕한 삶	0.9	0.0	0.6	1.2	0.4	0.4	0.7
기타	2.0	0.4	3.2	1.1	2.9	2.6	3.8
총계(=100%)	8,270	241	464	5,092	941	473	1,059

표 6-7

신생 파송국가에서의 국가별 선교사역 중단의 가중치를 둔 이유 단위(%)									
이유	평균	가나	나이지리아	브라질	싱가폴	인도	코스타리카	필리핀	한국
본국 후원 부족	8.1	8.0	7.6	7.9	2.6	6.3	12.7	13.9	8.4
소명감의 부족	8.0	12.7	15.3	5.0	0.0	3.7	0.0	7.5	6.1
헌신의 부족	7.3	9.5	9.7	7.8	3.3	10.9	5.6	6.3	3.4
파송단체와의 불화	6.1	6.2	7.4	6.2	17.3	9.5	4.5	4.1	4.3
동료선교사와의 갈등	5.7	2.3	0.0	7.4	7.9	6.8	12.8	5.7	8.8
건강	5.1	2.5	6.0	2.8	3.3	4.1	8.0	6.0	7.4
직업전환	4.9	4.1	1.9	2.6	22.3	1.6	3.9	5.8	6.3
자녀	4.8	3.7	3.0	2.9	7.5	5.3	2.7	3.4	7.4
개인적 사유	4.5	4.0	4.2	7.5	4.4	4.1	0.0	3.9	3.2
영적 미성숙	4.5	5.1	7.9	4.4	0.0	8.9	0.0	4.5	5.8
훈련부족	4.5	6.8	3.2	8.4	2.4	0.4	5.5	0.6	3.5
선교사 아닌 사람과의 결혼	4.0	0.3	3.2	6.5	3.9	1.4	0.0	6.8	6.3
현지인 지도자와의 갈등	4.0	6.9	3.6	0.9	2.4	0.4	7.5	5.5	2.8
정상적 은퇴	3.2	4.1	3.4	1.7	0.0	3.7	0.0	5.5	3.2
문화적응실패	3.0	2.8	2.2	3.0	0.0	3.7	3.9	1.2	3.2
결혼/가족간의 갈등	2.8	0.9	2.0	1.9	3.3	2.5	8.1	4.4	3.9
정치적 위기	2.8	3.6	4.1	0.3	0.0	0.0	10.3	0.8	4.1
본부로부터의 해직	2.5	2.1	6.5	5.4	0.0	4.8	3.9	0.3	1.2
상부의 관리 부족	2.3	1.7	0.6	1.7	3.2	3.8	4.6	0.5	3.4
사역 불만족	2.2	3.3	1.7	3.2	4.7	1.2	0.0	2.9	0.4
부도덕한 삶	2.2	2.5	3.2	3.8	0.0	2.4	5.1	1.8	0.5
사역 중 사망	2.2	1.6	0.9	0.3	0.0	7.5	0.0	2.3	2.7
언어문제	1.5	2.3	0.6	2.4	0.0	0.8	0.0	0.3	2.3
연로한 부모	1.3	0.4	0.3	1.7	7.5	2.7	0.9	4.0	0.8
신학적 이유	1.1	2.1	1.5	0.3	0.0	2.2	0.0	1.6	0.3
기타	1.4	0.5	0.0	4.0	4.0	1.3	0.0	0.4	0.3
계(=100%)	5,032	1,456	359	577	126	552	128	476	1,358

표 6-8

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표 6-7에서 보면 기성 파송국가 간에도 귀국하는 주요 이유가 서로 다르다. 북미주와 영국의 선교단체들에게는 정상적 은퇴가 가장 큰 주요 이유이다. 유럽대륙의 국가들 중 독일의 경우는 개인적 이유, 덴마크의 경우는 자녀문제와 선교사 아닌 사람과의 결혼이 주요 이유였다. 호주에서는 직업 전환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상위권 4개의 이유들은 조사된 모든 나라에서 상위권에 속한 것들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이유인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은 미국 내의 단체들에서 높은 순위였기 때문에 표에서 상위권에 놓였다. 그러나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선 순위에서 많이 낮다. 독일에서는 선교사 아닌 사람과의 결혼이, 덴마크에서는 정치적 위기의 문제가, 캐나다의 기관들에서는 본국 후원 부족과 연로한 부모들로 인한 어려움들 때문에 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본국 후원 부족은 캐나다인에게는 세번째 이유이고 미국인에게는 여섯번째이지만 유럽 대륙의 단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로한 부모들은 호주, 독일, 영국의 단체들에게는 여섯번째로 주요한 요인이었다.

표 6-8의 신생 파송국가들에서는 본국 후원 부족이 필리핀 한 나라에서만 최상위 이유로 나타났다. 물론 브라질, 코스타리카, 한국 등에서도 두번째 이유였다. 가나에서는 세번째, 나이지리아서는 네번째, 인도에서는 여섯번째, 그리고 싱가폴에서는 13번째였다.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은 코스타리카와 한국인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싱가폴 선교사들에게는 세번째였다. 소명감의 부족은 가나와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귀국의 가장 큰 이유였고, 필리핀 단체들에게는 두번째 주요한 요인이었다.

헌신의 부족은 인도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가나와 나이지리아 단체에게는 두번째 중요한 어려움이며, 브라질 선교사에게는 세번째, 필리핀 선교사에게는 네번째 어려움이었다. 파송단체와의 불화는 인도와 싱가폴 선교사에게는 두번째 중요한 귀국사유였고, 나이지리아인에게는 다섯번째, 가나인에게는 여섯번째 사유였다. 이런 문제들은 기성 파송국가들이 가진 사유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몇몇 문제들은 기성 파송국가들이 경험하는 연령, 가족,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영적, 구조적인 요소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관계형성과 같은 다른 문제들은 모든 나라들에 있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며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은 두 개의 표에서 모두 다섯번째 사유였다.

연구계획과 자료 분석

다음의 내용은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의 계획과 자료분석에 관한 언급들이다.

첫번째로, 국제적 조사에서 항상 언어가 문제이다. 한 나라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심지어 의사소통에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간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가 "선교사 탈락"에 관한 것일진대, 조사자는 각 나라가 이 용어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각 나라에서 보고 양식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같은 식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해야만 했다. 연구 초기부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록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런 염려가 최소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두번째로, 설문지는 의도적으로 정량평가 자료와 정성평가 자료 양자를 물었다. 정량평가 자료는 기록된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계산자료로부터 만들어졌다. 정성평가 자료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두가지 형태의 자료가 모두 필요했다. 정성평가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자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큰 도움

을 주었다.

세번째로, 실제 각 나라의 모든 파송단체가 설문지에 응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조사도 100% 회신을 받을 수는 없다. 14개 대상 국가 중 그 나라 내의 선교사 파송단체의 총 숫자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섯나라 뿐이었고 이들 국가에서도 1/4에서 절반 정도의 단체가 응답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파송 단체의 숫자가 실제로는 더 적기도 했고 어떤 나라의 경우는 전체 파송단체의 숫자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알 수 있었다면 응답율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각 나라에서 응답하지 않은 단체의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들이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런 샘플조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문제이다. 정상적인 연구과정은 응답하지 않은 단체들도 응답한 단체와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가정하게 된다.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도 이런 과정을 따라갔다.

네번째로, 어떤 탈락 이유는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이유들은 단기 선교사들에게 더 해당될법한 것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본 연구는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그런 차이가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니라 탈락의 주요 요인들을 먼저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첫번 연구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경비가 많이 드는 조사를 하기보다는 추후의 연구들이 기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는 이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탈락의 원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다.

다섯번째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많은 나라에서도 경과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석들만이 행해졌다. 평방편차 분석이나 상호관련 분석, 집단분석과 같은 좀더 복잡한 분석들이 행해질 수도 있었지만 종속 변수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다.

여섯번째, 우리는 선교사 탈락이 문제임을 가정했었다. 실제 이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파송단체들이 통과해야 하는 전이단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떠나는 주요 이유들은 선교단체의 지도자에 의해 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오래된 선교단체는 역사가 짧은 선교단체와는 다른 이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탈락 형태 중 얼마만큼이 단순히 전이단계인지는 연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탈락"과 "포기"가 같은 의미일 필요는 없음을 지적해야 한다. 하나를 측정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측정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귀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선교사들이 조기에 귀국하는 이유에 대한 최종적 생각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선교사 탈락의 방지 가능한 최우선 4개의 이유들은 이미 지적된 대로 개인적, 결혼/가족, 선교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사역에 관계된 이유들이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동일한 이 이유들이 지적되곤 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수많은 제안이 있다. 필 파샬(Phil Parshall, 1975)은 선교지에 있을 때든 안식년 중이든 선교사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의 이전 총재였던 데이빗 커밍스(David Cummings, 1987)는 선교 본부가 젊고 예민한 초기 선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본을 보여 주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뿌리깊은 개인주의적 본국 문화로부터 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렌 헤르(Glenn Herr, 1987)는 지역교회가 자신들의 선교사들을 위해 책임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한다. 헤롤드 파이프(Harold Fife, 1970)는

목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로버트 이글(Robert Eagle, 1984)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마조리 훠일(Marjory Foyle, 1987) 박사는 그녀의 고전 「영광스러운 상처」(죠이선교회 간)에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특별히 타문화권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책은 모든 선교사의 필독서가 되어 왔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논의들이 있는 것 같다.

1. **관리 문제.** 이 문제들은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다루어져야만 한다. 만약 선교사의 부모가 병이 든다면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생 파송국가에서는 후원이 끊어진다든지,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지시한 사역 방향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관련된 질문을 해 봐야 한다.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중에 일부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전략적 계획, 그리고 더 많은 "만약…" 형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한다. 선교단체 규모가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영적/목회적 문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선교사를 상담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사람은 선교지에서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친구 혹은 모교회의 지도자일 수 있는데 개개의 선교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소명의 불확실성이나 헌신의 막연함 등과 같은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상담자는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사들의 후원과 이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목회적 상담자는 선교사의 실패를 용납해 주며 재헌신을 촉구할 권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방지 가능한 선교사 손실의 주된 이유들은 모두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3. **지도력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물을 균형있게 보고 특정 상황에서 핵심적 요소들을 분별해 내며 가용자원(시간 혹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며 전체적인 흐름에서 특정한 부분에 사람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통찰력, 비전, 균형감각 등과 연관되어 있다. 조직은 지금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선교단체는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을 독려해 줄 수 있을 뿐더러 일의 전체적 윤곽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마음 속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선교사 탈락에 대한 장래의 연구 방향

결론을 지으며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의 장기적 과정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장래의 연구 방향을 제안해 볼 수 있다.

1. **재조사.** 이상적이라면 동일한 선교단체와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이 조사를 반복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동일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치 있는 시도일 것이다. 이는 1995-1996년 연구에 참여한 선교단체들의 탈락율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의 목표 중 하나가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다른 국가들에 확대.** 또 하나의 잠재적 가치를 가진 선택은 이번 첫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이번의 기초적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교훈들에 근거한 현재의 분석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3. **정성분석.** 연구의 추진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폭넓은 숫자와 통계 자료에 의한 정량분석보다는 좀더 개인적 사례연구에 집중하는 "정성분석"의 분야를 탐구하게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의 세가지 유형 간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 세가지 유형은 소위 "실제적" 이유와 선교 본부의 개인 서류철에 있는 "기록된" 이유, 그리고 선교사들이 사임하는 이유에 대하여 선교지도자가

"추정하는" 이유 등이다. 금번의 연구에서는 "기록된" 이유와 "추정하는" 이유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최소한 다른 한 연구에서도 "실제적" 이유와 "기록된" 이유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런 차이들은 우리에게 세가지 유형의 이유들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그 불일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별하는 것은 선교사와 선교단체 지도자 양자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4. **주된 이유가 되는 원인.** 또 하나의 선택 사항은 어떤 탈락원인이 특별히 개인적이거나 결혼/가족의 영역에서 그렇게 커다란 이유가 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연구일 것이다. 이런 이유의 배후에 있는 요소들은 주로 환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선교정책에서 유래된 것인가?

5. **기대감.** 특별히 영국의 경우 탈락의 한 이유는 사역의 불만족이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단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나) 선교지에서 2년 경과 후, (다) 첫번 사역 기간의 끝에, (라) 두번째 사역 기간의 중간, (마) 두번째 사역 기간의 끝 등이다. 기대감들이 얼마나 충족되었을까? 비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실제 사역 현실이 기대치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을까?

6. **평가.** 잠재적 선교사들이 평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조사가 수행되어야만 하는가? 어느 정도 그들의 영성이 관찰될 수 있는가? 이런 개인적 영역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가? 이 면에 있어서는 신생 파송국가의 선교단체들이 선교지를 조기에 떠나는 커다란 이유로 소명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7. **편차.** 마지막으로 선교사 탈락이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 목양과 감독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가? 특정한 국가에서의 탈락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가?

맺는 말

오늘날 핵심 단어는 동역이다. 윌리암 테일러(1995)가 최근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동역의식에는 위험과 약속 모두가 존재한다. 그는 동역 관계를 위한 로잔회의 임원이며 인터뎁(Interdev)의 회장인 필 버틀러(Phil Butler)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버틀러는 조직과 선교단체가 함께 일하기 위한 16개의 핵심적인 동역원리를 제시했다. 이 원리들은 내적, 외적으로 사실이다. 선교란 본국과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지에서 행하는 동역이다. 버틀러는 말하기를 "효과적인 동역은 신뢰와 열린 마음, 상호관심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단지 좋은 장기 전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핵심 자체이다.

부록 : 연구에 관련된 표와 기타 자료

장기 선교사의 탈락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요인

요 인	선교단체들이 순위를 정한 특정 요인의 분포 (단위 %)					
	1위		2위		3위	
	기성국가	신생국가	기성국가	신생국가	기성국가	신생국가
선교사역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소명	36	61	31	18	4	5
가족과 배우자의 지원	42	21	5	2	3	1
모국에 있는 친구, 교회, 기도 동역자와의 정규적 접촉	7	7	4	5	2	2
다른 선교사 동역자들과의 좋은 관계	6	2	15	16	11	4
정기적인 감독, 목양, 그리고 기타 지원	3	5	13	14	5	9
타문화 적응력과 언어 습득력	2	1	15	17	21	9
감독자 및 선교단체와의 좋은 관계	2	0	4	6	5	5
모국으로부터의 정규적 재정 공급	0	2	8	11	8	18
외부도움 없이도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0	1	3	1	29	36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0	0	1	6	10	2
적절하고 정규적인 훈련제공	0	0	1	4	1	9
기타 요인	2	0	0	0	1	0
계(=100%)	212	199	207	199	205	194

기타 요인에는 분명한 정체감, 건전한 자아상, 기도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표는 소명감, 가족, 대인관계, 감독, 적응력 등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건강한 영성의 중요성도 보여준다. 도표 전체의 대략적 총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중요 요인을 보여준다.

분명한 소명	155%
가족의 지원	74%
건강한 영성	70%
문화 적응	65%
좋은 관계	54%
목양	49%
재정 공급	47%

기타 요인들은 25%를 넘는 것이 없으므로 위에 언급된 것들이 선교사 탈락을 방지하는 주요 7개 요인임이 분명하다. 소명, 영성, 문화적응, 동료와의 좋은 관계, 혹은 목양에 있어서는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성 파송국가에서는 가족의 지원(50%:24%)이 더 강조되고 신생 파송국가에서는 적절한 재정공급(31%:16%)이 더 강조되었다. 이런 강조점들은 앞에서 발견한 것과 일치된다.

표 6-9

각 선교단체 소속 인원규모의 비율

나 라	장기 선교사 수								합
	0*	1-10	11-25	26-50	51-100	101-200	201-500	>500	(=100%)
덴마크	0	30	60	10	0	0	0	0	10
독일	5	24	28	5	24	14	0	0	21
미국	1	22	21	22	11	11	8	4	207
영국	8	21	13	20	13	20	5	0	39
캐나다	0	36	18	27	14	5	0	0	22
호주	5	36	21	12	17	9	0	0	42
기성 파송국 평균	2	25	22	20	13	11	5	2	341
가나	0	52	21	19	6	0	2	0	52
나이지리아	0	29	43	21	0	7	0	0	14
브라질	0	9	32	23	23	4	9	0	22
싱가폴	0	29	43	28	0	0	0	0	7
인도	5	15	15	20	15	15	10	5	20
코스타리카	0	57	29	14	0	0	0	0	7
필리핀	0	33	17	22	17	11	0	0	18
한국	0	44	24	16	8	2	3	3	63
신생 파송국 평균	0	37	25	19	9	4	4	2	203
세계 평균	2	29	23	19	11	9	5	2	544

* 이 열의 숫자는 장기 선교사가 없이 단기 선교사만을 파송한 선교단체를 의미한다.

표 6-10

파송 선교사의 총 사역 연수에 따른 선교단체의 비율

나라	파송 선교사의 사역 연수							합
	<1	1-2	3-10	11-25	26-50	51-100	>100	(=100%)
덴마크	0	0	0	0	10	70	20	10
독일	0	0	9	29	38	24	0	21
미국	0	0	7	27	30	28	8	205
영국	0	0	10	15	23	26	26	39
캐나다	0	0	9	14	38	10	29	21
호주	0	0	12	9	28	28	23	43
기성 파송국 평균	0	0	8	22	29	28	13	339
가나	4	10	50	17	13	6	0	52
나이지리아	0	7	50	43	0	0	0	14
브라질	0	0	27	36	14	18	5	22
싱가폴	0	0	29	57	14	0	0	7
인도	0	0	45	35	20	0	0	20
코스타리카	0	0	71	29	0	0	0	7
필리핀	0	6	22	39	33	0	0	18
한국	0	2	70	23	2	3	0	64
신생 파송국 평균	1	4	51	28	11	4	1	204
세계 평균	0	2	24	24	22	19	9	543

표 6-11

특정한 형태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단체의 비율

나라	훈련의 형태									평균	합 (=10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덴마크	67	67	33	67	22	33	11	11	0	35	9
독일	62	86	33	52	19	19	10	24	0	34	21
미국	62	58	28	48	33	14	7	27	8	32	200
영국	67	54	28	28	26	23	5	21	10	29	39
캐나다	82	77	32	32	18	9	5	28	0	30	22
호주	82	61	32	34	23	39	7	23	2	34	44
기성 파송국 평균	67	61	29	43	28	19	7	24	7	32	335
가나	46	87	77	44	48	52	21	10	4	43	52
나이지리아	64	29	71	29	50	36	7	0	0	32	14
브라질	50	46	59	27	32	41	5	14	14	32	22
싱가폴	86	57	43	71	43	29	0	43	0	41	7
인도	43	33	67	43	33	10	14	14	0	29	21
코스타리카	43	71	43	57	43	43	0	0	14	35	7
필리핀	53	53	41	59	59	18	12	24	0	35	17
한국	60	64	52	40	30	33	10	25	0	35	63
신생 파송국 평균	54	61	60	42	40	36	12	17	3	36	203
세계 평균	62	61	41	43	33	25	9	21	5	33	538

가. 타문화권 오리엔테이션
나. 신학교육과정 혹은 다른 전문적 훈련의 수료
다. 선교학적 지식에 대한 선교기관 자체 과정의 수료
라. 비형식적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수료
마. 타문화권 생활에 대한 단기 체험
바. 학위 과정이 아니지만 공식적인 선교학 과정
사. 선교학 학위 과정
아. 기타 기술 훈련
자. 훈련이 필요 없음

표 6-12

선교단체가 특정 영역에서 장기 선교사 지원자들을 평가한 비율

나라	평가 형태														평균	합 (=10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덴마크	60	80	80	100	90	70	50	30	30	50	20	40	20	0	51	10
독일	86	95	91	91	76	57	67	24	29	5	29	14	19	10	50	21
미국	94	93	94	85	77	76	73	63	65	58	44	21	9	13	62	202
영국	97	100	90	100	80	82	82	62	62	77	31	5	26	21	65	39
캐나다	100	96	96	91	91	77	86	64	73	82	27	18	9	14	66	22
호주	89	98	93	98	86	77	75	52	64	68	30	18	16	23	63	44
기성국가 평균	92	94	93	89	80	76	74	58	62	59	37	19	13	15	62	338
가나	94	96	92	58	79	60	62	79	33	31	35	33	8	8	55	52
나이지리아	93	79	86	50	64	64	50	50	14	29	36	7	7	0	45	14
브라질	82	91	73	59	46	68	55	36	64	32	23	32	18	14	50	22
싱가폴	86	100	86	100	71	100	86	86	57	71	43	14	29	29	68	7
인도	91	76	86	62	38	48	33	24	19	24	57	5	29	14	43	21
코스타리카	86	100	86	86	86	71	57	57	57	29	57	14	14	14	58	7
필리핀	94	89	194	83	83	67	78	83	56	56	78	6	33	22	66	18
한국	98	59	62	87	59	56	54	56	75	37	43	38	41	19	56	63
신생국가 평균	93	80	79	72	64	61	57	59	50	36	43	26	24	14	54	204
세계 평균	93	89	88	83	74	70	68	59	57	50	40	22	17	14	59	542

가. 선교사명에 대한 분명한 소명
나. 지원자의 교회로부터와 같은 개인 추천서
다. 선교단체 신조에 대한 수용
라. 건강검진
마. 교회 사역 경력
바. 지원자의 결혼이나 독신 생활에 대한 평가
사.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평가
아. 지도력과 목회기술 평가
자. 재정후원에 대한 약속
차. 심리 및 인성검사
카. 선교사 유형의 사역에 대한 사전 경험
타. 목사 안수
파. 연령이나 자녀수의 제한 혹은 기타 가족 제한
하. 기타 조건들

표 6-13

참고 도서

Back, P., & Johnson, A. (1988). *Toughing it out? A study of missionary orientation and attrition for OMF International.* London, UK: MARC Europe.

Brierley, P. W. (1986). *EMA personnel survey* 1986. London, UK: MARC Europe.

Brierley, P. W. (1997). *World churches handbook.* Based on P. Johnstone's *Operation World* database. London, UK: Christian Research and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Bushong, B. H. (1986). Why do they leave? Reflections on attrition: World Gospel Mission.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2, 129.

Cummings, D. (1987). Programmed for failure: Mission candidates at risk.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3, 240-246.

Eagle, R. L. (1984). Positive possibilities of mid-life transition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0(1), 38-45.

Fife, H. W. (1970). The pastoral care of missionarie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7(1), 19-23.

Foyle, M. (1987). *Honourably wounded.* London, UK, and Wheaton, IL: MARC Europe, Evangelical Missionary Alliance, Interserve, and Evangelical Missions Information Service.

Herr, G. (1987). Doing your job: Does your church car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3, 42-45.

Johnstone, P. (1986). *Operation World.* London and Bucks, UK: STL and WEC International.

Johnstone, P. (1993). *Operation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Parshall, P. (1975). A "dropout syndrome" you can overcom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11(4), 223-227.

Pate, L. D. (1989). *From every people: A handbook of Two-Thirds World missions with directory/histories/ analysis.* Monrovia, CA: MARC.

Taylor, W. D. (1995). Lessons of partnership.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31, 406-415.

피터 W. 브릴리(Peter W. Brierley)는 크리스챤 리서치의 실무 대표인 통계학자로서 교회나 기독교 기관의 연구조사를 담당하고 자료집을 출판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독교 지도력 강화를 위해 사역하다 1993년에 문을 닫은 MARC Europe의 책임을 맡았었다. 그는 또한 교사(3년), 공무원(국방부 3년, 내각 8년), 그리고 영국 및 외국 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의 프로그램 책임자(5년)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24-30살 사이의 네 자녀가 있으며 부인 체리(Cherry)와 함께 남부 런던에서 살고 있다.

7

연구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데트레프 블뢰헤르 / 조나단 루이스

세계선교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무죄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낙오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95년 2월 WEF 선교위원회는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기성 파송국가와 브라질, 나이지리아, 인도와 같은 신생 파송국가가 포함되었다. 이 자료는 14개국 453개 선교기관의 연구로부터 모아져 Christian Research의 피터 브릴리에 의해 처리되고 분석되었다.

1996년 4월, 영국의 열방 기독교대학(ANCC)에서 WEF 선교위원회의 선교사 탈락에 대한 논의에서 브릴리의 보고(6장 참조)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좀더 깊이 있는 질문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이장의 124-126 페이지에 있는 부록 1에 설명되어 있듯이, 다른 방법으로 이 자료들을 보게 되었다.[1)]

방지가능한 탈락율의 결정과정

선교사 탈락은 은퇴 또는 죽음과 같이 기대된 것이거나 불가피한 요소들과 방지가능한 요소들, 이 두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만약 원인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후자의 요소들은 미리 막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요소와는 달리,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방지가능한 선교사 탈락을 찾아내는 것을 첫번 목표로 정했다.

탈락을 문제로 다루게 될 때는 불가피한 요소는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선교사들이 40년 또는 그 이후에는 탈락하게 되므로 그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는 것이다. 통계 분석에 의하면 새로운 선교기관들은 은퇴로 인한 손실이 별로 없다. 전체 손실 중에 이런 불가피한 탈락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적 그림을 왜곡된 부분으로 이끄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방지가능한 중도 탈락율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불가피한 탈락율과 모든 이유로 인한 일반적 탈락율로부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방지가능한 중도 탈락율을 구분하였다.

각 선교기관의 손실 정도를 계산하기 시작하자 심지어 10명 중 2명이 탈락하는 곳에서부터 1,000명 중 2명 탈락까지의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유용한 수치는 탈락 비율인데 이는 매년 현지에서 전체 선교

1) 이 장에 나타난 통계는 다른 장에서 주어진 것과 다르다. 이 차이는 세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 (1) 피터 브릴리의 계산(6장)은 자료의 처음 검토된 내용에 기초했다. (2) 이 장에서의 분석은 부과적 자료가 사용되었고 다른 질문과 다른 시각으로 자료를 살펴보았다. (3) 어떤 국가별 연구 통계에는 새로운 검사와 숫자를 읽는 다른 방법이 요청되었다.

사들의 숫자에 비해 손실된 선교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현지 선교사들의 숫자는 선교단체의 상대적인 규모(설문지[2] 4항)에 따라 분류되어 추정한 것이다. 이는 연구 분석 요인의 한가지 한계였다.

각 선교기관이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 더 신뢰할만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각 선교기관의 정확한 탈락 숫자는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설문지는 정확한 숫자를 수집하지 못하였다(그렇게 될 경우 너무 위협적이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율은 규모에 따라 분류되어 묶여진 선교기관들에 따라 결정되어졌고, 이 수치는 브릴리의 보고서와 이곳에서 사용되었다. 비록 어떤 가정에 따라 그룹으로 묶여졌다 할지라도 가장 믿을 만한 통계 정보가 얻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선교단체의 규모, 역사, 시작과정, 그리고 선교지와 사역의 종류 등에 따라 인류통계학적 수치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기대했다. 또한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과정상의 요인인 선교사 선발, 훈련, 선교지에서의 후원과 감독, 목양에 투자된 시간과 물질의 비율 등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있었다. 통계상의 이런 상호관계는 방지가능한 중도탈락을 줄이는데 이런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게 해 주었다. 이런 분야의 자료들이 최초의 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고 분석에도 이용되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기꺼이 활용하였다. 이곳에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좋은 협력을 이루어서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존하는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축복이 되며,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미전도 종족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도한다.

선교사 파송교회 대(對) 선교단체

이 연구는 선교단체 뿐 아니라 선교사 파송교회에도 자료를 요청하였다. 교회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 숫자의 규모는 뜻밖에도 다양하였다. 13개의 교회는 1-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16개의 교회는 11-25명의 선교사를, 18개의 교회는 26-50명의 선교사를, 5개의 교회는 51-100명의 선교사를, 그리고 2개의 교회는 101-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상당수의 이런 교회들은 개교회라기 보다는 교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였다. 이런 교회들이 선교단체보다도 현지에서 그들의 선교사들을 더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 54개 교회와 357개의 선교단체를 비교하여 보았다.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전체 탈락율이 더 낮았다. 매년 4.91±0.60%이었는데 이에 비해 선교단체는 5.79±0.10%이었다. 불가피한 탈락율 역시 낮았다. 1.16±0.35에 비해 선교단체는 1.70±0.10%였다. 그리고 방지가능한 탈락율은 선교단체가 4.10±0.10%임에 비해 교회는 3.75±0.60%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파송규모는 선교단체보다 작았다. 개교회당 평균 파송인원은 29.3명이었는데 선교단체 평균은 60.4명이었다. 또한 교회는 파송 역사가 짧았다. 파송교회의 61%는 25년 이하의 파송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회는 선교사 관리에 덜 헌신되어 있었다. 선교사 관리에 그들 시간의 10% 이하를 투자하는 곳은 교회 중 57%이지만 선교단체는 42%이었다. 재정의 10% 이하를 선교사 관리에 투자하는 곳은 교회 중 59%이지만 선교단체는 44%이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 짧은 선교 조직들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있음(p. 126-127, 이 장의 부록 2를 참조)을 통계자료에 감

2) 설문지는 345-351페이지에 있음.

안할 때, 교회의 탈락율은 선교기관의 탈락율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탈락율 수치가 비슷하고, 교회 파송 선교사는 이 연구에 포함된 전체 선교사들 중에 겨우 6.3%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교회를 다른 선교단체에서 분리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

단체의 규모와 탈락율

분석할 대상에 교회를 포함시킬 것인가 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 선교단체의 규모가 선교사 탈락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선교사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표 7-1).

기성 파송국가 뿐만 아니라 신생 파송국가에서도 선교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불가피한 탈락율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다. 겨우 여섯개의 선교단체만이 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룹에 속하였고, 따라서 이 그룹에 대한 통계학적 정확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체 규모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게 되었다.

26-50명, 51-100명 그리고 101-2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단체들의 탈락율이 비슷하다는 것과 201-500명과 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단체들의 탈락율도 서로 비슷한 상황을 보여 준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표 7-2와 7-3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이들을 통계적 요인으로 각기 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또한 소규모 선교단체들은 겨우 600명(전체 표본의 2.5%)의 현지 선교사들만을 파송했고, 200명 이상에 해당하는 선교단체들의 수도 적어서(전체 표본의 5.1%), 우리는 26-2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단체 그룹을 통계적 분석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룹으로 고려하였다(본 조사에서 선교단체의 41%와 선교사들의 48%가 포함됨).

단체의 크기와 탈락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자 그 이유에 대하여 추론을 하기 시작하였다. 큰 규모의 선교단체가 갖는 좀더 발전된 기관

선교단체 크기와 탈락 사이의 상관관계

선교단체 크기	전체 단체의 수	불가피한 탈락율 %	방지가능한 탈락율 %	전체 손실%	기성 파송국가 단체 수	기성 파송국가 방지가능한 탈락율 %	신생 파송국가 단체 수	신생 파송국가 방지가능한 탈락율 %
1-10	121	4.29±0.50	15.70±1.20	20.00±1.60	58	13.22±1.35	63	18.10±1.56
11-25	100	2.60±0.24	7.70±0.44	10.30±0.60	52	7.97±0.66	48	7.38±0.66
26-50	82	1.78±0.16	4.91±0.29	6.69±0.36	47	5.05±0.40	35	4.73±0.44
51-100	49	2.04±0.16	3.91±0.25	5.95±0.34	31	4.46±0.35	18	2.92±0.34
101-200	38	1.93±0.13	4.38±0.25	6.31±0.34	31	4.19±0.28	7	5.02±0.60
201-500	15	1.67±0.24	5.00±0.62	6.67±0.81	8	4.04±0.83	7	5.60±0.87
>500	6	1.78±0.35	3.43±0.65	5.21±0.98	3	3.28±0.76	3	4.22±1.00

불가피한 탈락율 % = 불가피한 이유로 년간 손실된 숫자를 선교지 전체 선교사의 수로 나눈 %값
방지가능한 탈락율 % = 방지가능한 이유로 년간 손실된 숫자를 선교지 전체 선교사의 수로 나눈 %값
전체 손실 % = 년간 선교사 손실을 선교지 전체 선교사의 수로 나눈 %값
기성 파송국가 = 기성 선교사 파송국가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신생 파송국가 = 신생 선교사 파송국가 (브라질, 코스타리카, 가나, 인도, 한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싱가폴)

표 7-1

방지가능한 탈락율의 유사성에 따라 결정된 크기에 따른 집단					
선교단체 크기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불가피한 탈락율 %	방지가능한 탈락율 %	전체 손실 %
크기 1: 1-10	121	605	4.29±0.50	15.70±1.20	20.00±1.60
크기 2: 11-25	100	1,600	2.60±0.24	7.70±0.44	10.30±0.60
크기 3: 26-200	169	11,620	1.99±0.08	4.36±0.13	6.35±0.20
크기 4: >200	21	6,061	1.72±0.14	4.01±0.30	5.73±0.43

선교사 수 = 이 크기의 선교단체들에 의해 대표되는 선교사의 추측된 총수
불가피한 탈락율 % = 불가피한 이유로 년간 손실된 숫자를 선교지 전체 선교사의 수로 나눈 %값
방지가능한 탈락율 % = 방지가능한 이유로 년간 손실된 숫자를 선교지 전체 선교사의 수로 나눈 %값
전체 손실 % = 년간 선교사 손실율 선교지 전체 선교사의 수로 나눈 %값

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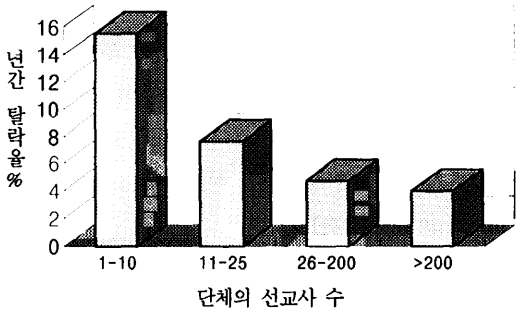


표 7-3 선교단체의 크기에 따른 방지가능한 탈락율

구조가 그들의 선교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그들은 소속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더 잘 해 주는가? 선교지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인원수"가 존재하는가? 이 선교사들이 더 잘 선별되고 더 잘 훈련되었는가? 우리의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 중 몇가지에만 답을 찾는 시도를 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우리를 좀 더 생산적인 과정으로 인도하였다.

역사의 길고 짧음과 탈락율

선교단체의 년수와 방지가능한 탈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처음 시험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100년 이상된 단체가 51-100년된 단체보다 1.45% 더 많은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규모가 년수의 함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요소간에 교차 -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7-4, 7-5에서 볼 수 있듯이 기성 선교단체가 더 규모가 크고, 또한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반면, 신생 선교단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따라서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표는 또한 100년 이상된 선교단체의 탈락율이

선교단체의 크기와 년수에 따른 방지가능한 탈락율						
선교단체 크기	탈락율의 합계 %	선교단체 년수에 따른 탈락율 %				
		0-10년	11-25년	26-50년	51-100년	>100년
1-10	15.70±1.20	16.10±1.80	16.90±2.90	9.80±2.20	15.90±3.80	21.30±7.60
11-25	7.68±0.50	9.04±1.00	7.06±0.80	7.10±1.10	6.08±1.10	9.10±1.80
26-200	4.52±0.13	4.82±0.47	5.52±0.38	3.57±0.23	4.16±0.29	4.79±0.45
>200	2.70±0.20	-	-	2.95±0.40	2.64±0.30	2.18±0.60
총계	4.85±0.11	7.70±0.42	5.36±0.32	3.33±0.20	3.25±0.20	4.70±0.39

표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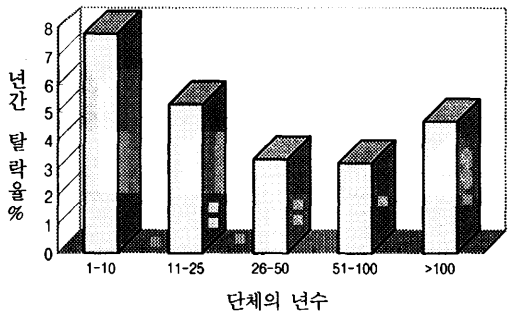


표 7-5 선교단체의 년수에 따른 방지가능한 탈락율

상승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들(100년 이상)은 51-100년된 그룹들(132명의 선교사)보다 더 작은 평균적 규모(66명의 선교사)를 보여 준다. 따라서 높은 탈락율에서는 년수가 아닌 규모가 결정적 변수였다. 이런 사실은 아주 오래된 선교단체들의 규모가 왜 더 작은지에 대해 숙고하게 하였다. 그들은 열정과 비전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단체를 성장시키고 선교사들을 유지하는 데에 실패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가? 그들은 선교지에서 탈락된 선교사들에게 목회지를 즉시 마련해 주던 19세기의 교단 선교단체들인가?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추가 연구를 위해 남겨졌다.

기성 파송국가 대 신생 파송국가

통계 분석을 위해, 피터 브릴리의 보고서에서는 참가국들을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로 분류했다. 표 7-6에서는 선교단체의 규모에 따른 4개 그룹의 탈락율을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로 나누어 이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불가피한 탈락율은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 모두에서 선교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 신생 파송국가에서 불가피한 탈락은 기성 파송국가에 비해 1/3 정도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은퇴가 아직까지는 탈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생 파송국가의 선교사들이 아직 년수가 적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기성 파송국가에서는 사역에서 은퇴하는 선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 선교사역이 오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지가능한 탈락율은 신생 파송국가 선교기관에서 다소 높다. 몇몇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의 선교상황에서 탈락율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통계적 불균형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p.126-127 부록 2를 볼 것) 신생 파송국가 선교기관의 선교사들(4.37%/년)은 기성 파송국가 선교사들보다(3.77%/년) 방지가능한 중도탈락의 위험이 더 크다.

동일문화권 대 타문화권 선교사

해외의 타문화 국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더 탈락하기 쉬운 경향을 보이는가? 상관관계 분석은 그 반

단체의 크기와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에 따른 탈락					
	선교단체 크기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불가피한 탈락율 %	방지가능한 탈락율 %
기성 파송국가	1-10	58	290	6.77±0.80	13.20±1.60
	11-25	52	832	3.52±0.35	7.96±0.66
	26-200	109	8,155	2.52±0.20	4.46±0.25
	>200	11	6,829	1.54±0.17	2.50±0.30
신생 파송국가	1-10	63	315	2.01±0.80	18.10±1.80
	11-25	48	768	1.60±0.30	7.37±0.60
	26-200	60	3,465	0.73±0.10	4.65±0.25
	>200	10	3,682	0.60±0.09	3.04±0.30

표 7-6

선교사역의 종류에 따른 방지가능한 탈락율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 (169개의 단체와 11,620명의 선교사 소속)						
사역의 종류	첫 우선순위로 구별한 사역을 갖고 있는 단체			첫째 혹은 둘째 우선순위로 구별한 사역을 갖고 있는 단체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개척사역	50	3,745	4.03±0.23	80	5,810	4.03±0.19
교회설립	49	3,220	4.25±0.27	90	5,565	4.58±0.20
구호	9	595	7.11±0.98	25	1,890	7.36±0.56
지원	20	1,505	5.66±0.51	37	2,732	4.01±0.30
총계(26-200명 선교사)	169	11,620	4.52±0.13			

표 7-7

대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신뢰할 수 있는 그룹(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 그룹으로, 총 11,620명의 선교사와 169개의 선교단체를 포함)에서 방지가능한 탈락율은 동일문화권의 4.52±0.13%와 비교할 때 타문화권은 4.29±0.17%를 보여 주었다.

개척/교회설립 사역 대 구호/지원 사역

선교단체들에게 사역의 우선순위를 질문하였다. 표 7-7은 어떤 특정 사역에 강조점을 두어서 그들의 첫째 또는 둘째 우선순위라고 대답한 선교단체들의 방지가능한 탈락을 보여 주고 있다. 신뢰할 만한 그룹인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들 그룹을 통해 중점 사역의 종류에 따라 탈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다른 규모의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다.

구호/지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의 탈락율이 높은 반면, 개척사역과 교회설립 사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탈락율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단기비전 때문인가? 그들이 쉽게 지쳐 버리는가? 아니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가? 추후 조사가 답해 주어야 될 질문들이다.

과정상의 변화요인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과정상의 변화요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1) 그런 류의 과정(그 과정이 이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이 탈락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과정의 숫자(전체적 분량)가 탈락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두 영역을 전부 살펴보았다.

선교지에서의 후원과 감독은 어떻게?

선교단체의 후원과 감독에 대한 목록의 각 항목은 어느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분석되었다. 표 7-8은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전체적으로 11,620명의 선교사와 169개의 선교단체에 해당)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분석은 정기적인 편지나 전화통화가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현지훈련이 그 다음으로 효과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다른 후원 항목들은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개별 후원 항목들이 방지가능한 탈락율의 상승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동일한 상관관계가 모든 규모의 선교단체들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선교사들과의 좋은 커뮤니케이션 유지가 방지가능한 탈락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후원 항목임을 주목하게 한다. 나머지 항목들 자체가 탈락을 증가시킨 것 같지는 않지만, 탈락율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이런 항목들에 투자를 적게 해왔다. 이 사실은 선교지에서의 후원이 만약 파송 전 훈련과 다른 요소들 뿐 아니라 후보자들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역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원과 감독의 종류와 방지가능한 탈락율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 (169개의 단체와 11,620명의 선교사 소속)

지원	제공			제공 안함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현지 지도력	129	9,380	4.80±0.18	39	2,170	3.42±0.25
목양	82	5,285	4.62±0.21	85	6,230	4.46±0.20
업무 분장	95	6,930	5.34±0.22	72	4,585	3.31±0.16
현장 훈련	72	5,425	4.38±0.21	95	6,090	4.68±0.20
안식년	120	8,820	4.64±0.18	48	2,730	4.22±0.26
선교지 정규 방문	100	7,210	5.27±0.22	67	4,305	3.31±0.18
자녀문제 해결	90	7,070	5.02±0.22	77	4,445	3.77±0.16
팀의 구조	105	7,630	4.82±0.19	63	3,920	4.01±0.17
편지 혹은 전화	136	9,030	4.32±0.16	33	2,520	5.34±0.43
수양회	116	8,540	5.01±0.20	52	3,010	3.22±0.19
총계(26-200명 선교사)	169	11,620	4.52±0.13			

표 7-8

반면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선교단체의 비율은 선교단체의 규모에 따라 증가한다. 편지나 전화 통화 등은 선교단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75% 정도의 수준으로 일정하였다. 또한 탈락율이 선교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선교단체의 후원과 감독이 많을수록 더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변수를 개별적으로 격리하여 시험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후원과 관리의 경우 반드시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후원과 감독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방지가능한 탈락을 줄이는데 결정적 요인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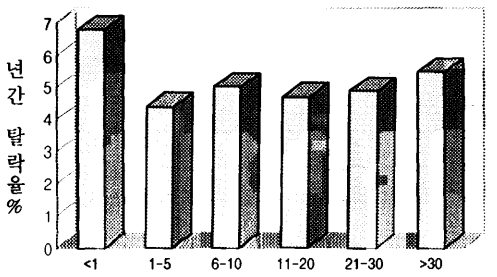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투자된 시간과 돈의 사용 비율로 측정되는 돌봄의 양과 낮은 탈락율이 명백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갖지만, 어느 한계점(6%)까지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단 이 한계점까지 다다르면 그 효과는 실제로 부정적으로 바뀐다(표 7-9, 7-10을 참조).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는 26-200명 규모의 그룹에서 발견된다. 최고의 효율은 선교사 관리에 시간과 재정의 6%를 사용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돌봄에 아주 높은 강조를 두는 것(30% 이상)은 실제로는 유해한 것으로 보여진다(다른 규모의 그룹에서는 이 효과가 명백하지 않고 통계

선교사 관리에 투자한 시간과 재정의 양과 방지가능한 탈락율

시간과 재정의 양	관리에 투자한 시간			관리에 투자한 재정		
	단체 크기에 따른 탈락율 %			단체 크기에 따른 탈락율 %		
	1-10	11-25	26-200	1-10	11-25	26-200
<1%	20.00±4.66	3.47±1.68	5.36±1.00	11.80±3.20	4.50±1.30	6.70±0.91
1-5%	10.67±1.82	5.02±0.77	7.02±0.59	17.20±2.50	5.40±1.00	5.49±0.38
6-10%	17.97±2.54	9.58±1.39	4.04±0.31	16.50±2.30	8.90±1.00	4.40±0.36
11-20%	19.70±2.78	8.09±1.17	3.68±0.29	16.00±3.00	8.00±1.40	4.35±0.34
21-30%	14.00±3.36	7.50±1.46	3.67±0.35	12.50±3.50	5.20±1.00	4.66±0.63
>30%	17.14±2.62	8.24±1.04	5.07±0.39	17.10±2.40	10.30±1.40	3.28±0.28

표 7-9



선교사 관리에 투자한 총 자원의 비율

표 7-10 선교사 관리에 투자한 총 자원(시간과 재정)의 비율에 따른 방지가능한 탈락율

적 부정확도가 ±3으로 증가된다). 이것은 좋은 일이 과도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인가? 너무 많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나 파악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돌봄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선교단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14-16%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한계점(6%)보다도 높은 값이다. 똑같은 결과가 개인적 돌봄에 사용된 재정에 대해서도 발견되었다(14-15%). 신생 파송국가 선교단체들은 기성 파송국가 선교단체들보다 돌봄에 더 많은 비율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한다. 하지만 비슷한 비율의 시간과 재정의 투자는 기성 파송국가보다도 더 높은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보여 주었다. 표 7-11에서 이것을 보여 주고 있다.

비슷한 결과가 1-10명 규모의 그룹과 200명 이상 규모의 그룹에서도 중간 정도의 통계적 중요성과 함께 발견되었다. 11-25명 규모의 그룹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신생 파송국가가 기성 파송국가보다는 나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생 파송국가는 자원의 더 많은 비율을 후원과 감독에 투자하지만 여전히 더 높은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가져온다. 이런 통계는 단지 재정상의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예산에 대해 더 작은 비율을 보여주더라도 기성 파송국가는 여전히 신생 파송국가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 연구를 통하여 선교사 한 명당 이 재정과 시간에 관한 관계를 더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떠한 훈련을 얼마나?

일정한 훈련 참가를 요구하는 선교단체의 탈락율과 그런 요구사항이 없는 선교단체의 탈락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후보자들에게 요구사항이 있는 것과 탈락율 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 그룹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규모의 선교단체 그룹에서는, 훈련 요구사항의 각각의 형태들과 방지가능한 탈락율 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7-12, 표 7-13). 실제로 훈련 요구사항과 불가피한 탈락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자료제시는 하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의 종류는 특히 선교학, 신학 훈련 그리고 타문화 오리엔테이션 영역에서 선교단체의 규모에 따라 증가한다. 단기선교 경험은 작은 규모의 선교단체에서만 뚜렷한 차이를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가 투자한 시간과 재정에 비교한 방지가능한 탈락율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 (169개의 단체와 11,620명의 선교사 소속)

투자		기성 파송국가			신생 파송국가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시간	0-5%	23	1,400	6.23±0.40	6	385	9.69±1.21
	>20%	24	1,820	4.41±0.36	29	1,610	5.21±0.36
재정	0-5%	36	2,310	5.75±0.34	10	595	6.88±0.68
	>20%	19	1,435	3.74±0.39	25	1,470	3.47±0.40

표 7-11

파송 전 훈련 요구사항과 방지가능한 탈락율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 (167개의 단체와 11,515명의 선교사 소속)

요구사항의 종류	요구			요구하지 않음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타문화권 오리엔테이션	8	350	3.43±0.60	159	11,165	4.59±0.13
신학 훈련	74	5,355	3.99±0.20	93	6,160	5.04±0.20
타문화권 경험	53	3,465	3.70±0.20	114	8,050	4.92±0.16
선교학 학위	12	945	3.28±0.50	155	10,570	4.67±0.14
선교학 연구 (공식, 비공식)	141	9,765	4.44±0.15	26	1,750	5.18±0.35
기타	38	2,870	4.50±0.30	129	8,645	4.57±0.15
총계 (26-200명의 선교사)	167	11,515	4.52±0.13			

표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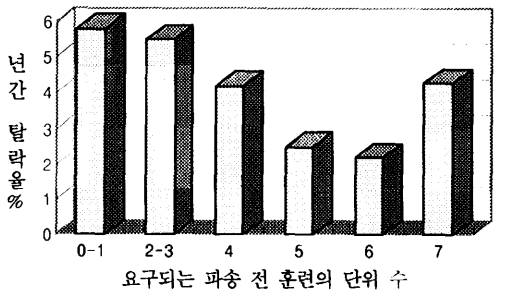


표 7-13 요구되는 파송 전 훈련의 단위에 따른 탈락율

보였다. 단체의 크기와 탈락 감소 사이의 강한 긍정적 관계와 함께 파송 전 훈련은 중요한 요소이다. 최저 탈락율을 갖는 선교단체 그룹은, 같은 규모의 그룹에서 최고 탈락율을 갖는 그룹에 비해 특별히 선교학, 타문화 경험, 그리고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분야에서, 50% 이상의 훈련을 더 요구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요구해야 하는가?

후보자 선별이 탈락을 감소시키는가? 선교단체들이

선교사 선별과 방지가능한 탈락율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 (168개의 단체와 11,550명의 선교사 소속)

선별영역	평가			평가하지 않음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선교단체 수	선교사 수	탈락율 %
교리	150	10,325	4.47±0.14	18	1,225	5.14±0.51
소명감	160	10,885	4.42±0.13	8	665	6.56±0.74
추천서	64	4,550	4.44±0.23	104	7,000	4.61±0.17
이전 선교 경험	161	11,130	4.61±0.13	7	420	2.70±0.70
이전 교회사역 경험	125	8,155	4.44±0.16	43	3,395	4.80±0.28
건강	147	10,325	4.24±0.14	21	1,225	7.07±0.67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기술	123	8,225	4.69±0.16	45	3,325	4.19±0.27
지도력/목회자질	93	6,230	4.30±0.18	75	5,320	4.83±0.21
가족 상황	132	9,170	4.37±0.15	36	2,380	5.20±0.32
가족 숫자의 제한	31	2,450	5.04±0.34	137	9,100	4.41±0.15
심리 검사	101	7,070	4.47±0.17	67	4,480	4.65±0.23
확실한 재정후원	104	7,140	4.11±0.17	64	4,410	5.24±0.23
안수	39	2,380	4.11±0.30	129	9,170	4.66±0.16

표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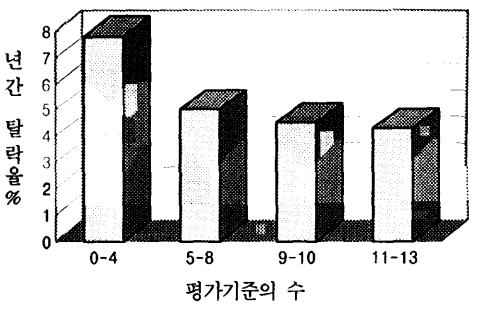


표 7-15 후보자 선별 동안 적용되는 평가기준의 수에 따른 방지가능한 탈락율 (13개 항목에서)

선교사 선발과정에서 특정 영역에 후보자들을 검색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서, 각기 탈락율을 각 검색 영역들에 연관시켜 보았다. 표 7-14와 7-15는 26-200명 규모의 선교단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항목별로 볼 때, 교리 서약(다른 규모의 그룹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보임), 소명(모든 그룹에서), 이전의 교회 사역(모든 그룹에서), 건강(모든 그룹에서, 특히 신생 파송국가에서), 가정 형편(모든 그룹에서), 그리고 안수 여부(신생 파송국가에서)에서 긍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이 영역들은 각기 개별적으로는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낮추는 데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선별 요소들은 혼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26-200명 규모 그룹이 통계적으로 가장 신뢰할만한 표본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의 발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인 선별 연습 중의 일부를 검토해 보도록 도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요구조건의 양이 선교단체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저런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이 탈락을 예방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최저 탈락율을 갖는 선교단체들은 최고의 탈락율을 갖는 선교단체들과 같은 수의 선별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낮은 탈락율을 보이는 단체는 선별을 위해 추천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지도력, 자녀들의 수, 그리고 교리상의 동의(신생 파송국가) 대신에 위에서 언급한 영역들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요구사항의 종류는 요구사항의 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방지가능한 탈락율은 한가지 요소에 달려있지 않다. 의심할 여지없이, 여러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조합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후보자 선발 평가 기준의 숫자, 파송 전 훈련 요구의 숫자, 후원 제공의 가짓수, 그리고 선교사를 돌보는데 사용된 전체 재정의 비율 등의 사이에 교차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표 7-16 참조). 이러한 목적으로, 자료들은 하나의 독립적 변수에 대해서 추려졌고 다른 변수들은 그에 알맞게 계산되었다. 이 과정은 여러 다양한 선교단체 규모 그룹들에서도 동일하게 각기 수행되었다.

1. 후보자 선발

선교사 후보생 선발시에 고려된 영역의 수에 따라 일련의 자료들을 추려냄으로써, 후보자 선발이 작은 규모의 선교단체(1-10명 규모)에서는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명백한 직접 관계가 있음과 큰 규모의 선교단체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후보자 선발은 선교지에서 선교사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파송 전 훈련과도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후보자들을 사려 깊게 선별한 선교단체들은 또한 파송 전 훈련과 선교지에서의 후원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낮은 탈락율을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선교사의 돌봄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는 않는다.

2. 훈련 요구사항

파송 전 훈련의 양에 대해서 자료를 추려 보았을 때에, 26명 이상 규모의 선교단체들(전세계 선교사의 90%에 해당)의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훈련의 양 사이

선교사 선발, 파송 전 훈련, 선교지 후원 등과 방지가능한 탈락율 간의 교차 상호관계

1-10명 규모의 선교단체

선발기준		선교단체 수	탈락율 %	평가기준 수	훈련 수	후원 수	재정관리 %
평가기준의 숫자	1-5	24	20.28±2.71	4.13	1.82	4.21	18.30
	6-8	55	16.97±1.61	7.04	2.56	5.04	13.00
	9-13	42	11.59±1.47	10.17	3.26	5.88	14.80
파송 전 훈련요구의 숫자	0-1	27	13.80±2.00	5.88	0.74	3.92	11.70
	2	25	11.20±1.87	7.68	2.00	4.76	13.00
	3	33	21.82±2.42	8.03	3.00	6.12	16.80
	4	26	14.36±2.11	8.12	4.00	5.62	14.30
	5-7	8	15.00±3.90	8.88	5.63	5.25	20.10
후원제공의 가짓수	1-3	30	10.44±1.64	6.59	2.13	2.50	15.00
	4-6	61	17.50±1.55	7.31	2.78	5.05	14.70
	7-10	29	18.16±2.30	8.86	3.07	8.17	14.80
탈락율	낮다	29	6.66±0.70	7.52	2.55	5.10	14.70
	높다	34	16.10±1.00	7.65	2.68	5.44	14.60
	평균	19	33.70±4.30	7.58	3.06	5.68	17.90
재정관리	0-5%	33	15.76±1.98	7.42	2.21	4.76	2.37
	6-20%	42	16.35±1.80	7.83	3.00	5.57	10.50
	21-40%	33	15.96±2.00	7.03	2.94	5.03	32.58
총계		121	15.70±1.04	7.51	2.68	5.17	14.80

11-25명 규모의 선교단체

선발기준		선교단체 수	탈락율 %	평가기준 수	훈련 수	후원 수	재정관리 %
평가기준의 숫자	1-5	17	6.62±1.03	4.35	2.53	4.41	20.50
	6-8	43	8.19±0.74	7.19	2.70	5.33	13.00
	9-13	39	7.80±0.76	10.28	3.28	6.05	14.70
파송 전 훈련요구의 숫자	0-1	14	8.47±1.33	6.92	0.57	5.21	14.90
	2	23	6.61±0.89	8.26	2.00	4.52	13.20
	3	33	7.51±0.80	7.58	3.00	5.42	15.80
	4	18	7.52±1.09	8.17	4.00	6.61	17.00
	5-7	11	10.41±1.72	9.36	5.64	6.19	15.30
후원제공의 가짓수	1-3	24	7.37±0.93	7.17	2.35	2.21	14.00
	4-6	34	8.94±0.89	7.58	2.85	4.97	15.30
	7-10	42	6.84±0.67	8.62	3.24	7.67	15.50
탈락율	낮다	28	3.05±0.38	8.39	2.57	5.57	15.40
	높다	26	7.44±0.46	7.73	2.77	5.85	12.20
	평균	24	13.53±2.02	8.04	3.38	5.29	16.50
재정관리	0-5%	22	5.11±0.78	8.00	2.81	4.36	2.23
	6-20%	37	8.62±0.83	7.76	2.84	6.03	10.33
	21-40%	30	7.92±0.87	7.96	2.97	5.57	30.33
총계		100	7.68±0.47	7.92	2.90	5.44	15.10

표 7-16

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장 낮은 탈락율(2% 이하)을 보이는 단체들은 파송 전 훈련과의 상관관계가 3.8인데 이는 높은 탈락율(5% 이상)을 보이는 단체의 상관관계가 2.43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규모의 선교단체들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발견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선교단체들은 높은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훈련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다른 요소들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훈련은 후보자 선발과도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선교사를 돌보는데 사용된 재정의 비율이나 선교지에서의 후원의 양은 일정하였다(선교단체의 크기에 따라 증가는 하지만).

3. 선교지 후원과 관리

자료를 선교지 후원 공급의 수에 따라 추려냈을 때 후원의 양이 명백히 후보자 선발 및 파송 전 훈련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지가능한 탈락율은 여전히 증가하므로 선교지에서의 후원과 관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방지가능한 탈락을 줄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선교사 관리에 사용된 재정의 비율에 따라 추려보았을 때, 선교사 관리에 재정의 5% 이상을 투자하는 단체에서 탈락율은 별 변화가 없었다. 선교사를

선교사 선발, 파송 전 훈련, 선교지 후원 등과 방지가능한 탈락율 간의 교차 상호관계 (계속)

26명 이상 규모의 선교단체

		선교단체 수	탈락율 %	평가기준 수	훈련 수	후원 수	재정관리 %
평가기준의 숫자	1-5	25	5.04±0.42	4.28	1.95	5.98	10.90
	6-8	56	4.14±0.23	7.42	2.50	6.94	16.00
	9-13	111	4.21±0.17	10.07	3.59	7.38	16.00
파송 전 훈련요구의 숫자	0-1	32	5.11±0.39	7.08	0.80	6.17	15.70
	2	50	4.71±0.27	8.02	2.00	7.84	13.90
	3	46	5.73±0.35	8.72	3.00	6.58	13.10
	4	40	3.36±0.25	9.58	4.00	7.37	17.40
	5-7	23	2.22±0.21	9.45	5.70	6.73	12.80
후원제공의 가짓수	1-3	24	2.36±0.27	7.97	2.81	2.46	16.80
	4-6	74	3.70±0.19	8.01	2.39	5.54	10.80
	7-10	94	4.89±0.20	8.96	2.91	8.59	16.40
탈락율	낮다	61	1.14±0.09	8.36	3.80	6.12	12.70
	높다	72	3.79±0.18	8.62	2.92	7.46	16.10
	평균	60	9.17±0.46	8.70	2.43	7.49	13.70
재정관리	0-5%	53	4.45±0.25	8.44	3.33	6.17	2.73
	6-20%	67	4.14±0.22	8.83	3.07	6.79	11.50
	21-40%	51	4.33±0.26	8.71	3.23	6.43	32.10
총계		193	4.27±0.13	8.56	3.06	7.08	14.40

평가기준 수 = 선교사 선발과정에 평가하는 항목의 수
훈련 수 = 파송 전 훈련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수
후원 수 = 파송 후 후원 제공의 가짓수
재정관리 % = 선교사 관리에 사용된 전체 재정의 비율

표 7-16 (계속)

돌보는 데에 사용되는 재정의 비율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해도 파송 전 훈련은 늘어나지 않고 후보자 선발과 선교지에서의 후원 공급의 수는 미미하게 증가하였다(5%).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선교사들을 돌보는데 사용되는 재정은 포화수준인 5% 이상인데 이보다 낮은 비율에서는 재정 투자 비율에 따라 탈락율이 증가한다.

결론은 많은 선교지에서의 후원과 관리가 실제적으로 탈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후보자 선발과 파송 전 훈련에의 많은 투자는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줄이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후원과 투자는 철저한 후보자 선발과 파송 전 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너무 늦은 것이 된다.

어떤 선교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당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몇몇 발견을 적어 보겠다.

1.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불가피한 탈락율도 낮다. 불가피한 탈락율과 방지가능한 탈락율 그리고 전체 탈락율은 모두 5 이상의 인수(因數: factor)로 선교단체의 크기에 달려있다.

2.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큰 규모의 선교단체에서는 많은 독신 여성(신생 파송국가와 기성 파송국가)과 독신 남성(신생 파송국가)을 잃고 있으며, 이에 비해 부부의 탈락율은 낮다. 작은 규모의 선교단체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준다. 이것은 크고 작은 규모의 선교단체들이 서로 다른 독신과 부부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 또는 각각의 선교사역에서 가족에게 주어지는 중요성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3.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팀"과 "사역"에 관련된 탈락율이 높으며 "기타"와 "가족 문제"로는 탈락율이 낮다.

4.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본국보다는 해외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타문화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본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탈락 가능성이 많다.

5. 작은 규모의 선교단체들은 교회들과 함께 사역할 때 낮은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보이는 반면 큰 규모의 선교단체들은 교회개척을 할 때 더 낮은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보인다.

6. 후보자들을 선별할 때에, 낮은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보이는 선교단체들은 (가) 확고한 소명, (나) 추천서(25명 또는 그 이하 규모의 선교단체들에서), (다) 이전의 교회 사역(작은 선교단체들), (라) 건강, (마) 결혼, (바) 확실한 재정 지원, 그리고 (사) 안수를 더 많이 강조한다. 하지만 그들은 (가) 이전의 선교 경험(10명 규모 이상의 선교단체들), (나) 의사소통 기술, (다) 지도력(25명 규모 이상의 선교단체들), (라) 심리 테스트, (마) 가족 수의 제한, 그리고 (바) 기타 영역들에는 강조를 덜 한다. 낮은 탈락율을 보이는 선교단체들은 가족 영역에서 더 많은 검색을 한다.

7.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많은 훈련 요구사항을 갖는데, 특히 선교학(학위 과정과 그외 과정들), 신학(작은 선교단체들), 그리고 타문화 생활 등에 많은 요구를 한다.

8.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선교지 후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팀 후원, 선교지에서의 지도력, 자녀 교육, 그리고 안식년 등의 영역에서 그렇다. 이것은 선교단체의 규모와 유일하게 상반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많을수록 나쁘다는 의미이다). 선교지에서 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숫자는 그 단체의 기본조직, 정책, 그리고 관리 등을 반영해 주는 것인데 선교단체의 규모에 따라 50%까지 증가한다. 기성 파송국가 선교단체들은 신생 파송국가 선교단체들보다 특별히 목양, 안식년, 자녀 교육, 팀 후원, 선교지 수양회 및 기타의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신생 파송국가 선교단체들은 전체적으로 선교지 지도력, 업무 분장, 현장 훈련, 매년의 방문 그리고 편

지와 전화통화 등에서 더 많은 후원을 한다. 유일하게 지속되는 긍정적 효과는 편지와 전화통화이다.

9.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낮은 선교단체들은 소속 선교사를 돌보는 일에 동일한 양의 시간과 재정(10-20%)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교단체의 규모에 따라 이는 60%까지 증가한다. 덧붙여서, 신생 파송국가 선교단체들은 기성 파송국가 선교단체들보다 목양에 50-100%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을 사용한다. (이것은 신생 파송국가의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 성향을 반영하는 것인가?) 하지만 기성 파송국가와 신생 파송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보이는 선교단체들은 일반적인 다른 선교단체들에 비해 목양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10. 최저의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보이는 선교단체들은 선교지에 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감독자 및 선교단체와의 좋은 관계, 그리고 안정된 재정 지원이라고 믿고 있다. 본국 후원자들과의 접촉, 정상적인 감독 그리고 정상적인 훈련 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평가한 선교단체들은 평균 탈락율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요약과 제안

이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방지가능한 탈락과 불가피한 탈락이 선교단체의 규모에 상당한 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인원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긴밀한 협조와 어떤 경우에는 조직적인 합병을 찾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의 규모를 넘어설 때, 규모에 따른 이익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기본 구조와 행정뿐만 아니라 개인 관계와 상호 신뢰를 유지시키는 면에서 최적의 선교단체 규모인가?

후보자 선발, 파송 전 훈련, 그리고 돌봄의 양(6%까지)이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줄이는 것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각 항목을 따로 보면 각 요소들이 탈락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적은 영향만을 보여 준다. "기타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한계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교지 후원과 관리의 각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여전히 전세계 선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고지식한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것도 더 많은 연구를 요구하는 알 수 없는 결과이다.

가장 낮은 탈락을 보이는 선교단체에 대한 분석은 기대할 만한 분명한 특정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산만한 여러 경향만을 보여 주었다. 이 사실은 탈락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국 문화 또는 사역을 할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각기 다른 전략, 수단, 구조, 그리고 방법들이 각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성공은 겉으로 보기에 여러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고, 각 선교단체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그리고 채워주심에 달려 있다.

부록 1: 수학적 과정

다음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작업들이 데이타 베이스와 함께 사용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의 질문은 345-351 페이지를 참조하라.

1. 자료의 제외

전체 탈락(설문조사의 질문 3)에 대한 수치 또는 선교단체의 크기(질문 4)가 없는 자료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 411개의 자료만이 남았다. 몇 설문조사에서는 질문 1에서 질문 12까지의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는 못했고, 따라서 몇개의 도표들은 전체값이 약간 낮추어졌을지도 모르겠다.

2. 일관성 검증

질문 2와 질문 3에 기입된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검증이 이루어졌고, 가능한 곳에서는 수정이 가해졌다. 1992-1994년간의 전체 손실이 마이너스일 리가 없다. 만약 질문 2의 (2)~(4)가 답변되었다면, 전체 합계는 정확하게 질문 3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몇 경우에서는 명백히 기입 착오로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사람이 양식에 기입할 때 또는 컴퓨터에 자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이것들도 수정되었다.

3. 선교사의 수

선교단체의 실제 선교사 수에 대한 최선의 추측으로 선교사들의 평균 숫자가 각 자료에 주어졌다. 질문 4는 선교단체의 크기를 특정 범위들로 제시한다: 1-10명의 선교사(설문조사의 30%), 11-25명의 선교사(23%), 26-50명의 선교사(19%), 51-100명의 선교사(11%), 101-200명의 선교사(9%), 201-500명의 선교사(4%), 500명 이상의 선교사(2%) 등이다. 특히, 위 범위가 일정하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대형 선교단체들보다는 소규모의 선교단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선교사의 수가 그룹화된 범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산술 평균값보다 적은 선교단체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선교단체마다의 선교사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균값들이 사용되었는데 즉 1-10명 규모의 선교단체는 5명의 선교사로, 11-25명 규모의 선교단체는 산술평균인 18명[(11+25)/2] 대신에 16명의 선교사로, 26-50명 규모의 선교단체는 산술평균인 38명 대신에 35명의 선교사로, 51-100명 규모의 선교단체는 산술평균 76명 대신에 70명의 선교사로, 101-200명 규모의 선교단체는 산술평균인 150명 대신에 140명의 선교사로, 200명 이상 규모의 선교단체에 대해서는 실제 선교사의 수를 패트릭 존스톤의 「선교 핸드북」 또는 「세계기도정보」에서 얻었다. 신생 파송국가의 선교단체에 대해서 추측이 불가능할 경우는 200-500명 규모의 선교단체에 최선의 추측인 314명이 할당되었고(산술평균값 350명 대신에), 500명 이상의 그룹에는 600명이 할당되었다.

위에 사용된 평균값들은 자료들의 "분포 밀도"에서 얻어냈다. 단체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그룹에서 선교단체의 수는 규모 범위의 너비(width)(10-1, 25-11, 50-26 등)로 나뉘어졌고, 이 선교단체들의 "분포 밀도"는 선교단체 규모의 (산술) 평균에 대해 좌표로 그려졌다. 단지 두 부분에서만 일직선이 발견되었다: (1) 밀도 = 선교단체당 선교사 수의 52배의 (-0.8) 제곱승 (100명 이하 규모의 선교단체에 대해), (2) 밀도 = 선교단체당 선교사 수의 824배의 (-1.6) 제곱승 (100명 이상 규모의 선교단체에 대해).

이 밀도 분포는 선교단체 규모의 범위에 걸쳐서 적분되었고(질문 4), 산술평균보다 다소 적은, 위에서 언급한 평균값들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탈락[질문 3(1)]과 방지가능한 탈락[질문 2 마지막 열에서 질문 3(1)을 뺀 것]을 합친, 전체 탈락 손실은 다시 3으로 나뉘어져서 연간 손실치로 계산되었다. 이것을 다시 선교단체의 평균 규모(실제 선교사 수에 대한 최선의 추측)로 나누면 연간 탈락율이 산출된다. 선교단체의 탈락율은 선교사 수의 불확실성(예를 들어, 11-25 선교사 그룹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의 수는 실제 수가 11이나 25가 될 수도 있는데, 16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대체로 50%의 오류를 갖는다. 그러나 많은 수의 선교단체에 대한 탈락 수를 합산함으로써, 과도한 추측과 과부족 추측은 서로 상쇄되고, 오류는 감소될 것이다. 정교한 수학적 방법은 "밀도 함수"에 대한 적분으로서 다음에 설명되어 있다.

4. 결과의 정확도

선교단체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숫자와 제한된 표본 크기에 대한 추측 때문에 한가지 중요한 부정확도가 생기게 된다. 통계학에서, 이 부정확도는 실험값

을 ±불확실도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구간(분산)으로 표현된다. 이 불확실성은 모든 실제 결과의 63%에 해당하는 범위로 정의된다. 즉 결과의 63%는 평균에서 불확실성을 더한 값과 뺀 값 사이에 해당될 것이다. 11-25명 규모의 선교단체에서는 평균값 16명이 할당되었는데, 데이타 점의 최대로 흩어진 정도는 ±8이었으므로 이는 평균값의 50%에 해당한다. 데이타 점들(밀도 분포)의 동일한 분포를 가정하면, 단독 자료의 분산은 50%×0.63 = 31.5%가 될 것이다. (가장 작은 규모인 1-10명 그룹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5명이 주어졌고, 최대 흩어진 정도는 ±5로 100%이므로 100×0.63 = 63.0%의 분산을 나타낸다.) 평균값의 불확실성은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씨그마(σ)는 변수를 자료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28개 선교단체들의 부분집합에서, 표본 크기에 기인하는 상대적 불확실성은 31%/5.3 = 6%가 될 것이다.

불확실성의 두번째 원인은 적은 수의 탈락 사례들이다. 어느 한 조직에서 연간 5건의 사례가 있다가 그 다음해에는 7건의 사례가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의 수는 다음해에 대한 예측으로 단지 제한된 가치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선교사 손실은 확률론적인 과정인데(방사성 물질의 붕괴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이것이 지금까지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다뤄져왔다. 이것이 탈락의 불확실성에 두번째 요인을 제공하는데, 이 불확실성은 1을 사건의 수(즉, 1992-1994, 3년간의 전체 탈락, 방지가능한 탈락, 또는 불가피한 탈락)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 된다. 두가지 요소(제한된 표본 크기와 탈락의 확률적 특성)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전체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불확실성 = 10명 이상 규모의 선교단체에 대해서는 (0.1/선교단체의 수 + 1/탈락 사례의 수)의 제곱근, 또는 불확실성 = 1-10명 규모의 선교단체에 대해서는 (0.3/선교단체의 수 + 1/탈락 사례의 수)의 제곱근이 된다. 예를 들어, 26개의 방지가능한 탈락 사례와 함께, 28개의 선교단체들의 부분집합에서 불확실성은 (0.1/28 + 1/26)의 제곱근 = (0.00357 + 0.03846)의 제곱근 = 제곱근(0.0420) = 20.5%가 된다. 여기에 예를 들어 3.7%의 방지가능한 탈락율을 곱하면, 이것은 0.205×3.7% = 0.76%가 되어 결과는 3.7±0.76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은 전체 그룹(연구에 포함되는 제한된 표본만이 아닌)에 대한 실제 값이 2.9%에서 4.5%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불확실성은 자료와 실제 선교사 손실 수치에 크게 달려 있다. 그것은 40의 인수로 변동할 수 있으며 수±불확실성의 데이타로 주어진다.

어떤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 선교단체의 부분집합이 선택되면, 손실된 선교사들의 총 숫자가 계산되고 그 단체에 소속된 전체 선교사의 수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탈락에 대한 결과는 불가피하게 조직에 의해 제시된 선교사들의 수에 비례한다.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즉, 후보자들의 선발, 파송 전 훈련 또는 선교지에서의 공급 등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반응을 그 조직의 선교사 수로 곱하고 합을 그 부분그룹에서 제시한 선교사의 전체 수로 나누는 동일한 과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의 반응은 위클리프가 전체 선교사역에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4명 규모의 선교단체보다 1,000배의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을 적용하여, 다양한 부분집합들이 선택되고, 선교단체들의 수, 신생 파송국가 선교단체들의 비율, 이 선교단체들에 대한 선교사 전체의 숫자, 전체 탈락율, 방지가능한 탈락율, 그리고 불가피한 탈락율 등이 계산되었고 방지가능한 탈락율에서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검색되었다.

부록 2: 급성장하는 단체에 대한 수정

탈락 연구의 적절한 과정은 어떤 특정한 해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몇 퍼센트가 5년 또는 10년간의 사역 후에도 선교지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

급성장하는 단체의 수정 인자									
년 성장율	실제 탈락율								
	1%	2%	4%	6%	8%	10%	15%	20%	25%
-10%	1.0073	1.0249	1.0599	1.0934	1.1246	1.1523	1.2017	1.2247	1.2323
-7.5%	0.9981	1.0138	1.0442	1.0721	1.0966	1.1171	1.1502	1.1636	1.1676
-5%	0.9844	0.9979	1.0229	1.0446	1.0627	1.0769	1.0979	1.1054	1.1075
-2.5%	0.9658	0.9767	0.9960	1.0119	1.0244	1.0337	1.0464	1.0506	1.0517
0	0.9423	0.9505	0.9646	0.9756	0.9838	0.9896	0.9970	0.9993	0.9999
2.5%	0.9145	0.9204	0.9301	0.9373	0.9507	0.9460	0.9502	0.9515	0.9517
5%	0.8836	0.8876	0.8940	0.8986	0.9017	0.9038	0.9062	0.9068	0.9070
7.5%	0.8510	0.8536	0.8577	0.8605	0.8623	0.8635	0.8649	0.8652	0.8633
10%	0.8179	0.8195	0.8220	0.8237	0.8248	0.8255	0.8262	0.8264	0.8264
12.5%	0.7850	0.7861	0.7876	0.7886	0.7892	0.7896	0.7900	0.7901	0.7901
15%	0.7532	0.7538	0.7547	0.7553	0.7556	0.7558	0.7561	0.7561	0.7561
20%	0.6934	0.6936	0.6940	0.6942	0.6943	0.6943	0.6944	0.6944	0.6944
25%	0.6397	0.6397	0.6398	0.6399	0.6399	0.6400	0.6400	0.6400	0.6400
30%	0.5916	0.5916	0.5917	0.5917	0.5917	0.5917	0.5917	0.5917	0.5917
35%	0.5487	0.5487	0.5487	0.5487	0.5487	0.5487	0.5487	0.5487	0.5487
40%	0.5102	0.5102	0.5102	0.5102	0.5102	0.5102	0.5102	0.5102	0.5102
50%	0.4444	0.4444	0.4444	0.4444	0.4444	0.4444	0.4444	0.4444	0.4444

표 7-17

나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며, 종종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탈락은 흔히 어떤 특정 해에 선교지의 선교사 수에 대한 손실의 수로 어림잡는다. (이 연구에서는, 1992-1994년 간의 평균을 취하였다.) 컴퓨터 모의실험은 이 과정이 천천히 성장하는 선교단체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사치 계산이라고 증명되었으나, 급속히 성장하는 선교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선교단체는 아직 선교지에서 인내해 보지 않았고, 탈락의 위험을 겪어보지 않은 높은 비율의 젊은 선교사들을 갖고 있다. 표 7-17에서, 외견상의 탈락율(선교지의 선교사 수로 나뉜 년간 손실의 수)은 실제 탈락율로 나뉘어져서, 각기 다른 선교단체 성장율과 탈락율에 따른 수정 인자 C를 계산해 내게 한다.

20%(C=0.69)의 년간 성장율을 보이는 곳에서, 실제 탈락율은 45%(1/C =1.45) 적게 추정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년간 40%의 성장율을 갖는 선교단체에서는 2의 수정인자만큼 적게 추정된 것이다.

이 인위적 수치에 대한 수정은 수정 인자를 곱하여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선교지에서의 효과적인 인원수(대개 실제 선교사 수보다 적음)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연간 손실에 대한 올바른 분모이다. 어떤 특정한 해의 선교사 손실의 수를 선교사의 효과적인 인원수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 년간 탈락율을 제공한다.

부록 3: 국가별 탈락치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에 참가한 각 나라에 대해, 특정 규모의 선교단체 그룹의 모든 선교에 걸친 국가적 평균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계산되었다. 각각의 기성 파송국가에 대해서 선교단체 성장에 따른 수정을 포함한 수치가 모든 기성 파송 국가의 평균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비교되었다. 각각의 신생 파송국가에 대

국가별 방지가능한 탈락율

국 가	1-10명 규모의 단체			11-25명 규모의 단체			26명 이상 규모의 단체		
	단체 수	평균 탈락율 %	상대적 탈락율 %	단체 수	평균 탈락율 %	상대적 탈락율 %	단체 수	평균 탈락율 %	상대적 탈락율 %
가나	27	20.49±2.57	145±18	11	9.28±1.59	177±30	14	3.48±0.51	114±17
나이지리아	4	31.67±8.82	183±51	6	8.33±2.01	100±24	5	3.59±0.63	77±14
덴마크	3	0	0	4	12.50±2.64	156±33	1	3.81±2.25	91±54
독일	5	10.67±4.06	109±23	7	7.44±1.73	94±22	9	4.47±0.64	109±16
미국	22	14.24±2.29	109±18	22	5.97±0.85	75±11	68	3.75±0.19	91±5
브라질	2	0	0	7	6.85±1.65	79±19	13	7.34±0.80	151±16
싱가폴	1	33.33±18.26	192±105	3	2.08±1.26	28±17	2	0.48±0.49	11±11
영국	8	7.50±2.64	56±20	5	14.58±3.20	180±40	22	4.78±0.44	114±10
인도	3	66.67±17.20	385±99	4	10.42±3.29	116±37	12	5.20±0.57	103±12
캐나다	5	16.00±5.14	91±29	3	7.64±2.69	97±34	7	3.44±0.65	84±16
코스타리카	4	11.70±4.78	68±28	2	2.08±1.55	35±26	1	1.90±1.48	56±44
필리핀	6	15.56±4.62	67±20	3	6.25±2.38	72±27	6	7.71±1.29	158±26
한국	16	5.42±1.56	27±8	13	7.21±1.25	95±16	17	1.81±0.26	43±6
호주	15	17.33±3.12	129±23	9	6.71±1.43	83±18	16	6.01±0.62	143±15
계	121	15.80±1.00	100	99	7.69±0.47	100	193	4.27±0.13	100

평균 탈락율 % = 주어진 규모의 그룹에서 모든 단체의 국가별 평균 방지가능한 탈락율

상대적 탈락율 % = 각기 불확실도를 포함해서 신생 파송국가 혹은 기성 파송국가의 전체 탈락율에 상대적인 국가별 방지가능한 탈락율 (국가별 단체 성장율에 따라 수정한 값)

표 7-18

해서, 선교단체 성장에 따른 수정을 포함한 국가적 평균 탈락율 값이, 모든 신생 파송 국가의 평균 탈락율과도 비교되었다. 결과는 표 7-18에서 볼 수 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특정 규모의 적은 수의 선교단체들만이 연구에 참여했다. 이것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커다란 통계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이에는 표본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오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선교단체의 규모 분포는 나라마다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미국 선교사들의 95%가 26명 이상 규모의 선교단체들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덴마크 선교사들은 27%만이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작은 선교단체가 더 높은 탈락율을 가지므로, 국가적 선교기관 규모 분포의 차이는 국가적 평균 방지가능한 탈락율에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별 선교사의 선교단체 규모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므로 연구의 표본들이 전반적인 국가적 선교사역에 적절한 상대인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별 방지가능한 탈락율 평균이 반드시 실제 국가별 탈락율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표 7-19는 이 연구에 참가한 14개국 각각에 대한 국가별 불가피한 탈락율을 보여준다. 표 7-20은 국가별 방지가능한 탈락율, 국가별 불가피한 탈락율 그리고 국가별 전체 탈락율을 보여준다. 표 7-19와 7-20의 값들은 선교지에서 활동적인 선교사에 비해 선교사역을 그만두는 선교사의 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수치들은 선교단체의 성장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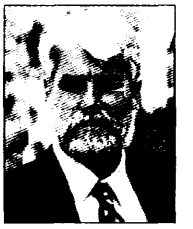
국가별 불가피한 탈락율			
국 가	단체규모에 따른 불가피한 탈락율 %		
	1-10명 규모	11-25명 규모	26명 이상
가나	0.74±0.43	2.08±0.66	0.30±0.13
나이지리아	1.67±1.69	1.39±0.72	1.70±0.35
덴마크	26.67±9.11	9.72±2.23	8.57±3.94
독일	5.33±2.77	1.49±0.69	0.70±0.19
미국	5.15±1.30	0.95±0.31	2.16±0.12
브라질	0	1.79±0.76	1.14±0.21
싱가폴	0	1.39±1.01	0.95±0.71
영국	4.17±1.92	6.67±1.91	2.46±0.27
인도	4.44±3.25	2.78±1.48	0.34±0.09
캐나다	5.33±2.77	5.56±2.21	2.64±0.54
코스타리카	3.33±2.42	1.04±1.07	1.90±1.48
필리핀	8.89±3.35	2.08±1.26	1.13±0.34
한국	1.25±0.73	0.96±0.40	0.63±0.14
호주	7.56±1.93	4.86±1.18	4.49±0.50
계	4.30±0.50	2.60±0.25	1.87±0.07

표 7-19

국가별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불가피한 탈락율의 합			
국 가	국가별 방지가능한 탈락율 %	국가별 불가피한 탈락율 %	국가별 전체 탈락율 %
가나	6.90±0.57	0.69±0.16	7.59±0.61
나이지리아	4.65±0.55	1.66±0.28	6.31±0.70
덴마크	9.13±1.71	11.19±1.95	20.32±2.96
독일	4.99±0.54	0.92±0.19	5.91±0.61
미국	3.96±0.17	2.15±0.11	6.12±0.24
브라질	7.24±0.66	1.19±0.20	8.42±0.75
싱가폴	2.44±0.87	1.08±0.56	3.52±1.08
영국	5.23±0.41	2.67±0.26	7.89±0.56
인도	5.85±0.55	0.44±0.10	6.29±0.58
캐나다	4.42±0.64	3.03±0.50	7.45±0.92
코스타리카	4.21±1.37	1.92±0.89	6.13±1.70
필리핀	8.06±1.01	1.73±0.38	9.79±1.16
한국	2.72±0.27	0.71±0.13	3.42±0.31
호주	6.67±0.52	4.69±0.40	11.36±0.76
계	4.85±0.11	1.99±0.06	6.84±0.15
국가별 방지가능한 탈락율과 불가피한 탈락율 값은 선교사 숫자의 가중치를 두어서 모든 선교단체의 크기로 계산되었다. 선교단체의 평균 크기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평균은 쉽게 비교될 수 없다.			

표 7-20

데트레프 블뢰헤르(Detlef Blöcher)는 1953년생이며 결혼하여 6살에서 12살 사이의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물리학 석사로서 1976년에서 84년까지는 연구소의 과학자로 일했다. 1976-81년, 그리고 1984-85년까지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고 1986-90년 사이에는 중동지역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섬겼다. 1991년 이후 독일의 신샤임에 있는 German Missionary Fellowship의 대표 책임자로 있으며 WEF 선교분과 위원회의 간사로 사역하고 있다.



조나단 루이스(Jonathan Lewis)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다. 루이스 부부는 혼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미국에서 선교목사로 교회사역도 하였다. 세 권으로 된 *World Mission* (1987, 1993)의 저자이며 *Working Your Way to the Nations* (1996)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현재는 WEF 선교분과 위원회의 간사로서 선교사 훈련 자문과 출판을 맡고 있다. 부인 돈과의 사이에 네 자녀가 있다.

제3부

나라별 사례연구

3

한국에서의 선교사 탈락: 선교 행정가들의 견해

문상철

선교사들이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의 선교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바울의 일행 중 디모데, 디도, 누가, 그레스게 등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역했다(딤후 4:10-11). 그러나 데마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딤후 4:10). 마가 역시 선교팀을 떠났지만, 나중에 복귀하였다. 선교사 탈락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심의 초점은 단순히 일부 연약한 사역자들의 탈락을 방지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이 부름 받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선교사 탈락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선교지에서 조기 귀국한 선교사들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탈락은 인력과 재정 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2/3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사역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 한 명이 사역을 포기할 경우, 자국 내에서 사역하던 다른 2/3세계 출신 선교사 한 명의 경우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 선교사 탈락 문제는 신생 파송국가들의 선교운동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탈락하는 선교사들에 대해 연구할 때 새로운 선교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선교사 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 방향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다.

한국에서의 조사

선교사 탈락에 대한 조사는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R.I.M.)[1]가 WEF 선교분과 위원회 주도의 국제적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진행되었다. 1992년에서 1994년까지 3년 동안의 선교사 탈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국적 연구팀이 준비한 표준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1995년 4월 한국 선교단체들에게 발송하였다. 대부분 선교회 책임자들이 답변한 설문지들은 1995년 9월까지 회수되었다. 통계자료 수집 외에 그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데 또다시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종적인 분석 결과로 작성된 것이다.[2]

---

1)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s)는 사단법인 한국해외선교회(Global Missionary Fellowship, Inc.)의 8개 부서 중 하나로서 선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략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2) 이 장에 제시된 통계 수치는 다른 장에서 제시된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들로는 (1) 피터 브릴리(Peter Brierley)의 계산은(6장) 검색 이전의 초기 자료에 바탕을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 설계에 관련된 한계점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의 설문조사가 선교회들의 성공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선교회 책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는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었지만, 일부는 자료 수집이 끝난 뒤에야 감지되었다.[3]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한 이러한 연구 한계는 국제적인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첫번째, 이번 조사는 양적인 연구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것은 선교행정가들에게 숫자로 된 답변을 요구했다. 향후 이번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밀한 인터뷰와 관찰에 근거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과 더 큰 헌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선교사 탈락의 원인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양적 연구방식으로 인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거 중도에 포기한 선교사들의 개별 사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려고 했다.

둘째로, 설문지의 질문들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잘못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설문지 설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바쁜 선교회 책임자들이 복잡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 가장 혼돈을 주는 문항의 경우 유사한 질문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 선교회들에 대한 필자의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모호한 답변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조사 이전에 시범 조사를 했더라면, 자료 수집을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로, 응답자들이 설문에 답하면서 자기가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한국 문화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닐 것이다. 설문지의 78.1%는 선교 행정가들이 작성하였는데, 그들의 답변 속에는 자신의 소속 단체를 비호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팀은 응답자들에게 개별적인 내용은 엄격하게 대외비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넷째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임의 표본보다는 편의 표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률 이론에 따라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에 해당하는 결론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목표로 했던 78개 선교사 파송단체 가운데서 64개의 단체가 응답했고, 선교사의 숫자로는 전체 90% 이상이 소속 선교회를 통해 대변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논리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 다음 한국 선교사의 탈락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탈락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한 다음, 그 다양한 요인들을 해석하려고 했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 다음,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선교회의 정책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한국 선교운동

선교사 탈락 문제는 개별 선교운동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선교운동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의

둔 것이다. (2) 데트레프 블뢰헤르(Detlef Blöcher)와 조나단 루이스(Jonathan Lewis)는 초기 자료 외에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참고로 했으며, 이들은 다른 관점에서 별도의 질문들을 다루었다. (3) 국별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룬 통계 수치들은 추가적인 참고자료와 자료 해석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3) 필자는 설문지 설계에서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선교사 탈락방지연구(ReMAP: Reducing Missionary Attrition Project)의 전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와 관련된 모든 약점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

선교운동은 선교사 탈락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선교운동으로서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얻은 자료 외에도 한국선교핸드북(1996년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편)의 최신 자료를 추가로 사용했다.

선교사 숫자의 증가

한국선교핸드북에 의하면, 한국 선교운동은 선교사의 숫자 면에서 1979년 이래로 47.3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1996년 현재 4,402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138개국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다(표 8-1과 8-2 참조).[4] 이제 한국교회는 미국(59,074), 인도(11,284), 영국(7,012), 캐나다(5,336)의 뒤를 따라 호주(3,598), 독일(3,524)과 비슷한 숫자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5]

1979년에 한국 선교사들은 21개 단체를 통해서 사역했지만, 1994년에는 그 숫자가 113개로 증가하였다. 위의 113개의 선교단체들 가운데 78개 단체들이 적어도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교단체의 숫자는 1994년 이래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없지만, 기존 선교회들이 신규 선교사들의 파송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선교회 현황

한국 선교단체들은 규모가 커지고는 있지만, 다수는 여전히 소규모이다(표 8-3 참조). 회원 선교사가 500명 이상인 선교회는 두개에 불과하고, 200명 이상 500명 이하가 두 개 있다. 100명 이상은 모두 12개가 된다. 전체적으로 83.6%의 선교단체들이 100명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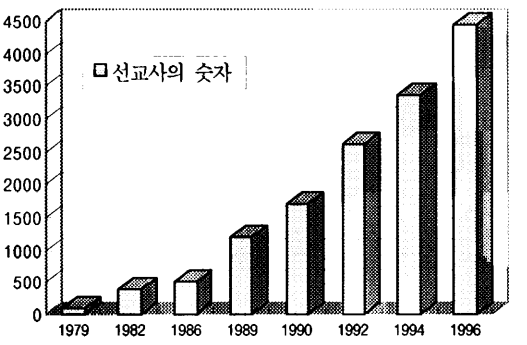


표 8-1 한국선교사의 수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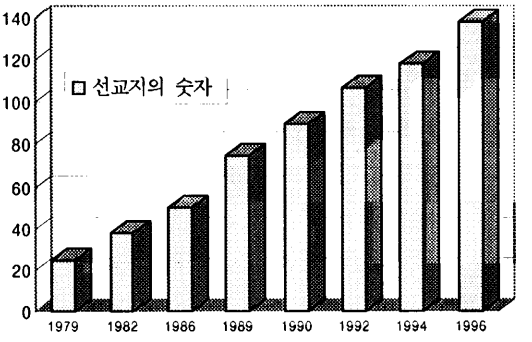


표 8-2 선교지의 증가

이며, 69.9%가 50명 이하이다. 대략 절반 정도의 선교단체(49.4%)가 25명 이하의 회원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선교핸드북 1996, iii).

한국 선교회의 규모			
선교사 수	선교회 수	선교회의 비율 %	누적 비율 %
1-10	18	24.7	24.7
11-25	18	24.7	49.4
26-50	15	20.5	69.9
51-100	10	13.7	83.6
101-200	8	11.0	94.6
201-500	2	2.7	97.3
>500	2	2.7	100.0
계	73	100.0	
유효 케이스 73, 무효 케이스 0			

출처: 한국선교핸드북(1996)

표 8-3

4) 이 숫자는 두 개 이상의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의 숫자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두 명으로 계산하였다(한국선교핸드북 1996, i-ii).

5) 다른 나라 선교사 숫자는 패트릭 존스톤의 책에서 제시된 1993년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서구 선교국가들의 선교사 숫자가 정체 혹은, 감소세에 있다고 본다면, 한국은 최소한 호주나 독일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선교회의 역사			
역사(년)	선교회 수	선교회의 비율 %	누적 비율 %
1-2	1	1.6	1.6
3-10	45	70.3	71.9
11-25	15	23.4	95.3
26-50	1	1.6	96.9
51-100	2	3.1	100.0
계	64	100.0	
유효 케이스 64, 무효 케이스 0			

출처: 한국선교핸드북(1996)

표 8-4

한국 선교회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규모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 이번 선교사 탈락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 선교회들의 71.9%가 1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95.3%가 25년 이하이다. 단지 두 단체만이 (모두 교단선교부) 선교사를 파송한지 50년 이상이 되었다(표 8-4 참조). 선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왜냐하면 젊다는 것은 활기가 있다는 말도 되고, 미성숙하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한국 선교운동의 초창기에는 한국 선교사들의 다수가 해외에 흩어진 교민들(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의 91.7%가 타국에서 타문화권 사역을 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경우는 3.9%에 지나지 않는다(한국선교핸드북 1996, iv).

이번 조사에서 선교회 책임자들은 다수의 한국 선교사들(79.7%)이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한 개척선교(45.3%), 일반 전도와 교회 개척(26.6%), 현지 교회 지원(7.8%) 등 전통적인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8개 선교회(12.5%)가 구제와 개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3개 단체(4.7%)가 기타 선교를 후원하는 사역을 한다고 보고했다(표 8-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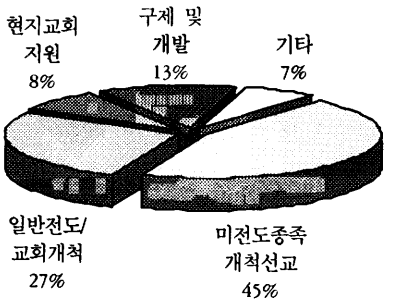


표 8-5 한국 선교회들의 사역 유형

한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응답자의 45.3%가 그 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미전도종족을 위한 개척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1996년 한국선교핸드북의 선교사 명단을 가지고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했을 때, 한국 선교사의 41.2%가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한 개척 사역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표 8-6 참조). 개척선교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장하는 경향이 이와 같은 수적인 차이를 냈다고 보인다. 현재 한국 선교사의 분포에 있어서 또 다른 한가지 지표는 한국 선교사의 47.7%가 10/40 선교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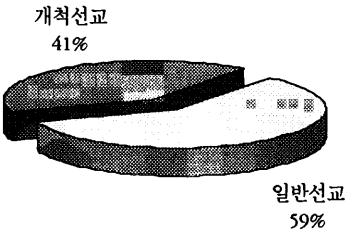


표 8-6 일반선교와 개척선교

6) 이 수치는 1996년 한국선교핸드북의 선교지별 선교사 수치를 필자가 합산한 것이다. 10/40 선교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선교사의 숫자는 루이스 부쉬(Luis Bush)가 작성한 나라들의 목록에 따른 것이다. 한국 선교사의 다수(49.3%)는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유라시아(대부분 중앙아시아)에 13.1%, 아프리카에 7.9%, 중동에 6.1%가 있다. 10/40 선교 사각지대 나라들 중 중국(413)과 구소련(러시아 339, 중앙아시아 577)만 합쳐도 1,329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선교핸드북 1996, iv-v).

이러한 통계 수치들은 최소한 미전도종족을 위한 개척 사역이 한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전도종족을 복음화하려는 최근의 전략적인 강조점이 사역지를 결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는 선교 전략 중의 하나인 미전도종족 선교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특심한 열심을 반영하며, 이것이 한국 선교운동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의 탈락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선교사의 탈락

이번 조사에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199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임기 이전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철수했는가이다. 위에서 한국 선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 것이 선교사 탈락의 추세를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선교사 탈락 현황

1994년 한국선교핸드북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696명의 신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갔다. 1994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 16%(한국선교핸드북 1996, ii)[7]에서 1994년의 신임 선교사 숫자를 523명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는 199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3년 동안 1,219명 혹은 731 선교단위(가정 혹은 독신)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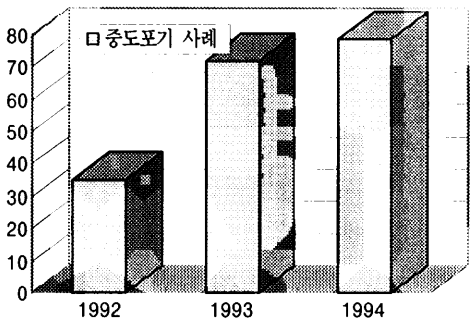


표 8-7 증가 추세에 있는 선교사 탈락 사례

표 8-7은 한국 선교사들의 탈락 사례들을 요약한 것이다. 1992년에는 35단위(가정 혹은 독신)가 선교사역을 중도에 포기했고, 1993년에는 71단위, 1994년에는 79단위였다. 이를 종합하면, 삼년 동안 185가정과 독신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선교회를 떠났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두개 이상의 선교회에 이중으로 소속된 선교사들의 중복과 한 선교회에서 다른 선교회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들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1994년 한국선교핸드북을 보면 두개 선교회에 이중으로 소속된 선교사들(239명)과 3개의 선교회에 삼중으로 소속된 선교사들(7명)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253개의 중복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선교핸드북 1994, 1-2). 이는 즉 전체 한국 선교사의 7.7%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중복율을 탈락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14단위(185×7.7÷100)를 총계에서 빼어야 한다.

선교회 소속을 옮긴 경우는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데, 그것은 선교사 탈락방지에 관한 이번 설문지에는 이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락 사례의 10%(18단위) 정도의 선교사가 소속 선교회를 옮긴 경우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9] 따라서 199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기간의 선교사 탈락 사례의 총수

7) 이 연평균 성장률은 1994년에서 1995년에 걸친 2년간의 성장률 34.5%(1,130/3,272×100)에서 나온 것이다.

8) 독신 선교사는 전체 한국 선교사의 20.0%(656/3,272×10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규 선교사 1,219명 중 243명이 독신이고, 나머지 976명(488쌍)이 기혼자인 것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따라서 3년간 증가한 선교단위는 731이 된다.

9) 이것은 필자가 한국선교핸드북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들과 요소들을 종합해서 내린 주관적인 추정치이다.

는 153단위(185-14-18)가 된다. 즉, 이 기간 동안 833명(731+153-51)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나, 중도에 포기한 선교사들의 숫자를 제하면, 순수 증가는 731단위가 된다.[10]

선교사 탈락의 요인들 가운데 방지가능한 것들과 불가피한 것들에 대한 응답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손실은 34.1%(72/211×100)이며, 방지가능한 손실은 101경우(153×65.9/10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교사 탈락 문제를 면밀히 검토했을 때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첫째, 1992년에서 1994년 사이에 대략 833단위(가정과 독신)가 선교지로 떠났다. 둘째로, 같은 기간에 153가정/독신이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셋째, 약 101단위가 방지가능한 이유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였다. 이것은 각 선교회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4가정이나 독신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833단위 가운데서 153단위의 탈락율은 18.4%인데, 이것은 1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면, 그 중 18명은 임기 이전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18명 중 12명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년간 선교사 탈락을 65단위로 볼 때,[11] 1994년의 추정 탈락율은 3.6%가 된다.[12]

증가하는 추세

한국 선교운동의 한가지 어두운 면은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임기 이전에 돌아온다는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선교회들이 선교사 탈락 사례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1992년에는 23.4%의 한국 선교회들이 선교사 탈락 사례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1993년에 42.9%로, 1994년에 43.7%로 증가하였다. 199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기간을 합하여 37개의 선교회들(응답한 선교회의 58.7%)이 적어도 한번의 (방지가능한

표 8-8 독신 선교사들의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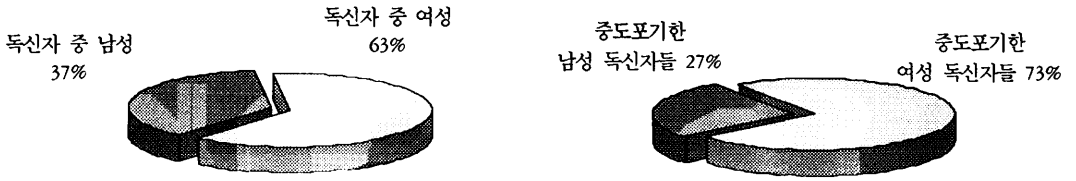


표 8-9 여성 독신 선교사들의 탈락

10) 이 수치는 이 기간 중에 102단위가 파송되었고, 그 이전에 파송된 사람들 중에 51단위가 중도 귀국한 것으로 본 것이다.

11) 1994년의 년간 선교사역을 포기한 경우는 79/185×153, 즉 65.3이다.

12) 년간 탈락율은 탈락 선교사 총수를 전체 선교사 총수로 나눈 수치를 100으로 나눈 값, 즉 65단위/3,272×100=117명/3,272×100=3.6%이다.

혹은 불가피한) 탈락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선교사 탈락율은 결혼한 부부보다는 독신 선교사들 사이에서 더 높았다(표 8-8 참조). 독신 선교사들의 탈락 사례는 전체 포기 선교사들의 45.9%(78/170×100)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 점은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독신 남성 선교사들보다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표 8-9). 한국 독신 선교사들 중 63.3%(415/656×100)가 여성인데 반해, 탈락한 독신 선교사들 가운데 73.1%(57/78×100)가 여성이다. 여성 독신 선교사들 가운데서 탈락율이 높은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결혼에 대한 부모들의 압력인데, 이는 종종 선교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사례를 만들어낸다.[13]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회들은 독신 선교사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선교단체들이 소규모 선교회들보다 수적으로는 더 많은 탈락 사례들을 경험했다. 이것은 선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할수록 전문적인 관리 기법과 능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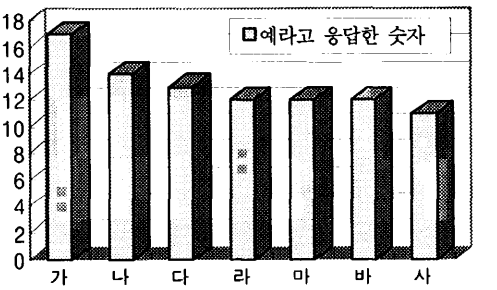
선교사 탈락율은 국제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국내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보다 더 낮았다. 한국 선교사들 중 12%가 국제단체 소속인 반면 (한국선교핸드북 1994, 7), 국제단체 소속 선교사들의 경우 전체 탈락 사례의 7.9%에 지나지 않았다.[14] 여기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었다는 한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단체들의 경우 선교사 심사 과정을 (먼저 본국 선교부에서 하고, 나중에 국제 본부에서 다시 하는) 두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체계적인 파송 전 훈련, 전문적인 선교사 관리 등이 현지 문화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의 영어 문화에 동시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선교사 탈락의 원인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의 또 다른 초점은 선교사 탈락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탈락의 원인에 대한 선교회 책임자들의 견해를 먼저 검토했다. 그런 다음, 선교지를 떠나는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교회 책임자들이 보는 원인

이번 설문지는 응답자들에게 선교사 탈락의 원인이 되는 26가지 항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곱 항목을 선택하고, 그 일곱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라고 요청했다.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으로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건강 문제, 역할 변경, 소명감의 결여, 본국 후원 부족, 소속 선교회와의 의견 충돌, 문화적 적응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표 8-10).



가.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나. 건강 문제
다. 역할 변경
라. 소명감의 결여
마. 본국 후원 부족
바. 소속 선교회와의 의견 충돌
사. 문화적 적응력 부족

표 8-10 가장 심각한 선교사 탈락의 원인

13)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데에는 로이스 매키니 박사(Dr. Lois McKinney)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녀가 처음 물었고,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생각해본 결과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매키니 박사는 그 외에도 자료를 해석하고 보고서를 다듬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다.

14) 국제 단체와 자생 단체의 선교사 탈락율을 비교한 것은 1996년 4월 영국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에서 개최된 선교사 탈락 방지에 대한 회의에서 그렉 리빙스턴 박사(Greg Livingstone)의 질문과 제안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이 일곱 가지 원인들 가운데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료 선교사들 간 갈등의 가장 흔한 예는 선임 선교사와 신임 선교사 간의 갈등이다. 선교지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선임 선교사는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더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쉬운 반면, 신임 선교사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문화의 집단성과 세대 차이로 인해 관계 설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쉬운데, 건전한 지도력 아래서 함께 일하려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다.

다음으로 "건강 문제"가 한국 선교사 탈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원인은 한국인의 과업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 점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건강 문제의 근원에는 선교에 헌신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건강이 나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즉 소명을 현실 여건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선교회들은 선교사 선발 과정에서 서양 선교회만큼 건강 문제에 관심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휴가를 보내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 문제는 일과 휴식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할 변경," "소명감의 결여," "본국 후원의 부족" 등의 원인은 선교사 선발 절차 상의 문제들을 반영한다. 한국인은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선발하는 집단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다분히 감정적인 경향이 있어 보인다. 선교의 열정은 한국인의 장점임에 분명하지만, 선교사를 신중하게 선발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속 선교회와의 의견 충돌" 역시 한국 선교사들의 관계의 기술 면에서 잠재적인 약점을 암시한다. 이 점은 다시 타문화 사역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먼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문화적 적응력 부족"은 단일 문화권이자 단일 언어권에서 자란 한국인들의 잠재적인 약점을 극명하게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 선교사 탈락의 원인은 일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실은 선교 책임자들 혹은 행정가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적 원인

표 8-11은 선교사 탈락의 원인들을 세분화한 것이다. 설문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72건의 탈락 사례(34.1%)가 정상적인 은퇴, 정치적 위기, 사역 중 사망, 선교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 역할 변경 등 불가피한 원인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15]

"타선교회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로 응답되기도 했다. "선교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방지 가능한 탈락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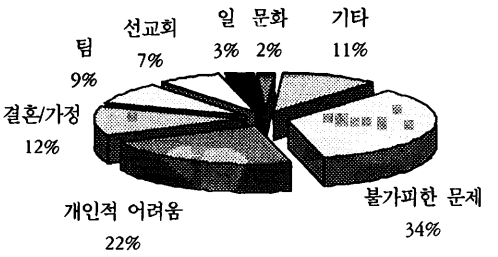


표 8-11 탈락의 실제적 원인

15) 이번 설문지의 문항 중 실제적인 탈락의 원인들에 대해 답하면서 어떤 응답자들은 부부를 두 단위로 계산해서 답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의 조사에서는 부부를 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나, 일부 다른 방식으로 답한 경우가 있어서 조사의 신뢰도를 약화시킨 면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개별 선교회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동원해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부정확한 답변을 상당 부분 교정하였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미성숙한 영적 생활, 건강의 문제, 헌신의 부족, 개인적 염려, 소명감의 결여, 부도덕한 생활 양식,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현지 지도자들과의 갈등 등이 있다. 선교 행정가들이 해당 단체에 대해 보고한 것을 종합해 보면, 탈락의 21.8%(46/211×100)가 이러한 영역에서의 약점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혼과 가정의 문제" 또한 탈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11.8%=25/211×100). 만약 독신 선교사들이 선교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를 이 범주에 넣는다면, 결혼과 가정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탈락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팀 내부의 어려움(9.0%=19/211×100)과 선교회의 문제(6.6%=14/211×100)들은 문제의 핵심이 일과 관련되거나(3.3%) 문화적인 어려움 때문(1.9%)이라기보다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재확인해 준다.

이상을 요약하면, 적어도 49.2%의 탈락 사례는 개인의 내적인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포함해서 관계의 문제이지, 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불가피하다고 분류된 여러 경우 중에서 사실상 방지가능한 사례들이 많다고 볼 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을 포기한 비율은 더 높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분석은 앞서 선교 책임자들의 견해에서 드러난 것과 일치한다.

선교 정책

선교사 탈락은 선교회가 선교사들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의지는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실제적인 투자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좋은 의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교회의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교사 관리를 위한 한국 선교회들의 재정적인 투자

재정적인 투자 비율 %	선교회 수	선교회의 비율 %	누적 비율 %
0	12	18.8	18.8
<1	2	3.1	21.9
1-5	7	10.9	32.8
6-10	10	15.6	48.4
11-20	8	12.5	60.9
21-30	2	3.1	64.0
>30	23	36.0	100.0
계	64	100.0	
유효 케이스 64, 무효 케이스 0			

출처: 한국선교핸드북(1996)

표 8-12

선교회의 투자

한국의 선교단체들은 선교사를 돌보는데 재정적인,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표 8-12는 36%(23/64×100)나 되는 선교회들이 재정 지출의 30% 이상을 선교사를 돌보는데 투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선교회들의 응답은 재정에 비해서 시간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표 8-13 참조). 그 시간의 30% 이상을 선교사를 관리하는데 투자하는 선교회는 없으며, 19단체(29.7%)만이 시

선교사 관리를 위한 한국 선교회들의 시간 투자

시간 투자 비율 %	선교회 수	선교회의 비율 %	누적 비율 %
0	12	18.8	18.8
<1	7	10.9	29.7
1-5	10	15.6	45.3
6-10	10	15.6	60.9
11-20	6	9.4	70.3
21-30	19	29.7	100.0
계	64	100.0	
유효 케이스 64, 무효 케이스 0			

출처: 한국선교핸드북(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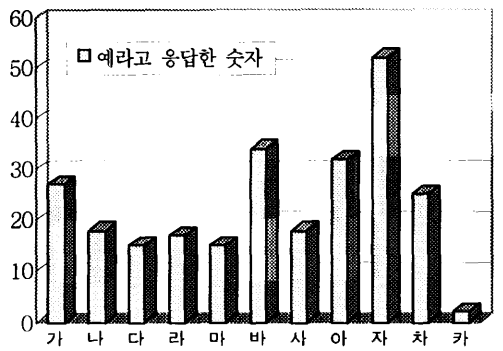
표 8-13

간의 20% 이상을 선교사를 돌보고 관리하는데 쓴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어떤 선교회들은 업무 시간의 1% 이하를 선교사를 돌보는데 쓰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선교회들은 그 회원 선교사들을 돌보려고 돈과 시간을 쓸 의지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다.

선교 정책의 문제

한국 선교회들이 선교사를 돌보고 관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 탈락 문제의 개선책을 정책 수립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14가 보여 주듯이, 대부분의 선교회들이(82.5%=52/64×100)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전화나 편지를 통해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선교회들(54.0%)이 일년에 한번 이상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후원 조직을 운영(52.4%)하고 있다. 선교지 지도자에 의한 감독 체제는 42.9%의 선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 현지 지도자의 감독
나. 목양
다. 업무분장서 작성
라. 현장 훈련
마. 연차 휴가
바. 연도별 방문
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 재정, 교사 지원
아. 후원 팀
자. 전화나 편지
차. 지역/국가별 수련회
카. 기타

표 8-14 선교사 관리의 수단

반면에, 한국 선교회들은 상세한 업무 분장서나, 연차 휴가(각각 23.8%), 사전에 계획된 현장 훈련(25.4%), 현지 상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한 목양(27%),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 재정, 교사 지원(27.4%), 선교사들을 위한 지역별/국별 수련회(39.6%)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선교 훈련의 유형

대부분의 한국 선교회들은 현지 사역을 하기 이전에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이나 전문분야의 훈련(62.5%), 타문화 오리엔테이션(57.8%), 선교회 자체 선교학 과정(51.6%) 등 공식/정규 교육이 비공식교육에 입각한 선교 훈련(39.1%), 비정규 선교학 과정(32.8%), 단기 타문화 경험(29.7%)보다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 보여 준다. 선교 교육의 비공식적, 비형식적인 면들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 선발 절차

선교회 책임자들이 파송 전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의 자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 이유는 선교사 훈련 훨씬 이전에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16] 단기간의 훈련으로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종종 훈련 자체보다 선발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선교사 선발 과정은 한국 선교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보인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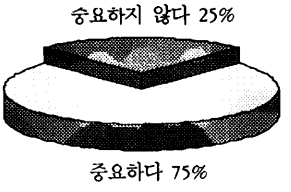
16)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필자는 (사)한국해외선교회 성경번역선교부(G.B.T.) 공동대표인 김동화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았다. 한국 선교 운동의 질적인 관리를 위한 그의 통찰력이 필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한 선교회의 63.5%(40/63×100)가 선교사 선발 과정에서 심리 혹은 인성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선교사 연령 제한이나 자녀들의 숫자 제한 등이 58.7%의 선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46.0%의 선교회들이 의사소통과 관계의 기술을 검토하지 않았다. 지도력과 목회적 기술, 그리고 결혼 여부도 44.4%의 단체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교회 사역 경험도 41.3%의 선교회들의 경우 요구되지 않았다. 선교사 선발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다른 한가지 사실은 39.7%나 되는 선교회들이 참고인 의견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다수의 한국 선교회에서는 질적인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홀히 된 관리 요소

선교사 관리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설문에서 25.0%의 선교회들이 가족이나 배우자의 후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25.0%는 "친구, 교회, 동역자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8-15 참조).

가족이나 배우자의 후원



친구, 교회 동역자들과의 정기적인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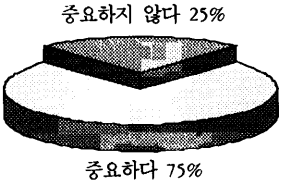


표 8-15 가장 소홀히 된 요소

결론

모든 선교사가 끝까지 선교지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파송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탈락을 방지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선교 인력들이 선교지에서 최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선교사 탈락 사례들과 원인들을 분석해보았을 때, 선교 정책면에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선교회는 여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결혼 상태와 성별.** 선교회들은 결혼 상태나 성별에 따른 선교사 탈락을 줄여야 한다. 독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기회들을 선용해야 한다. 특별히 독신 여성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데 더욱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의사소통 기술.**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관계 면에서의 문제가 더 많다는 사실은, 타문화 사역능력보다 대인관계의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 둘은 긴밀한 관련이 있다.

3. **결혼과 가정의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역에 대한 헌신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잘못된 문화적 인식을 수정하여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 잡힌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선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4. **현지 관리.**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돌봄과 관리 체제가 있어야 한다. 선임 선교사와 신임 선교사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업무분장서와 현장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별

선교사 수련회도 선교회 차원에서, 또 연합적으로 실속있게 개최할 필요가 있다.

5. **교육.** 공식적인 신학 교육보다는 비공식, 비형식적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의 단일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타문화 경험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선발.** 보다 더 정밀한 검사 방법이 개발되어 선발 절차에 활용되어야 한다. 참고인 의견서, 심리 및 인성 검사, 의사 소통 유형 검사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질적 관리.** 무엇보다도 선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식과 가치관이 재고되어야 한다. 교회와 선교회 모두 선교 사역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 탈락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 모든 선교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일생에 걸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 4:7-8). 놀라운 것은 이 영광스런 약속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딤후 4:8)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참고문헌

Johnstone, P. (1993). *Operation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세계기도정보」 서울: 죠이선교회

문상철. (1994). 「한국선교사들은 누구인가?」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편. 한국선교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문상철. (1996). 「한국 선교의 현황과 과제」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편. 한국선교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1994). 「한국선교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1996). 「한국선교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문상철은 1962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부인 유희주와의 사이에 딸 조은, 아들 남은을 두고 있다. 문목사는 1990년 이래 (사) 한국해외선교회(G.M.F.)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R.I.M.)의 실장으로 일해왔다. 그의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한국 선교운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며, 1990년 이후 한국선교핸드북을 편집해왔다. 이 글을 쓸 당시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 디어필드 소재 트리니티 국제 대학(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선교연구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는 WEF 선교분과 위원회의 협동위원이기도 하다.

9

브라질 선교사: 그들은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테드 림픽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다. 개신교회들이 단순히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패트릭 존스턴(1993)은 그 교회들의 성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는 개신교인들의 수가 북미와 유럽지역보다 이들 비서구지역 안에 더 많을 정도가 되었다고 확언한다.

또한 크게 기대되고 있는 바는 이러한 과거 선교 대상 지역들이 실로 중요한 선교 역군으로 탈바꿈하게 되리라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 전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통적인 서구출신의 타문화 사역자들의 대열에 가세하도록 하고 있다. 래리 키즈는 이러한 "제3의 물결"에 대해 1983년에 처음으로 언급했었다.

라틴 아메리카 경우에 있어서는, 선교가 1987년에 그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에 COMIBAM (Congreso Misionero Ibero-Americano:이베로 아메리카 선교대회)이라 불리우는 남미 전대륙을 망라한 선교대회가 3,000명의 라틴계 사람들을 브라질의 싸웅 빠울루로 모이게 했던 것이다. 엿새동안 참석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에 관하여 꿈을 꾸고, 토론하며 전략을 세웠다.

COMIBAM 대회 이래로 라틴인들의 선교 사업은 얼마나 잘 진행되어 왔는가? 이제 그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이것은 시기적절한 질문처럼 보인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실제로 파송되어 나갔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얼마 동안이나 그들이 선교지에 머물러 있는가?

브라질 선교운동

배경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위한 자료가 모아져서 멕시코의 아까뿔꼬(Acapulco)에서 열린 제2회 COMIBAM '97 선교대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우리는 브라질에 관한 의미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1]

---

1) 이 장에서 제시되는 통계 숫자들이 다른 장들에서 주어진 것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피터 브릴리에 의해 계산된(제6장) 자료들은 처음 검토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2)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조나단 루이스(제7장)는 작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질문들을 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자료들을 검토했다. (3) 각 국가별 사례연구에 있어서 어떤 통계치들은 새로운 관찰과 숫자를 읽는 방법들을 반영한다.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브라질 선교사의 숫자*						
	1989	1990	1992	1993	1994	1995
활동 중	856	945	1,192	1,213	1,500	1,640
안식년 중	24	20	34	54	115	124
전체	880	965	1,226	1,267	1,615	1,764
* 브라질 선교사에 대한 1991년 자료는 구하지 못하였다.						

표 9-1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인구면에서 보면, 남아메리카의 다른 모든 국가들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이라는 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은 브라질의 언어인 포르투갈어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된다는 이상한 사실을 만들어낸다.

세계에서 가장 큰 로마 카톨릭 국가인 이 나라에서 개신교회의 성장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현재 브라질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전 인구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1985년의 10%에서부터) 인구 증가율의 2배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 브라질 안에서는 신생아가 한 명 태어나는 동안, 두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예수 믿어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선교사들은 얼마나 되는가?

1989년 이래 타문화권을 섬기는 선교사들의 숫자 (브라질 안과 밖을 합하여)는 880명(1989)에서 1,764명(1995)으로 늘어났다(표 9-1을 보라). 이것은 매해 평균 9%씩 선교사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몇가지 정의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브라질에서는 "선교사"라는 말이 "타문화권"에서 사역한다는 의미를 반드시 내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전임 사역자들, 특히 목사들이 "선교사"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위의 숫자는 단지 타문화 사역을 하는 브라질 선교사들만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표에서 관찰될 수 있는 다른 사항은 1994년과 1995년의 선교사 숫자 증가가 그 이전 다른 해들보다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인데 - 매해 거의 20% 정도씩 증가한 것이다! - 이는 보다 안정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4년 이전의 월평균 인플레이션은 30%였는데 반해 1994년부터는 월평균 인플레이션이 2~3%로 떨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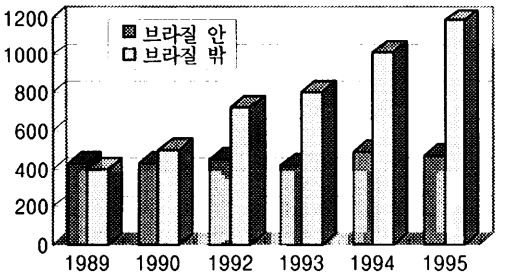
브라질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들의 명단을 한번 보기만 해도(표 9-2) 우리는 브라질 선교 양상에 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 대부분의 브라질 선교사들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명단에 나타난 나라들 대부분의 언어적, 지리적 근접성은 이해가 되는 사안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는 보다 안전하고 친숙한 상황에서부터 "발을 들여놓기"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브라질 선교사가 가장 많이 사역하고 있는 15개 국가	
나 라	선교사 숫자
브라질 (인디안 부족들)	463
포르투갈	104
파라과이	82
모잠비크	78
아르헨티나	66
볼리비아	66
미국	59
에쿠아도르	51
우루과이	47
기니 비사우	45
앙골라	40
스페인	37
영국	34
페루	33
칠레	29

표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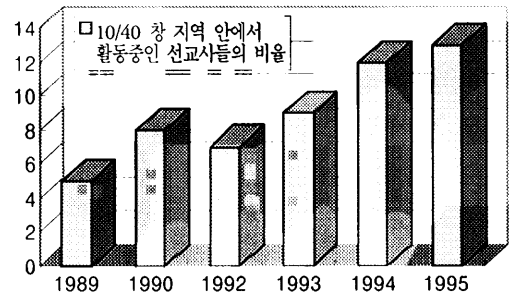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두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1989년 이래로 일어났다. 첫번째 것은 브라질 밖에서 사역하는 브라질 선교사들의 숫자와 관련된 것이다. 1989년에는 브라질 안에서 사역하는 타문화권 선교사들이 밖에서 사역하는 숫자보다 많았다. 브라질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주로 브라질의 237개 다른 인디안 부족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사역자들이 브라질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사역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 내에서 타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사들의 숫자는 거의 일정하게 머물고 있다. 성장이 없었던 것이다(표 9-3을 보라)!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테드 컴픽(OC Intl./SEPAL), 1995

표 9-3 브라질 안과 밖에서 사역하는 브라질 선교사의 숫자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테드 컴픽(OC Intl./SEPAL),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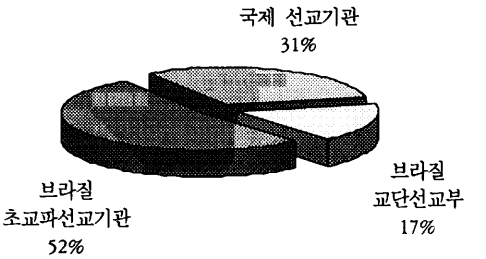
표 9-4 브라질 선교사와 10/40창 지역

두번째는 브라질 밖에서 사역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사들의 사역 장소와 관련된 변화이다. 최근 몇년동안 이슬람, 힌두, 불교권을 포함하는 저항적인 지역인 "10/40창"에 대한 브라질의 관심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1989년에는 단지 전체 브라질 선교사(브라질 내에서 사역하는 타문화 선교사를 포함해서)의 5%만이 10/40창 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 9-4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95년에는 그 비율이 13%로 늘었던 것이다. 더욱 많은 브라질 선교부들이 그들의 일꾼들을 이러한 매우 저항적인 지역에 파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선교사 탈락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사항이 될 것이다.

누가 그들을 보내고 있는가?

비록 많은 국제 선교단체들이 브라질에 지부를 세웠고 그들이 브라질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지만(예: YWAM, OM, WEC), 그 숫자는 전체 선교기관 숫자의 31%에 불과하다. 나머지 69%는 교단 혹은 비교단적인 브라질 선교기관들이다(표 9-5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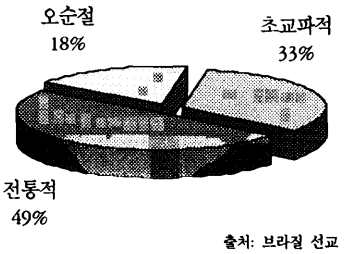
선교사들 숫자를 볼 때도 거의 같은 내역을 발견하게 된다. 단지 30%만이 국제 선교기관들에 의해 파송되었고 그 나머지는 브라질 선교기관에 의해 파송되고 있다.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테드 컴픽(OC Intl./SEPAL), 1995

표 9-5 브라질의 선교사 파송 기관: 타문화권 사역을 위해 브라질 사람을 파송하고 있는 단체의 유형

브라질 파송 선교단체들의 신학적 입장은 브라질 개신교의 강력한 오순절적 성향과 비교해 볼 때 재미있다. 브라질 개신교인의 적어도 70%가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18%의 브라질 선교사들만이 오순절 계통의 선교단체나 교단선교부에 의해 파송되었고, 대다수는 전통적 교단이나 초교파적인 기관을 통해 파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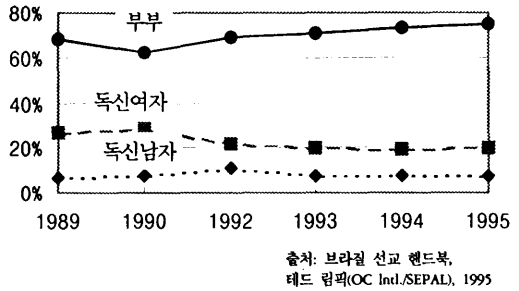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데드 럼픽(OC Intl./SEPAL), 1995

표 9-6 브라질 선교사: 파송단체의 신학적 입장

부부인가, 독신인가?

배우자의 유무가 선교사 탈락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쟁점이 될 수 있을까? 만일 독신이 브라질 선교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많은 숫자의 독신들이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선교지를 떠나려는 마음을 갖게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9-7이 보여 주다시피, 70% 이상의 브라질 선교사들이 결혼을 하였고, 지난 수년간 그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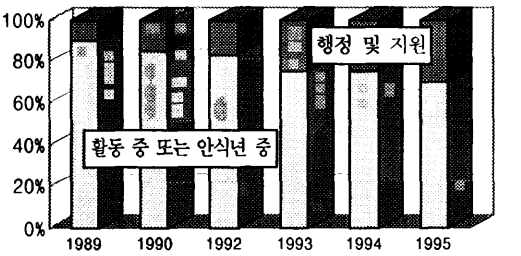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데드 럼픽(OC Intl./SEPAL), 1995

표 9-7 브라질 선교사: 배우자의 유무

누가 본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지난 몇년간 브라질 선교의 추세 중 하나는 지원이나 행정을 위한 브라질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몇 년 동안은 "현장 뒤에서" 일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1989년으로 돌아가 보면, 전체 브라질 선교단체 자원의 단지 9%만이 행정이나 지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5년에는 그 비율이 거의 3배가 되었다(표 9-8을 보라)! 브라질 선교 운동이 성숙해질수록, 재정을 세부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과 선교사들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목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데드 럼픽(OC Intl./SEPAL),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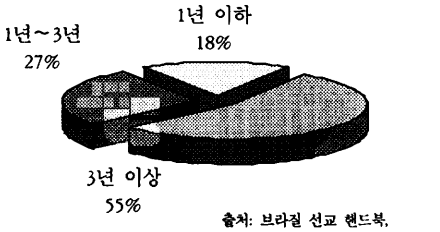
표 9-8 브라질 선교사: 활동 중이거나 안식년 중인 선교사 대 행정 및 지원 사역자 숫자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가?

세계복음주의 협의회(WEF)의 후원 하에 1995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선교사 탈락에 관한 특별한 조사는 브라질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현장에 "머무는 햇수"와 관련된 유일한 자료로서, 우리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핸드북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그 정보는 특별히 염려해야 할 아무런 사실도 보여주지 않았다.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OM, YWAM과 함께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브라질 선교사들(55%)은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

지에 3년 이상 머물러 있다.

표 9-9에서 보여지는 비율들은 1995년 것인데 그 전 3년간을 통하여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여 주었다. 3년 이상 선교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만일 단기 선교사들을 제외한다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태드 림픽(OC Intl./SEPAL), 1995

표 9-9 브라질 선교사: 선교 현지에서의 사역 기간

브라질 선교사의 탈락에 관한 쟁점

1990년대 초기에 브라질 안에서는 낙관적 선교 열풍이 매우 높게 불고 있었다. 대륙만한 규모를 가진 이 나라 전체에 퍼져있는 교회들은 선교 대회를 빈번하게 개최했고, 기독교 문서들은 전세계의 미전도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새로운 선교기관들이 탄생했고 새로운 사역지들, 특히 보다 저항적인 지역들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높았다. 그리고 초창기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선교의 불이 타오르도록 연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충격적인 통계자료

그런데 갑자기 한 보고서가 브라질 선교기관 지도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 보고서는 브라질 선교사들이 "탈영병들"과 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신속하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런 "연구"의 출처를 확인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용되었던 숫자들은 더 과장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1993년 10월 까샴부(Caxambu)에서 열렸던 브라질 전국 선교대회 본회의에서조차 인용되었던 것이다.

비록 확인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숫자들은 우리를 으시시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브라질 선교사들 4명 중 3명이 선교지에서 5년을 마치기 전에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5,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된다면 5년 뒤에는 단지 1,000명만이 현장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탈락율로 따진다면, 5년 동안 75%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매년으로 따진다면 15%가 되는 것이다. 결코 기분 좋은 통계가 아니었다!

당연히 그러한 숫자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도대체 그 "연구"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 왜 이것이 브라질 선교핸드북의 숫자들과는 맞지 않는가? 단기선교사들이나 여름 선교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 그러한 사역자들이 실제로 선교지를 "포기"한 것이 아님에도 부적절하게 계산에 포함된 것인가?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연구가 필요했다.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때마침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선교위원회가 선교사 탈락에 관한 전세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려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1995년 2월, 브라질은 한국, 나이지리아, 가나,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인도, 필리핀, 싱가폴과 뒤늦게 참여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선교사들의 탈락에 관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방지하기 위한 선교사 탈락 방지 공동 연구에 참여하였다.

탈락(attrition)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역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탈락의 몇가지 요인들, 가령 정치적 소요나 사역도중 죽는 것, 혹은 정상적인 은퇴 등은 분명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탈

락"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내포할 것이다. (1) 선교사의 결혼이나 가정생활, (2) 선교사 파송기관, (3) 선교사 자신의 개인생활, (4) 선교지 문화 또는 언어 적응, (5) 선교사의 실제 사역.

런던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조사에 필요한 양식이 작성되었다. 그것은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었고, 24개 브라질 선교사 파송 기관 - 7개의 교단 선교부, 9개의 비교단 선교부, 8개의 국제선교단체(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다) - 이 응답하였다.

응답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들은 각 선교기관을 직접 방문했다. 비록 각 선교기관들이 우편으로 질문들을 이미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방문을 통하여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각 기관들의 협조에 대해 감사한다는 뜻을 표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우리는 많은 선교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쟁점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각 기관 인터뷰는 조사 양식에 나타난 질문들을 단순히 하나씩 해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오해들을 피할 수 있었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표준적인 정의들을 사용함으로 정말로 "사과와 사과를 비교"(동일한 기준을 모든 기관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 - 역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조사과정이 지니고 있는 두가지 근본적인 취약점에 대하여 깨닫고 있었다. 첫번째 약점은, 조사의 주요 초점이 선교사들보다는 "파송기관"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에도 언제든지 두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 밖에 없음을 인식했다. 두번째 약점은, 브라질 선교기관들 중 자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없었는데, 특히 왜 자신들 기관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나 그 기관을 떠나는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랬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조사가 많은 기관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들을 보관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각 기관마다 조사가 완성되면 그 사본들이 영국으로 보내졌는데, 거기서 세계적인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 도표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한 전 세계적인 통계가 제6장에 피터 브릴리에 의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아래에 나타난 결과들은 브릴리의 통계와 대동소이한데 약간 다른 것들은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된 두개의 자료에 기인한다. 우리는 그 마지막 조사자료들까지 여기에서는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1. 실제 탈락율

우리가 조사한 브라질 선교기관들의 실제 선교사 탈락율은 매년 7%였다. 비록 좋은 소식은 못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숫자보다는 낮은 것이었고, 다른 많은 파송국가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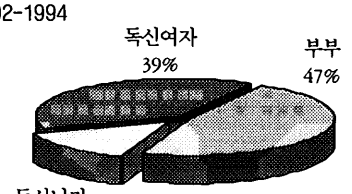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결혼유무에 따른 분석이었다(표 9-10을 보라). 위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전체 브라질 선교사들은 결혼한 부부가 70%, 독신 여성이 20%, 독신 남성이 10%로 분류된다. 선교사 탈락에 있어서는 그 내역이 부부가 47%, 독신 여성이 39%, 독신 남성이 14%였다. 비율로 따지자면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독신 여성 선교사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2. 탈락의 가장 큰 원인

브라질 선교기관들은 "재정후원의 부족"을 선교사 탈락의 가장 큰 단일 원인으로 꼽았다. 이 나라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걸쳐 경제적 불안정과 월평균

분류 1992-1994

탈락 1992-1994



출처: 브라질 선교 핸드북, 테드 캠픽(OC Intl./SEPAL), 1995

표 9-10 브라질 선교사: 배우자의 유무와 탈락율

40%에서 5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탈락율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것이다. (보통 파송국가 교회들로서는 그들의 해외 사역자들이 선교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단지 똑같은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매월 50%씩 선교사 재정을 올려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브라질 선교사의 탈락을 부추기는 다른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되었다.

- ◆ 헌신의 부족
- ◆ 동료들과의 갈등
- ◆ 부적절한 훈련
- ◆ 자존감의 결여, 스트레스 등 개인적인 문제들
- ◆ 결혼

3. 다른 문제

우리는 재정후원 밖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주요한 문제 영역들이 기술적인 것보다는 인격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에 있어 세번째 질문은 선교기관들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자신의 기관을 떠난 선교사들의 숫자와 그러한 사임 또는 해직을 유발했던 원인들을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부들에게 단순히 그들의 느낌에 대해 질문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들을 수집했다.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다 모아 분류하자 표 9-1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첫번째로 주요한 문제 영역이 "개인적"이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선교사 자신의 인격(또는 건강)과 관련된 이유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견은 언어습득이나 또는 문화적응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인격 개발보다 더 강

브라질 선교사가 선교를 포기하는 이유		
분류	예	사임/해직된 비율
불가피한 이유	정상적인 은퇴, 정치적 소요, 사역 중 죽음, 선교사 아닌 사람과의 결혼, 직업을 바꿈	16
결혼/가정	아이들, 노부모, 결혼/가족 갈등	4
선교기관	본부 지원, 파송기관과 불화, 신학적 이유	19
개인적인 이유	미성숙한 영적 생활, 건강 문제, 부적절한 헌신, 개인적 염려, 소명의 결여, 비도덕적 생활 습관	26
팀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 현지 지도자들과의 문제	5
문화적인 이유	문화 부적응, 언어습득의 어려움	3
사역과 관련	선교회로부터 해임, 일에 대한 불만족, 불충분한 감독, 부적절한 훈련	10
기타		17

표 9-11

브라질 선교 기관의 크기	
장기 전임 사역자의 숫자	조사된 선교 기관의 숫자
1-10	9
11-25	29
26-50	22
51-100	22
101-200	9
201-500	9
>500	0

표 9-12

조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들의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중요한 암시를 준다. 우리는 또한 선교 사역에 앞선 인격 형성의 중요성과 지역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의 목양의 중요성도 역시 강조되었다.

4. 선교회 규모의 영향

단지 몇몇 브라질 선교기관들만이 201-500명의 선교사들을 회원으로 가진 대형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작은 규모다. 우리들이 조사한 선교 기관의 크기에 대한 분류가 표 9-12에 나타나 있다.

선교기관의 크기와 탈락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있는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브라질 선교기관들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탈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큰 기관이나 작은 기관이나 둘 다 비슷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은 기관들의 "가족적 분위기"도, 대형 기관들의 더 많은 자원들도 탈락을 막을 수 있는 자동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오래된 브라질 선교회

몇몇 브라질 파송기관들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다른 것들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어떤 단체들은 선교사의 선발이나 훈련, 그리고 목양에 있어 아주 잘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다.

탈락율을 선교회의 "연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륜이 있는 선교회들은 탈락율과 관련하여 문제가 적다. 따라서 선교단체들이 연륜이 쌓여 감에 따라 많은 것들을 배우는 듯이 보인다(표 9-13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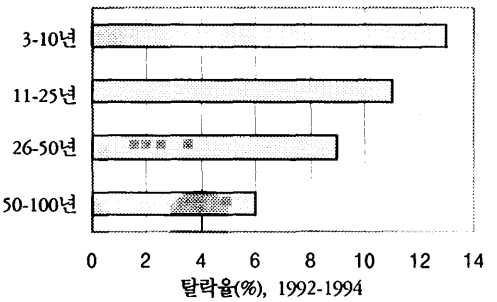


표 9-13 브라질 선교 기관: 선교회 연륜과 탈락율

6. 사역의 장소

대부분의 브라질 선교기관들은 그들의 선교사들을 탈락의 가능성이 높은 환경인 다른 나라, 다른 문화,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으로 파송하고 있다.

선교기관들은 자신들의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들에 대해 1부터 4까지로 유형을 분류하도록 요청받았다(자신들의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지역 유형이 숫자 1). 우리는 그들의 답변을 1부터 4까지의 등급에 따라 분류한 다음 1992-1994년 동안의 탈락율과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가 표 9-14에 나타나 있다.

문화적응과 언어습득에 대한 추가적인 도전들과 그리고 (상황 1의 경우에는) 본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요인 때문에 우리는 상황 1과 상황 2의 경우를 선교지에서의 손실이 잠재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했다. 사실,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선교부들의 실제 탈락율이 정말 더 높았다.

브라질 사역자들은 또한 미전도 종족이나 복음이

브라질 선교사가 처한 상황		
등급	상황에 대한 묘사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 비율
1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타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	35%
2	자국의 경계 안에 있지만 다른 문화를 가진 종족 그룹들을 대상으로 사역	25%
3	타국에 살지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	21%
4	자국의 경계 안에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	19%

표 9-14

적게 증거되거나 혹은 전혀 증거되지 않은 무교회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의 개척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역들은 어떤 이들에 의하면 역시 잠재적 탈락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복음적인 교회가 존재함으로 가질 수 있는 지원적 구조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7. 선교부의 지원 형태

브라질 선교기관들은 상당히 강력한 지원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고르지가 않았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대부분의 브라질 선교기관들이 자신들의 사역자들에게 계획적인 지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매우 놀랐다. 브라질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관계중심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결코 놀랄만한 사실은 아닐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얽혀 맺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선교기관들에게 그들의 선교사들을 위해 현재 어떤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얻었던 답변들 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표 9-15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취약한 두가지 영역은 계획된 현장 실습 훈련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

브라질 선교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 형태	
지원의 형태	선교부가 제공하는 비율
본부 사무실로부터 누군가가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방문	83.5%
본부로부터 분기별로 최소한 한번의 전화나 편지	83.5%
선교사들을 위한 지역별 수련회	83.5%
선교 현지체제 지도자를 통한 감독	75.0%
상세한 업무 설명	62.5%
연례 휴가를 위한 배려	62.5%
지원적인 팀 구조	62.5%
선교부 감독자 외의 사람들에 의한 목양	54.2%
계획된 현장 실습 훈련	29.2%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 재정 또는 교사 지원	29.2%
기타 다른 유형의 지원	37.5%

표 9-15

교 재정 또는 가정 교사들의 지원 영역이었다. 다른 영역들은 매우 적절하게 그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브라질 선교부들은 본부 사무실로부터 누군가가 선교지를 연례적으로 방문하고, 분기별로 전화나 편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지역별 수련회를 갖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을 이러한 영역들에 투자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다른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표 9-16을 보라).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브라질 선교 기관들은 그들 재정의 1%에서 5%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다. 시간을 투자하는 면에서 보면 다른 상황이 존재한다. 어떤 기관들은 그들의 시간의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요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목양"을 위한 가장 최상의 시간과 재정의 투자는 어떤 선일까? 그것은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더 많은

브라질 선교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시간과 재정		
시간과 재정 자원의 %	선교 기관이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 시간양의 %	선교 기관이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재정량의 %
<1	8.3	12.5
1-5	20.8	41.7
6-10	12.5	8.3
11-20	4.2	4.2
21-30	8.3	4.2
> 30	20.8	12.5
무응답	25.1	16.6

표 9-16

시간과 재정의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적게 탈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지원을 하면 보다 적은 탈락이 생긴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몇몇 브라질 선교 기관들이 여전히 가장 높은 탈락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어쩌면 뿌리깊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 기관들이 최근 시작한 진취적인 제안들 때문인지 모른다. 또는 그것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간" 또는 "얼마나 많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지원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교 기관들과의 개인적인 면담에 있어서 이 질문이 가장 답변을 듣기 어려웠던 것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이 이러한 영역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그들은 올바로 추측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8. 요구되는 선교사 훈련

본격적인 선교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장기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훈련의 유형에 대해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브라질 선교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단체 자체에서 실시하는 선교학 연구 과정(58%)
- 타문화 오리엔테이션(58%)
- 단기 타문화 경험(42%)
-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선교학 공부(42%)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형태의 선교사 훈련은 파송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코스이다. 조사된 24개 단체 중 오직 한 단체만이 선교학 연구의 학위 코스를 요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개의 단체가 훈련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9. 심사과정에 대한 쟁점

선교사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경우, 브라질 선교 기관들은 후보자의 개인 성품에 대한 참고인 서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술, 그리고 선교부의 교리적 선언에 대한 동의에 가장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표 9-17을 보라).

선교사 탈락에 있어 개인적인 문제들이 가장 빈번한 쟁점이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개인적 성품과 관련한 사항에 강조를 둔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강조 또한 합리적인데, 대부분의 브라질 선교사들이 복음적 교회들이 없거나 아니면 매우 약한 곳에서 개척사역을 하기 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목록에서 가장 최하위에 나타난 사항의 내용이다. 브라질 선교부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 브라질 선교기관들에 있어서 가장 적게 관심을 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선교 후보자의 가족 숫자와 나이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전에 가진 선교의 경험은 전에 가진 교회 사역의 경험보다 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안수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개인적인 소명을 교회나 교단의 특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브라질 선교기관에 의해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	
중점 사항	그 사항에 중점을 두는 브라질 선교기관의 비율
개인 성품에 대한 참고인 서류 (예: 후보자의 교회로부터)	87.5%
선교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진술	79.2%
선교부의 교리적 선언에 대한 동의	70.8%
후보자의 결혼이나 독신 상태에 대한 평가	66.7%
재정적 지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	62.5%
건강에 대한 평가	58.3%
의사소통 및 관계증진 기술에 대한 평가	54.2%
이전의 교회사역 경험	45.8%
지도력과 목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	37.5%
심리적 또는 인성 검사	29.2%
목사안수나 동등한 자격	29.2%
이전의 선교사역 경험	20.8%
나이 제한 또한 자녀 숫자	16.7%

표 9-17

심리 검사 또는 인성 검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검사가 브라질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뿐 아니라 개인 성품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10.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탈락을 방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브라질 선교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선교 기관보다는 개별적인 선교사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선교사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세가지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브라질 선교 기관들을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 선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 정규적인 감독, 목양 그리고 지원.
- 외부적인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이 믿기에 선교사 탈락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가장 덜 중요하다고 믿는 세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많이 나온 답변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 친구들, 파송 교회, 그리고 기도 동역자들과의 정규적인 접촉.
- 적절하고 정규적인 훈련의 제공
- 행정가 그리고 선교부와의 좋은 관계

한편으로는 브라질 선교 기관들이 정규적인 감독, 목양 그리고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고무적이지만, 이들이 개인적 소명이나 외부의 지원없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친구, 교회, 기도 동역자들과의 정규적인 접촉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에 매우 강한 중요성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브라질 선교기관 중 최저의 탈락율을 가진 단체들 중에서는 "외부적인 지원없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선교사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한 단체가 하나도 없었던 반면, 최고의 탈락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선교 기관들은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후자의 기관들은 선교사의 성공이 그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으로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돌린 반면 아마도 선교부의 책임은 최소화하고자 한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하나?

선교사 탈락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가 매년 수집했던 브라질 선교와 선교사들에 관한 자료와 연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미래를 위해 더욱 가치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위에 관찰된 사항들 외에도 어떤 실제적인 필요들이 분명히 드러났다.

1. **브라질 선교기관이 좀 더 나은 통계자료들을 보관하자.** 많은 선교기관들에 있어 이번 탈락에 관한 조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기관을 떠났나를 세어보기 위해 실제로 조사했던 첫번 경우였다. 많은 단체들이 좀 더 나은 기록을 유지하고, 나아가 선교사들이 탈락하도록 만드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기 원한다는 그들의 소원을 피력했다.

2. **선교사로부터 들어보자.** 우리가 사용했던 조사 양식은 오로지 선교 기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아마도 이제는 선교사 자신들로부터 들어야 할 시간인 것 같다.

3. **바뀌는 경향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질문을 해 보자.** 선교사 탈락율이 급증한 1993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일찍 선교지를 떠나는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그처럼 많은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찰력을 얻도록 할 것이다.

4. **지역교회에 보다 많은 관심의 초점을 맞추자.** 브라질 선교사의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단일 원인은 재정후원의 부족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인격 형성 및 영적 성숙과 관련된 문제로서 개인적인 것이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들"의 신실한 재정 후원이나 파송을 받는 선교사들의 인격적 형성은 직접적으로 지역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5.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자.** 브라질 선교운동은 이제 초창기이다. 그러므로 은퇴한 귀중한 선교사들이 거의 없다. 보다 많은 노련한 선교사들이 선교지로부터 성공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새로운 선교사들의 훈련에 더 깊은 통찰력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브라질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선교부들이 최소의 선교사 탈락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배워간다면 미래에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전조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Johnstone, P. (1993). *Operation World*. Grand Rapids, MI:Zondervan.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Keyes, L. E. (1983). *The last age of missions: A study of Third World missionary societies*. Pasadena, CA:William Carey.

테드 림픽(Ted Limpic)은 1985년 이래 브라질 OC International/Sepal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브라질 개신교회와 그 선교운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브라질로 가기 전 림픽은 캘리포니아 샌디애고에서 Youth for Christ라는 단체의 책임자로 8년간, 그 후에는 Forest Home Christian Conference Center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10년간 사역했다. 1971년 클라우디아와 결혼하였고 두 아들이 있다.

10

영국의 선교사 탈락

스탠리 데이비스

영국에서는 선교기관의 통계가 30년이 넘도록 수집되어서 출판되어 왔다. 표 10-1은 1996-97년판 「영국 크리스챤 핸드북」(UK Christian Handbook)으로부터 나온 숫자들을 취합한 것으로서 젊은 세대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허위임을 밝혀 주고 있다.

영국의 선교사, 1980-1995	
년도	선교사 숫자
1980	8,152
1982	8,225
1984	8,095
1986	7,935
1988	8,247
1991	8,058
1993	8,742
1995	8,907

표 10-1

1958년 그 시작부터 복음주의 선교사 동맹(EMA: Evangelical Missionary Alliance)은 영국 안에 있는 복음주의적 선교기관들에게 만남의 장(場)을 제공해 왔다. EMA는 현재 영국으로부터 파송된 전체 선교사의 거의 60%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다. 1996년, EMA 안에는 120개 선교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 56개는 영국인 선교사들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다른 회원 기관들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위한 재정 후원, 문서 사역, 장학 프로그램, 전문인 사역, 세계 기도 운동과 같은 다른 종류의 세계 선교를 위한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다.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에 있어서는 영국의 37개 선교기관이 탈락에 관한 질문에 응하였다. 이 응답한 숫자는 EMA에 소속된 기관의 단지 2/3에 해당될 뿐이지만, 참여한 기관의 대부분이 규모가 큰 기관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통계들은 EMA 회원 기관들로부터 파송된 전체 영국 선교사 숫자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것이다.[1]

1) 이 장에서 제시되는 통계 숫자들이 다른 장들에서 주어진 것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1) 피터 브릴리에 의한 계산(제6장)은 자료들을 처음 검토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2)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조나단 루이스(제7장)는 작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자료들을 검토했다. (3) 각 국가별 사례 연구에 있어서 어떤 통계치들은 새로운 관찰과 숫자를 읽는 다른 방법을 반영한다.

영국과 다른 기성 파송국가들과의 비교

중요한 4가지 이유

거의 모든 기성 파송 국가에게는 공통적인 4가지 탈락 이유가 있다. 정상적인 은퇴, 자녀들의 필요, 직업의 변화, 그리고 건강상 이유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사례에 있어 영국은 다른 기성 파송국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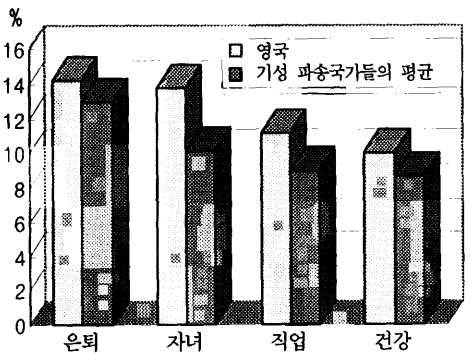


표 10-2 다른 기성 파송국가들과 비교해본 영국선교사 탈락의 주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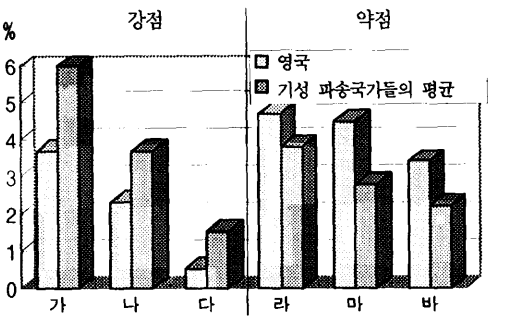
이 "중요한 네가지" 쟁점은 전체 영국 선교사 탈락의 49%를 차지한다(다른 기성 파송국가들의 평균 41%와 비교하라). 대조적으로 신생 파송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유로 인한 탈락이 단지 18%만을 차지할 뿐이다. 이처럼 그러한 이유들은 기성 파송국가에 있어서의 나이 많은 선교사들의 존재를 반영한다. 선교사 자녀들의 필요, 특히 교육문제는 아이들이 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로 가까이 갈수록 더 급박하게 된다. 건강 문제는 어떤 한 연령층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일상적이 된다. 은퇴야말로 노인의 몫으로 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영국의 특수한 강점과 도전

영국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성 파송국가들과 영국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표 10-3). 이러한 시도는 선교사 탈락을 줄이기 위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영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드러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영국이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 파송기관과의 불화,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훈련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선교사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 통계들은 영국이 사려 깊은 선교사 선발과정과 오리엔테이션, 구조적 개방성, 훈련의 제공,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영역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염려가 되는 것은 비교에 의해 영국이 나쁘게 나온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은 개선하기 위해 검토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다. 나이 많은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는 중요하며 아마도 모든 기성 파송국가들이 피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 현지 지도자들과의 문제, 그리고 직업을 바꾸는 것들은 서로 연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될 것이다.



가.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
나. 파송기관과의 불화
다. 부적절한 훈련
라. 연로한 부모들
마. 일에 대한 불만족
바. 현지 지도자들과의 문제

표 10-3 다른 기성 파송국가들과 비교한 영국 선교사 탈락 요소의 강점과 약점

행정 조직과 기능의 문제

케쓰 도노반과 루스 마이어스(제4장)는 베이비 부머 세대(baby boomer generation -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일과 평생 직업이 특별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OC International 선교회의 레이 샌포드에 의해 주도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될 때, 그들은 불만족을 곧바로 작업 환경의 문제로 돌린다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통제될 수 없는 요소들은 없다고 믿는 전문적인 작업 사회의 특징적인 가정을 가지고 일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예를 들면, 관리)을 기대함으로 해결하는데, 그것은 좀 더 나은 감독, 목양, 행정, 그리고 정책 결정을 의미한다. 만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면, 아예 환경을 바꾸는 것(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영국 안에서는 일에 관한 쟁점들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교사들의 목양을 전문사역으로 하는 Care for Mission에 의해 1996년 6월에 열렸던 수련회에서 여러 강사들은 행정가들에 대한 보다 나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들은 부적절한 조직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들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촉구했다.

이러한 필요에 응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 그룹이 People in Aid인데, 이 안에는 구제와 개발을 담당하는 옥스팜(Oxfam), 영국 적십자, 어린이 구제 기금 그리고 EMA의 회원인 TEAR 기금과 같은 영국의 주요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종의 토론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르완다와 자이레 안에 있는 고마(Goma) 난민 캠프 사역 경험의 결과로 People in Aid는 그들의 현장 직원들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최상의 실행 규약"(Code of Best Practice)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최상의 후원을 제공하는 것과 제한된 자원의 사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영국 선교사들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사역에 뛰어든다. 그들은 많은 일과 같은 외부적 압력에 의해 증폭되는 자신 내부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일을 용이하게 만들고 사역을 후원하게 될 절차와 과정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다. 해야 할 일에 대한 명시, 사역 평가 그리고 좋은 관리를 포함하는 보다 나은 감독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목양 또한 중요하다. 목양은 단순히 발등의 불을 끄는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므로, 선교사 인력들이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은 물론 개인적, 영적, 그리고 직업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탈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충돌

부머 세대(30-50세)와 버스터 세대(buster generation: 30세 이하 세대)에게는 나이든 부스터 세대(booster generation: 51세 이상 세대)의 특징인 희생 정신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필요와 권리에 대해 덜 관심을 둔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대부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사역에 있어 부머들의 개인적 효율성에 대한 관심은 역시 타당한 것이다. 우리는 나쁜 탈락뿐 아니라 좋은 탈락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외국 주재 선교사들의 경우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기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의존을 장기화하고 성장을 저해하며, 그들의 발전과 성숙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

도노반과 마이어스는 각 세대의 특질이 그들의 시

대에 선교사역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도록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핵심을 지적했다. 부스터의 희생 정신과 융통성은 그들이 수행했던 개척자적 사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부머들의 효율성과 개인 성장을 위한 직감은 현지 교회들과 동역을 해야하는 현재 상황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어진 일정 위치에 필요 이상 더 머무는 것을 막아준다. 기대되는 바는 사역자들이 효율적일 수 있는 동안만 머물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다른 사역 장소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동의가 있는 것이다.

많은 숫자의 영국 선교기관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스터들의 가치관이 그 단체의 문화와 기대치들, 그리고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선교회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나이든 지도자들이 그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로서는 선교기관 밖의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 곧 그 선교기관의 사역으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하는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부머들과 버스터들은 아마도 선교 "조직" 또는 "운동"의 일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같은 마음을 가진 개인들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을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그처럼 관계는 과업 지향적이다(특히 부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는 선교사 "회(會)"(society)에서 선교 "기관"(agency)으로의 용어 변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버스터들은 만일 그 의미가 지원과 관계에 초점이 있다면 선교회 "가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만일 그 용어가 일생을 둔 관계나 아니면 부스터들의 기준과 가치들에 순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가족"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득 담은 말이 될 것이다.

모든 탈락이 정말 탈락인가?

위에서 이러한 윤곽을 그린 목적은 어떤 탈락은 결코 탈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한 단체의 운영 방침에 의해서, 또는 그 행정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치들로 인해 탈락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을 바꾸는 것은 전혀 탈락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한 개인이나 부부가 사역의 다른 영역으로, 어쩌면 다른 기관과 함께 일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부스터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들이 그 선교회를 떠나는 것이므로 이것은 탈락이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는 쪽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사역의 새로운 활동무대로의 이동일 뿐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 쪽에서가 아니라 선교기관에 의해 대부분의 탈락이 설명되고 규정되므로 이러한 움직임은 탈락으로 분류되고 있다.

선교 사역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가, 사역을 위한 부르심의 의미, 사역이 완수되었다는 것, 사역관리, 그리고 목양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가끔 문제로 부상된다. 한 단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나이든 세대인 고참 관리자와 젊은 선교사 간의 이러한 차이들은 "진짜" 탈락의 증가와 탈락 양상의 팽창, 양쪽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대처

영국의 원숙한 선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EMA 이사회는 선교사 탈락과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쟁점들에 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노반과 마이어스에 의해 이루어진 분석이 변화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세대가 자기 세대와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세대간의 차이들을 인식해야만 하는 영역은 소명에 대한 이해, 목양과 사역 감독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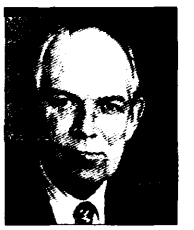
기대치, 지도력 및 관리의 형태, 그리고 조직의 정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한편 각 세대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유용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점점 더 반영시키도록, 각 영역을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희생적이고 거룩함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삶의 형태는 단순히 부스터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하지만 각 세대는 이러한 성경적 부르심을 다른 형태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는 선교사들의 탈락의 이유에 관하여 일차적으로는 선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과 돌아온 선교사들과 대화함으로 다른 시각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Action Partners의 인사담당 관리자인 수잔 찰머스는 글라스고우 성경학교 졸업생들로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돌아온 41명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마쳤다. 이 연구는 다른 학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졸업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열방기독교 대학(ANCC)의 부학장인 밥 헌트에 의해서도 그 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EMA 실무진들은 선교회 지도자들의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전직 선교사들의 관점이 조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EMA는 선교 교회 협의회(Churches Council on Mission:복음주의적 기관을 대표하는 EMA에 필적하는 에큐메니칼 기관의 협의체)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 그룹을 통해서도 선교사 탈락과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계속 조사할 것이다. EMA는 탈락한 선교사들의 경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과,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 사역에서 임기 이전에 돌아옴으로 그들이 겪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망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방법을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옛날 사고방식 안에 묶어 둘 수 없다. 미래에 있어 선교에의 헌신과 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여행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점점 더 산산조각 나고 있는 세상은 장기적인 헌신을 위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역사 속에 있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은 여전히 그분의 세상을 그분 자신과 화목케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 사역에 헌신하도록 계속적으로 초청할 것이다.



스탠리 데이비스(Stanley Davies)는 1939년 선교사 부모에 의해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가렛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선교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그는 전문 지도제작자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그의 직업상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 데이비스는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와 함께 케냐에서 1965-1980년 사이에 일했다. 1980-1983년 기간 중에는 Moorlands College의 선교학과 과장을 역임했다.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선교분과 위원 중 한사람이며, 1983년부터 영국복음주의 선교사 동맹(EMA)의 총무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TEAR 기금 및 유럽 복음주의 선교사 동맹의 총무이기도 하다.

11

가나의 선교사 탈락

세쓰 아뇨미

가나 복음주의 선교기관 협의회(GEMA: Ghana Evangelical Missions Association)는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떠나게 만드는 특수한 이유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의 책임을 맡았다. 가나는 WEF 선교 위원회의 프로젝트인 선교사 탈락 방지의 한 사례 연구 대상국가로 지정되었다. 이 과제가 GEMA의 총무인 에드워드 악톤의 지도하에 GEMA의 연구 위원회에 주어졌다.[1]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두단계 접근방식이 채택되었다. 첫째, WEF 선교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질문이 GEMA를 구성하고 있는 51개 선교적인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에게 각각 보내졌다. 이 조사를 위해 선택된 대상들에게 질문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팀은 가나 전체 10개 지역을 여행했으며 악톤 목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조사의 기술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설명하는 수고를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분배한 다음에 조사팀은 그 프로젝트의 제2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한 달 남짓을 기다렸다. 이 단계에는 조사 대상자들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답변이 완료된 자료들을 거두기 위해서뿐 아니라 아직 질문서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감독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권유를 위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질문서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번째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때 나머지 질문서들이 모아져서 자료로 편집되기 위해 사무실로 보내졌던 것이다.

조사를 위한 이러한 접근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모든 질문서들이 채워져서 편지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악톤 목사와 그 조사팀에 의해 거두어졌다. 어떤 종류의 답변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을 방문하여 말로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 조사에 일종의 감정적인 깊이를 제공했다. 이 방법을 채택한 GEMA의 첫번 목표는 가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들과 선교기관들 사이에서 협의회의 일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도전을 얻는 것이었다. 뒤이어 아래에 이어지는 설명은 질문서에 대한 객관적인 응답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교 상황에서, 그리고 특수하게는 가나의 선교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1) 이 장에서 제시되는 통계 숫자가 다른 장들에서 주어진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1) 피터 브릴리에 의한 계산(제6장)은 자료들을 처음 검토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2)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조나단 루이스(제7장)는 작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자료를 검토했다. (3) 각 국가별 사례 연구에 있어서 어떤 통계치들은 새로운 관찰과 숫자를 읽는 다른 방법을 반영한다.

해 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 지도부, 그리고 교회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조사 참여 단체

조사 참여대상 단체는 24개 선교회, 6개의 교단 파송부서 그리고 21개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지역교회들이었는데, 각각 47%, 12% 그리고 41%를 차지했다. 참여대상은 넓게 보면 오랜(서구)선교 단체에 의해 설립된 교회들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들은 새로운 선교회/교회의 감독 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선교사를 모집하는 단체들과 훈련 기관 그리고 파송 단체를 포함한다. 다섯개의 조직화된 그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나 교회 협의회
- 가나 오순절 교회 협의회
- 은사주의 교회 협의회
- 지역적, 국제적 선교 단체들
- 가나에서 발생된 독립적인 선교 단체들

가나의 상황 속에서 2/3세계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탈락의 원인, 선교사 손실의 범위, 그리고 탈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역사적인 원인에 관해 위에 있는 각각의 그룹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나 교회 협의회

가나 교회 협의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AME Zion 그리고 복음주의 장로교회와 같은 오래된 주요 교단들을 포함한다. 이 교회들의 뿌리는 유럽을 휩쓸고 후에 미국까지 퍼졌던 위대한 개신교 운동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나에 있어 선교 운동의 시작은 15, 16세기의 포르투갈의 탐험 시기와 일치한다. 역사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나(당시에는 황금 해안으로 불리웠음)에 상륙한 것이 1471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1년 뒤인 1482년에 그들은 미네의 세인트 조지 성(城)을 (현재에는 엘미나 성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하기 시작했다. 1521년 존 왕이 포르투갈의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엘미나와 그 주변의 토착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에스떼르바옹 다 가마 대장에게 "마을에 사는 흑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어떻게 읽고,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를 배우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감리교회는 19세기 초반에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뒤따라서 스위스 바젤 선교회로부터 장로교인들과 독일 브레멘 선교회로부터 복음주의적 장로교인들이 들어왔다. 이러한 그룹들에 이어 성공회와 AME Zion 교회와 다른 교단들이 사역을 시작했다.

개신교 운동은 그 초창기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유럽과 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그들을 파송한 선교기관의 전통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초창기 선교사들은 인내심이 매우 뛰어났다. 휴식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풍부한 재정지원이 들어왔다.

1957년에 가나는 영국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었다. 외국인을 위한 정치적인 보호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다. 이것이 많은 선교사로 하여금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국가에서 철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요 현지 교단 교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는 교리에 관한 신학적 쟁점들로부터 시작해서 회중을 위한 경제적 책임과 직원의 봉급문제에 이르기까지 직면해야 할 많은 도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교회의 확장을 위해 그처럼 필수적인, 밖으로 뻗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척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진실로 그렇게 했다. WEF의 조사는 주요 교단 교회들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한 선교적인 노력에 있어 어떤 결정적인 후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나 오순절 협의회 소속 교회

가나에서의 오순절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시작되었다. 1914-1918년에 걸친 전쟁의 패배로 독일은 정치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영적/교회적 선교의 영역에서까지 지도적 위치를 빼앗겼다. 거대한 선교사 파송국가들의 정치적 혼동을 이용하여 새로운 오순절 운동은 출구를 찾았고, 그들의 신앙을 확산하기 위해 식민지로 이동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로부터 사도교회(Apostolic faith) 선교사들이 사도적 - 오순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도착했다. 그 후 미국 하나님의 성회와 포스퀘어(Foursqaure: 오순절계통의 교단 - 역주) 교회가 가나에서 역시 교회 개척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교회들은 지금도 그들의 설립자들의 열정을 전달받은 덕분에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소수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계속 이 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이제 선교사적/사도적 부르심에 응답한 많은 현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37년에 스코틀랜드의 브래드퍼드 사도교회는 가나 남부의 아사만키즈로 제임스 맥컨 목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맥컨 부부는 성령 세례와 그에 동반하는 방언, 치유 그리고 예언의 나타남을 경험한 훼이스 태버너클(Faith Tabernacle)의 한 그룹의 편지 요청에 의한 응답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그런데 맥컨 부부와 그들을 초청한 그룹 사이에 오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맥컨 목사는 그의 본부를 윈네바로 옮겼고 사도교회의 이름 밑에 두었다. 옛 그룹은 사도로 임명된 P. N. 아님의 지도하에 그리스도 사도교회(Christ Apostolic Church)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맥컨 목사는 정열적으로 전도의 사역을 수행하였고 그래서 그의 교단은 해안 지방과 아산티 지역의 몇몇 곳에서 곧 많은 회중을 가진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후에 사도교회는 두 번의 분열을 더 겪었다. 맥컨 목사가 이끄는 무리는 오순절의 교회(Church of Pentecost)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교단은 오늘날 잘 조직되어 있으며, 가나 전역에 지교회들을 가지고 있다. 이 교단은 그 창시자의 정열적인 전도의 전통을 따라 가나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다.

은사주의 운동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사주의 운동은 20세기 초부터 가나에 존재해 왔다. 이 운동의 기수는 리베리아의 윌리암 웨이드 해리스로서 1914년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며 가나의 남서부에 등장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기도 그룹들 내에서 은사주의적인 활동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쟁이 발발한 후에 나타나는 유행병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이 있다. 통상 신령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많은 현존하는 토착교회들은 1914년부터 1937년 사이에 일어난 은사주의적 부흥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가나의 은사주의 운동은 봉합된 솔기가 터지듯이 부흥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사회 전 계층과 영역에 걸쳐 수천개의 교제 모임, 교회들, 기도 그룹들과 캠프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머와 버스터 세대의 거대한 열정과 함께 솟아오른 이 폭발적인 성장의 우려되는 면이라면 그것은 때때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교 단체와 토착 독립 조직

가나 안의 대부분의 선교 단체와 토착적인 독립 조직들은 은사주의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많은 회원은 영국과 미국에서 온 성서 유니온(Scripture Union),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그리고 네비게이토의 제자들이다. 이러한 사역의 기반을 이루는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와 같은 훈련은 함께 강력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다.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들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여세가 지속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초기 선교사의 실패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구에서 온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은 가나에 교회를 심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이들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은 몇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더 많은 교회 개척자들을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 오순절/은사주의 계통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주요 교단에서 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은 자신을 고국으로부터 떠나도록 밀어내어, 수천마일의 거친 바다를 항해하도록 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독한 환경에서 질병과 죽음을 대면하도록 만들었던 자신들의 선교적 열정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러한 선교적 열정을 회중들에게 주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시작했던 교회들은 서구 사람들이 떠나버린 뒤로는 아주 천천히 자랄 수밖에 없었다.

둘째, 초창기 선교사들은 그들이 회심시킨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히 12:14)고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를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도덕적 타락, 사생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문제들이 현재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와 같은 개혁자들을 특징지었던 복음적 열정이 슬프게도 결여되어 있다.

셋째로, 초창기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그들은 서구의 세력을 극대화하고 자본주의를 확산시켰다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다. 이들 초창기 사역자들은 섬기는 지도자의 좋은 모본을 보여준 것 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로 비춰졌다. 선교부들이 주도했던 학교들에서의 교육은 일정 특권 엘리트 계층을 두둔하며 만들어낸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그들이야말로 서구 자본주의의 꼭두각시로서 탐욕과 폭력 그리고 지적 몽매(蒙昧)의 표본이었다.

넷째로 해악을 끼친 문제는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선교사들의 목표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만 했다. 사람들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은 전에 노예가 되었던 이교적인 믿음과 행위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시간이 가며 기독교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문화는 바뀌게 될 것이므로, 선교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초창기 선교사들은 자주 문화 변혁의 선동자가 되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선교사 탈락을 초래하는 어떤 갈등들은 이 쟁점으로까지 그 근원이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탈락 이유

선교사 탈락에 관한 연구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이유들을 밝혀냈다. 가나의 상황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든 탈락의 36%를 차지한다. 이 영역에는 미성숙한 영적 생활, 건강문제, 불충분한 헌신,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 독신 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염려들, 선교사역에 대한 진정한 영적 부르심의 결여 혹은 상실 그리고 비도덕적인 생활형태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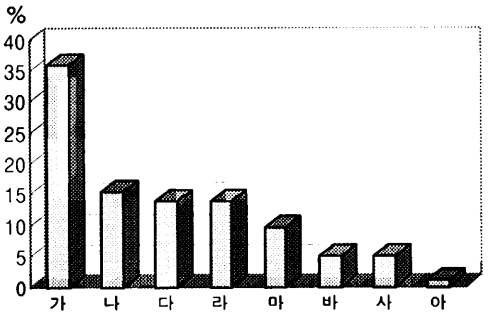
사회적 이유들은 가나 안에서 선교사 탈락 문제의 두번째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적 요인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본부 지원의 부족이며 여기에는 불충분한 재정과 기도후원, 모교회 또는 가족들로부터의 후원 부족이 포함되는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어려움을 주는 요소인 것이다.

세번째는 사역과 관련된 이유들이다. 여기서는 선

교 사역을 위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훈련과 준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거기에는 역시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의 문제가 있는데, 일의 실수를 초래하는 것이다. 선교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의 부족도 어떤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선교 현장에서 일찍 떠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

불가피한 이유들에 의한 것이 네번째를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직업을 바꾸는 것, 정상적인 은퇴, 정치적 위기, 사역 중의 죽음 그리고 선교회 외부의 사람과의 결혼이 포함된다.

팀 안에서의 문제로 인한 탈락은 다섯번째를 차지하여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교적인 인식이 없는 지역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전통적인 지도자들의 저항은 선교사들을 좌절시키고, 결과적으로 탈락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가. 개인적
나. 사회적
다. 사역과 관련
라 불가피한 이유
마. 팀
바. 문화적
사. 결혼/가족
아. 기타

표 11-1 가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탈락 이유

문화적 이유는 선교사 탈락 도표에 있어 여섯번째를 차지한다. 문화적 이유 가운데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자신의 문화와 선교지 문화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포함된다. 언어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능력의 결여는 곧 좌절을 초래하게 되어 탈락으로 이끈다.

결혼이나 가족으로 인한 이유는 일곱번째를 차지한다. 특별히 가나의 대가족 제도의 배경 속에서 선교사의 가족에 대한 의무들은 중요하다. 성년이 된 가나 사람은 나이든 부모와 대가족에 속하는 다른 가까운 친척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적절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곳에서는 선교사가 탈락의 압박을 받게 된다.

탈락 연구와 GEMA

탈락에 관한 조사는 가나 선교의 부족한 부분들을 밝히 보여주었다. 4가지 영역이 특히 현저하게 드러났다.

- 가나 교회의 선교적 인식의 필요
- 재정 지원과 헌신의 부족
- 주요 교단에서 부요한 교회들의 선교적 소명과 비전, 그리고 목표의 결여
- 최상의 지원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원 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예를 들어, 어떻게 선교사들을 선교 후원자들과 연결시킬 것인가 등)

선교적 인식의 필요성은 가나 전도 위원회(GEC: Ghana Evangelism Committee)의 후원 하에 실시된 1990년 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그 조사의 목적은 가나에서 미완성 선교 과업의 영역을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조사된 자료들이 공개되었을 때, 교회와 선교 단체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자국 내의 선교 기회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에 놀랐다.

가나 복음주의 선교 협의회(GEMA)는 이 모임에서 가나의 선교적인 도전과 씨름하고자 특별히 탄생하게 되었다. GEMA는 가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 국제적인 모든 기관들과 교회들을 회원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3개의 주요 목표들이 만들어졌다.

- 회원 기관들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규적인 세미나와 후속 워크샵을 개최한다.

- 인적, 재정적, 물질적 자원을 나눔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 미전도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과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제까지 GEMA는 나라 안의 선정된 지역에서 세미나와 워크샵을 조직하도록 도왔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 최초의 토착적인 선교훈련 기관인 가나 복음주의 선교사 훈련원(GEMI: Ghana Evangelical Missionary Institute)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원 중의 하나인 아프리카 기독교 선교회(African Christian Mission)와 서구 기관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자원들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GEMA는 또한 가치있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나에서의 스포츠 전도 사역 같은 것이 있다.

나라 안의 미전도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GEMA는 그 활동을 지역화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협의회의 지부들이 가나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 조직들이 선교사 탈락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자신들 지역 안에서의 선교 사역을 정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GEMA는 회원 선교 그룹들을 위한 교섭 능력과 아울러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각 회원 기관들과 교회들은 그들이 한 커다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유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AME 교단의 한 교회는 스웨덴의 TEAR FUND로부터 가나에서의 복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기금을 받았다.

협의회의 다른 자산은 함께 토론하여 결정하는 지혜이다. 위에서 나타났듯이 선교사를 탈락하게 만드는 두드러진 원인 중 하나가 개인과 지역교회들의 선교적 소명과 비전, 그리고 목표의 결여이다. GEMA의 지도력은 이러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분야

선교사 교육

자국인 선교사들이 받고 있는 교육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정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 초창기 선교 기관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주요 교단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목이나 교사가 되었고 선교사들은 되지 않았다. 그들이 배웠던 과목은 라틴어, 수학, 미술, 역사, 종교 그리고 음악이었다. 그러한 교육의 첫번째 목표는 성경을 읽게 하고 교회생활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 교육의 전반적인 철학은 교회의 교리에 의해 규정되었다.

불행하게도 많은 미션계 학교들에 있어서 교육의 목표는 문화적 가치와 행동을 이해한 개인들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상황화하도록 만드는데 두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문화와 분리된 가나 사람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미션계 학교들은 지역 사회의 이교적인 문맹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일종의 엘리트 계급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이어지는 세대에 선교사적 전통을 전달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진, 부상(浮上)하고 있는 자국인 선교사들에게 해야할 교육이란 말인가?

교회 개척자들이 공식적인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원시적인 지역에 처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의 첫번째 목표는 현지인들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대한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일진대 이러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은 선교 사역에 대한 계획 중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교육할 때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시켜야만 한

다. 또한 커리큘럼도 기초적인 과목에 제한하기보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만 한다.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는 복음의 멧시지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미션계 학교들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세속화일 것이다. 국가가 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선교부가 통제하여 형성되었던 학교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시각에 대한 강조가 점점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교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충 살펴본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교회가 널리 보급하던 이론과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들에 대해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기독교 교리에서 일찍이 벗어나 세속적인 교육 철학에 노출된다. 그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면의 영적 가치와 세속적이고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추구하고, 외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배운다. 미션계 학교 안에서의 세속 교육은 학생들로부터 절대적인 세상 안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을 절대적인 운명에 대한 관점과 함께 앗아가 버렸다. 대신에 인간을 아무런 목적도 없는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로 격하시키는 상대주의와 허무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을 졸업한 선교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애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선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말인가?

문서 및 시청각 자료

관심이 요청되는 다른 영역은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것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 모두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 교육자료와 함께 선교사들이 시키는 교육은 사랑, 동정, 겸손, 희생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가진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적 교육 원리들, 목표들 그리고 커리큘럼 자료들을 포함하는 교육적 안목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시청각 보조 자료들의 영역에 있어서, 단지 세속 교육의 발전을 따라잡는데 급급하기보다 다음 세대에 일어날 선교사들을 기르기 위해 선교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사회 개발

토착적인 선교상황에 있어 세번째 연구 영역은 사회 개발이다. 흔히 교회 개척자들의 관심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신자들)이나 교회의 잠재적 회원인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나 악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아들이나 길거리의 아이들 그리고 사회 속의 병든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사회 개발의 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존재하는 필요들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가 요청된다.

WEF 선교 위원회 지도자들은 물론 진지한 기독교 지도자라면 누구든지 다윗의 용사들(삼하 23장)과 신약 성경을 장식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히 11장)을 만들어낸 의식, 가치, 그리고 관점들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가나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탈락이 줄어들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장차 선교사가 될 사람들은 용기, 희생,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계 12:11)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결론

선교사 탈락 방지 연구는 가나의 교회들과 선교계에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가나에 있어 가장 어둡고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잊혀진

선교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가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15,000개의 마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도 깨우쳐주었다. 그리고 네가지 주요한 도전들이 부각되었다.

1. **문화 훈련의 필요성.** 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들은 탈락을 예방하고 가나 안에 있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룹들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문화 훈련이 시급함을 분명히 알게 하였다. 새로운 선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역하기를 기대한다면 선교사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적절한 언어를 배우는 기술과 방법이 있다면 선교사들의 사역은 언어 장벽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음식이나 지방의 관습과 같은 다른 문화적 변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2. **영성 훈련의 필요성.** 선교사 준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절대적이다. 어떤 선교사들이 탈락하는 이유는 영적 전투가 그들에게는 너무 격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이유로 해서 떨어져 나간다. 에베소서 6:11-12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3. **교회의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조사는 가나의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모금하는 일에 있어 교회의 역할에 대해 대체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 주었다. 교회의 평범한 신자의 생각은 인색함에서 관대함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풍성함을 따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빌 4:19). 그들은 교회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각 지역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4.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육의 필요성.**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만 한다. 성경의 원리들이 세속적 교육 원리들과 현대 인본주의적 철학들을 대신해야만 한다. 교육이 전반적인 역사와 삶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할진대,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선교사 훈련은 단지 전문가들을 만들기 위한 것 이상으로 "선교"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선교는 그것을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 즉 이생을 초월하는 목적과 소망을 제공하는 이유를 향한 전적인 복종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선교적 교육은 환경과 고난 또는 생명의 위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의식과 교육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왕국의 모본을 따르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도록 일깨워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질서는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초월하는 정치적 책임감을 만든다. 경제적 가능성들은 제한적인 자원을 가진 세상의 조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선교사 탈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과 새로운 통찰력들이 교회의 사고(思考)의 일부분이 될 것과 교회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 선교현장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선교지도자들은 기도해야만 한다. 또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들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추수할 것들은 추수꾼들이 부름받은 지

역을 이탈하고 선교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세쓰 아뇨미(Seth Anyomi)와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에게는 네명의 자녀가 있다. 가나에서 교사 훈련을 받았던 아뇨미는 후에 미국에서 교육 행정에 관해 학부와 대학원에서 연구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가나의 African Christian Mission 사역을 개척했다. 그들은 6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기독교 학교, 소녀들을 위한 직업 훈련소,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두 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이래 아뇨미는 가나 복음주의 선교 협의회(GEMA)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TWMA의 실행이사 중의 한 사람이며, WEF 선교 위원회 위원이며 World Link University for Africa의 학장이다.

12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 탈락

필립 엘킨스

몇 달 전에 나는 제이슨 써몬(Jason Summon)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의 학교는 25%에 달하는 학생들이 중퇴하고 있었다.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당국은 그러한 중퇴에 대해 염려만 하고 있었는데, 제이슨은 이러한 탈락율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그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중퇴 순찰대(patrol)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중퇴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는 중퇴에 관한 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고, 그 학교는 "중퇴 제로지대"로 변화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와 그의 중퇴 순찰대는 학생들의 삶에 파격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불필요한 중퇴의 원인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 탈락 감시

북미주의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을 조사하면서 가장 놀란 발견은 탈락과 그 원인들을 감시하고 해결을 향해 나아가도록 내부적인 조직을 창시하는 "제이슨"과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이었다.

몇몇 예외들은 있었다. 남침례교 총회 해외선교 위원회의 짐 슬랙은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이슨"의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가 개입하기 전에도 "중도 탈락" 감시 체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각 경우에 있어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씨름하였다. 즉 그것이 방지가능한 것인지, 또한 다른 선교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탈락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였던 것이다. 비슷하게는 C&MA 교단이 선교지에서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고, 아울러 그러한 문제들이 때 이른 이탈로 발전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바로 그 조직은 이탈한 사람들의 탈락 원인에 관해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사례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혀질 때는 적절한 조치를 찾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과는 달리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는 "제이슨"과 같은 사람이나 탈락의 원인을 추적하는 조직 그리고 방지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바로잡기 위한 계획적인 방침이 아예 없는 선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규모가 큰 선교회들도 있다. 이러한 양극 사이에 나머지 대부분의 선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특별히 지정된 "제이슨"이 없지만, 자신들의 탈락 원인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 문제들이 골치가 아프지만 그 상황은 그대로 받

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느낀다. "우리는 결국 사단과의 전쟁 중에 있기에 사상자들이 있을 것은 예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회들은 탈락의 원인과 관련된 쉽사리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들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기네 기관의 선교사 탈락이 방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방지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해 놓은 년간 또는 5년간, 10년간의 상세한 검토 자료가 없다. 또한 방지가능한 탈락을 바로잡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가지고 있는 선교회들은 아주 드물었다.

이 조사에는 교회들도 포함되었는데, 왜냐하면 북미주의 많은 대형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모집하거나 보내는데 있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교회들의 완전한 동역자가 되기를 정당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매우 효율적이지 못함을 나는 발견하였다. "당신들 기관의 선교사들은 자주 탈락합니까?" 또는 "그들은 더 오래,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그들의 안건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만일 교회들이 파송 과정에 더 많이 개입한다면 그들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오래 머물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하는데 어떤 차이를 일으킬 것인가? 현재, 이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들 안에 그 쟁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이슨들"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탈락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의 조사를 위한 질문에는 책임있는 응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히는 많은 답변을 선교회들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답변들을 바꾸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탈락의 진짜 이유들에 대해서는 추측해야만 한다. 우리는 선교사들이나 인사 담당자가 그것이 떠나는 이유라고 제시하는 것 이상의 진짜 이유들을 추적할 수 있는 연례화된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미주에서 가장 큰 선교회 중 하나가 전화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왔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자료들과 통계치들을 유지해 왔지만 불필요한 탈락에 대한 진짜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오지 않았었기에 그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군요. 우리는 이 조사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외침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어떻게 탈락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모든 선교회와 파송 교회들이 비슷한 각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는 과거를 조사하면서 탈락에 관한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가장 최근의 연구가 선교 연구 도서관(Missionary Research Library)에 의해 1965년 출판되었음(Bailey & Jackson, 1965)을 발견했다. 그 연구는 1953년부터 1962년 사이에 36개 선교회와 함께 일했던 4,970명의 선교사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213개의 선교회와 함께 일했던 23,432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미국 안에만 360개의 파송 선교회들이 있다. 이 중에서 160개 선교회들과 일하는 18,845명의 장기 선교사들이 우리의 조사에 응답하였다. 거기에 추가하여 미국의 77개 교회들과 캐나다의 67개 선교회들 중 25개 선교회가 응답해 왔다(표 12-1을 보라).[1]

불행스럽게도 1965년 자료에는 모든 탈락의 이유에 대한 년간 탈락율이 나와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료는 "탈락"을 두가지 범주로 옳게 나

1) 이 장에서 제시되는 통계 숫자들이 다른 장들에서 주어진 것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1) 피터 브릴리에 의한 계산(제6장)은 자료들을 처음 검토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2) 데트레프 블뢰헤르와 조나단 루이스(제7장)는 작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질문들을 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자료를 검토했다. (3) 각 국가별 사례 연구에 있어서 어떤 통계치들은 새로운 관찰과 숫자를 읽는 다른 방법을 반영한다.

통계 자료 (미국과 캐나다)				
	조사자료를 보낸 숫자	조사자료를 적용치 않기로 한 숫자	사용가능한 자료 숫자	조사완료된 사료의 비율
미 국 선교회	360	13	160	46
캐나다 선교회	67	1	25	38
미 국 교 회	277	11	77	29
캐나다 교 회	1	0	1	100

표 12-1

누었다.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탈락과 "정상적으로 예상되었던" 탈락이 그것이다. 후자의 범주에는 은퇴, 죽음, 단기 선교사들이 계약을 끝내는 것 그리고 20년 또는 그 이상 사역한 장기 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네가지 분류는 사고로 간주되지 않았으므로 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에는 단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탈락만을 포함시켰다.

1953-1962년 사이의 10년 동안 방지가능한 탈락은 28%, 혹은 매년 2.8%였다. 최근의 연구에서 미국의 방지가능한 년간 탈락은 3.96%였고, 캐나다의 경우는 4.42%였다. 불가피한 탈락은 미국이 2.15%, 캐나다가 3.03%였다. 모든 이유를 합하여 미국은 년간 6.12%, 캐나다는 7.45%의 탈락율을 가지고 있다.

C&MA 교단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그들의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지난 10년간 단지 년간 1.3%였다는 것이다. 비슷하게는 1995년 하나님의 성회의 방지가능한 탈락율이 2.33%였다.

선교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선교회들이 어떻게 탈락율을 산출하는지 정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1984-1993년 사이의 10년 동안 C&MA는 년간 탈락율이 6.3%에 달했다. 그러나 선교부 직원의 87%는 장기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돌아와 일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탈락을 제외한다면 그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만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수 이유들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1.3%로 줄어드는 것이다.

남침례교 총회의 해외 선교 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 1980-1991년 기간에는 년간 탈락율이 3.84%였다. 이 탈락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1) 정상적인 연령에 이른 은퇴, (2) 계약된 시간이 끝난 수습 및 협력 선교사, (3) 특별한 과업이 주어졌다가 그것을 완수한 후 그만두는 것(Bridges, 1982). 하지만 죽음은 탈락의 요인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남침례교 교단과 C&MA 교단의 보고를 분명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탈락"과 "받아들일 수 없는 탈락"에 관한 똑같은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자세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한 필요하다면 동등한 기준을 사용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선교 기관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탈락에 관하여 공동으로 정의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를 도출함으로써 선교운동의 유익을 위해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하는 것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연구를 위해, 우리는 탈락을 "방지가능한 것"과 "불가피한 것"의 두가지 주요한 범주로 나누었다. 선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방지가능한 탈락은 "방지" 영역의 노력이 요구되고, 불가피한 탈락은 아마도 "교체"와 같은 아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불가피한 범주 아래 우리는 5가지 이유들을 넣었다.

- 정상적인 은퇴
- 정치적 위기
- 사역 중 죽음

- 선교단체 밖의 사람과의 결혼
-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것.

방지가능한 탈락은 6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 결혼/가족과 관련된 이유
- 선교회와 관련된 이유
- 개인적인 이유
- 문화적 이유
- 사역과 관련된 이유[2)]

북미주 조사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이런 종류의 조사에 어떤 단체들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국제선명회의 Missions Advanced Research and Communications Center에 의해 출간된 선교 핸드북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목록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목록으로부터 우리는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미국의 360개, 캐나다의 67개 선교단체들을 선택했다. 파송 교회들의 명단은 교회 선교 위원회들의 전국적 조직인 ACMC로부터 제공받았다. 표 12-2는 조사에 응답한 선교회들에 관한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조사 결과

조사는 왜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서 떠나는가에 대한 26개의 이유들을 목록에 올리고 있다. 표 12-3은 이러한 이유들을 인지된 중요성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정상적인 은퇴"(방지할 수 없는 원인)가 목록의 가장 첫번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

선교사에 관한 통계 (미국과 캐나다)		
	미국 선교회	캐나다 선교회
해외선교 사역을 위한 수입	$941,199,283 (160개 기관 중 138개 것)	$41,924,814 (25개 기관 중 24개)
해외에서 4년 이상 사역 기대	18,845	923
1-4년까지 사역 기대	1,961	92
2-11개월까지 사역 기대	438	49
2개월 미만 사역	12,981	872
전액 후원받는 현지인 사역자	2,615	7
부분 후원받는 현지인 사역자	6,001	50
비거주 선교 요원	223	37
타국으로 파송된 외국인 사역자	913	14
자비량 선교사(Tentmaker)	478	31
본국사역 및 사무행정 사역자	4,520	62
총 사역 햇수	8,537	1,280
평균 사역 개월수	56	53

표 12-2

2) 자세한 것은 이 책의 345-351페이지에 수록된 설문조사 목록을 참조하라.

이 아니다. "자녀" 문제가 두번째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을 어디에다 올바로 쏟아야 할지를 일깨워준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선교 훈련원(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과 로스엔젤레스 선교사 인턴쉽(Los Angeles Missionary Internship)에서 선교사 후보의 자녀들에게 선교지로 나가기 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선교사가 되려는 부모의 선택 때문에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상처는 선교지를 향해 떠나기 전에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동료들과의 문제"는 역시 중요한 안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들은 이 원인을 세번째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선교회들은 이것을 여섯번째에 놓았다. 그런데 이것 역시 선교지로 나가기 전 훈련에서 흔히

선교 사역을 떠나는 이유 (미국과 캐나다)

이 유	세계 전체(%)	북미 선교회(%)	북미 교회(%)	중요성에 따른 서열		
				전체	선교회	교회
정상적인 은퇴	9.4	9.3	12.6	1	1	1
자녀 문제	8.1	8.5	7.3	2	2	2
직업의 변화	7.4	7.7	5.9	3	3	4=
건강 문제	7.2	7.5	5.9	4	4	4=
본국 지원 부족	6.2	6.4	5.9	5	5	4=
동료들과의 문제	5.9	5.8	6.4	6	6	3
개인적 사유	4.9	5.0	3.9	7	7	10
선교회와의 불화	4.7	4.7	4.7	8	9	8
불충분한 헌신	4.4	4.8	3.0	9	8	16=
소명의 결여	4.1	4.3	3.7	10	10	11
선교회 밖 결혼	3.6	3.7	0.9	11	11	25
미숙한 영적 생활	3.3	3.4	3.2	12=	12	13=
결혼/가족 갈등	3.3	2.8	5.3	12=	15	7
문화적 부적응	3.1	3.0	4.4	14	13	9
지역책임자들과의 갈등	2.9	2.9	2.6	15=	14	20
나이든 부모	2.9	2.7	3.0	15=	16	16=
부적합한 훈련	2.7	2.3	3.0	15=	16	16=
일에 대한 불만족	2.6	2.6	3.1	18	17	15
정치적 위기	2.4	2.1	3.3	19	19	12
부적절한 감독	2.1	2.0	3.0	20	20	16=
사역 중 사망	1.6	1.6	1.1	21=	21=	23=
선교회에 의한 해고	1.6	1.6	1.8	21=	21=	22
비도덕적 생활태도	1.4	1.1	3.2	23	24	13=
언어 문제	1.3	1.2	1.9	24	23	21
신학적 이유	1.0	1.0	1.1	25	25	23=
기타	1.9	2.0	0.6			

표 12-3

들 간과하고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성경에 관한 적절한 훈련 없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언어 준비가 없는 상태로 보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들이 적절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팀 안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에 있어서는 빈번히 실패하고 있다. 서구 파송 국가들에 있어 팀의 문제는 모든 탈락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인들은 또한 결혼과 가정에 관련된 이유로 해서 많은 숫자가 철수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선교지로 나가기 전 선발과정과 훈련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의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한 분야이다.

"건강 문제" 역시 목록에 있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탈락에 관한 뛰어난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남침례교단은 말라리아가 풍토병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건강문제로 지속적으로 탈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말라리아 예방백신이 10년 즈음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결책은 그러한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영구적인 탈락을 막기 위해 그러한 위험이 있는 선교사들을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다른 건강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영구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선교 훈련 현황

아마도 이 조사의 결과 중 선교 훈련자인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선교회들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훈련에 대한 명백한 가치를 못느낀다는 것이었다. 표 12-4의 수치들이 반영하고 있듯이 선교회들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혀 훈련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탈락에 관한 연구를 한 14개 국가에서 모아진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선교사들이 받은 훈련의 종류 및 양(量)과 탈락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재미있는 것은, 대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전혀 훈련을 요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높은 탈락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비록 훈련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탈락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문제 해결

탈락 문제에 대한 해답의 일부분은 올바로 질문하는 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선교회들과 파송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야만 한다.

- 우리의 년간 탈락율은 어느 정도인가?
- 방지가능한 탈락은 얼마나 되는가?
- 이러한 탈락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최근에 소수의 선교회들이나 파송 교회들은 선교사의 철수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잘 고안된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선발, 준비, 파송 그리고 현지에서의 목양 과정에 필요한 변화를 위한 결정을

선교회가 요구하는 훈련 (미국과 캐나다)

훈련 범주	이 영역에 있어 전혀 훈련을 요구하지 않는 선교회 비율 (%)
타문화 오리엔테이션	38
신학적/직업적 훈련	42
조직내 오리엔테이션	72
비형식적 교육	52
타문화 단기 훈련	67
선교학 연구(비학위)	86
선교학 연구(학위)	93
다른 기술들	73
어떤 종류의 훈련	8

표 12-4

내리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산출할 추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모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표를 내거나 선교사역에서 물러날 때, 그러한 탈락의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가? 가끔은 그러한 정보가 모아지는 과정 자체가 탈락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과정에 있어서, 탈락을 추적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두가지 장치가 드러났다. 첫번째 것은 남침례교 선교 위원회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고 두번째 것은 C&MA가 사용하는 것이다.

남침례교단 안에서는 탈락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들이 있어서 선교사 남편과 아내, 현지체제 감독 그리고 지역 책임자에 의해 각각 기록된다. 마지막 두 사람은 선교사들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그들이 돌보고 있는 해당 선교사들의 진정한 탈락 이유에 관해 진술하도록 되어있다. 지역 책임자는 그 이유들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정보로 기록한다. 그 양식들은 의료분과로 넘겨지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와 기획분과로 넘겨진다. 거기서 그것들은 비밀 서류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양식들은 관련된 선교사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파기하게 된다.

매년 통계 분석가가 모든 탈락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분석을 위해 전에 실시된 연구와 결합된다. 그 분석으로부터 선발 과정, 훈련, 지도력, 인력 배치 등에 있어 가능한 변화들을 위한 제안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분석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나라에서 수년의 기간에 걸쳐 이례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면 그 특정 국가의 탈락에 대한 자료가 검토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구 결과는 어쩌면 그 지역 감독의 지도력 자질 부족이나 목양의 결여라는 것을 지적할지 모른다. 관심은 또한 선교사들이 많이 떠나는 특정 지역에도 주어지는데, 만일 거기에 탈락을 유발하는 특수한 의학적, 정치적, 지도력 등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탈락을 가장 쉽게 만드는 사역 분담에 관한 자료들도 만들어진다. 얼마 전에 남침례교단은 제한 국가들 안에서보다 개방된 국가들 안에서의 탈락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번째 방법은 C&MA 교단에서 얻은 것이다. 나는 C&MA가 탈락을 막기 위해 각 선교 현지의 선교사들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고안한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 이러한 관리를 위한 첫 단계는 현지체제 책임자로 하여금 일종의 년간 진척 보고서를 준비하여 예정된 면담 일자보다 두달 전에 해당 선교사에게 준다. 면담 후에, 현지 지도자들 팀과 지역 책임자는 그 자료들을 검토한다. 만일 해당 선교사가 탈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어떤 조짐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사역하는 중에 매 3년마다 그 끝 무렵에 각 선교사는 현장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한다. 현지체제 책임자는 그 평가를 검토하고, 해당 선교사를 만난 후 현지 지도자 팀과 지역 책임자와 협의를 한다. 현지 팀은 개인에 대한 임기 평가를 한다. 지역 책임자는 해당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본국 사무실과 같이 해당 자료의 복사본을 받는다. 그렇게 하며 개인의 사역 관리와 그가 필요로 하는 정당한 원조를 해 줌으로 불필요한 탈락 요인을 막기 위한 일치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탈락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내도록 돕는다.

결론

우리가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탈락을 추적하고 분석하려고 애쓰는 선교회들이 비교적 낮은 비율의 탈락을 이루어내고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결론은 선교회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훈련을 채택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탈락 통계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각 선교회는 자신의 "제이슨" - 탈락의 원인을 열정을 가지고 추적하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어떤 사람 - 이 필요하다. 오로지 이러한 방법으로만 우리는 이 탈락과 그에 따르는 심각한 자원의 낭비 및 수반되는 인간적 고통을 막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의 교회나 선교회가 어디서부터인가 시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책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탈락 추적을 위한 양식을 추천하는 바이다.

참고 도서

Allen, F. (1986). Why do they leave? Reflections on attrition.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2, 118-122.

Arndt, J. R., & Lindquist, S. (1976). Twenty to fifty percent fail to make it: why?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12, 141-148.

Bailey, H., & Jackson, H. C. (1965). *A study of missionary motivation, training and withdrawal* (1953-62). New York, NY: Missionary Research Library.

Bridges, E. (1982). Missionary resignations down but reasons still complex. *Foreign Mission News*. Richmond, VA: Richmond Southern Baptist Convention.

Britt, G. W. (1983). Pretraining variables in prediction of missionary success oversea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 203-212.

Cummings, D. (1987). Programmed for failure: Mission candidates at risk.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3, 240-246.

Cureton, C., & Kliewer, D. (1983). Service effectiveness at home and abroad: An annotated bibliography. *Journal of Phychology and Christianity*, 2, 45-51

Dye. S. F. (1974) Decreasing fatigue and illness in field work. *Missiology*, 2, 79-109.

Gardner, L. M. (1984). *Preventive care of mission personnel.* Doctoral dissertation,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 Denver, CO.

Gardner, L. M. (1989). *A case study examination of missionary terminations: Study of predictability and preventability factors by using the case method.* Doctoral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Hanscome, C. (1979). Predicting missionary drop-out.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15, 152-155.

Herndon, H. L. (1980). How many "drop-outs" really are "pushout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16, 13-16.

Howard, E. (1985). *Personality strengths and temperament traits: Factors in continued and discontinued missionar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Iwasko, R. (1986). Danger in the parsonage: Why missionaries and ministers fail. *Proceedings of the Seventh Annu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and Missions*, Angola, IN.

Kennedy, P., & Dreger, R. (1974). Development of criterion measure of overseas missionary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69-73.

Link Care. (1981). *The us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in the evaluation of missionary candidates: A handbook*, Fresno, CA: Author.

Mission Handbook (15th ed.). (1993). Monrovia, CA:MARC.

Nanfelt, P. N. (1991). *A restructuring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governing the missionary program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Nelson, T. R. (1985). *Critical cross-cultural adjustment skills needed by overseas missionary personnel: A preliminary study of missionary preservice training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Parshall, P. (1975). A "dropout syndrome" you can overcom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11, 223-227.

Reyburn, W. D. (1966). Perspective on missionary los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 84-90.

Studies of attrition by four mission agencies. (1986).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2, 122-129.

Tippett, A. R. (1960). Probing missionary inadequacies at the popular level.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49, 411-414.

Tucker, M. (1981). *Factors influencing cross-cultural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Intercultural Education and Research, Long Beach, CA.

Williams, D. (1983). Assessment of cross-cultural adjustability in missionary candidates: Theoretical,